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5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May Vol·257



찬란한 遺産
유산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0회 정기연주회



LI XINCAO &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Ⅱ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Ⅱ

2013. 5. 30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Program

교향곡 제8번 Symphony No.8

교향곡 제3번「영웅」 Symphony No.3 "Eroica"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입장권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BS 부산은행 전지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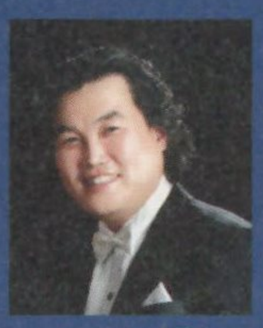
소프라노 김 유 섬



메조소프라노 강 희 영



테너 김 경



테너 장 진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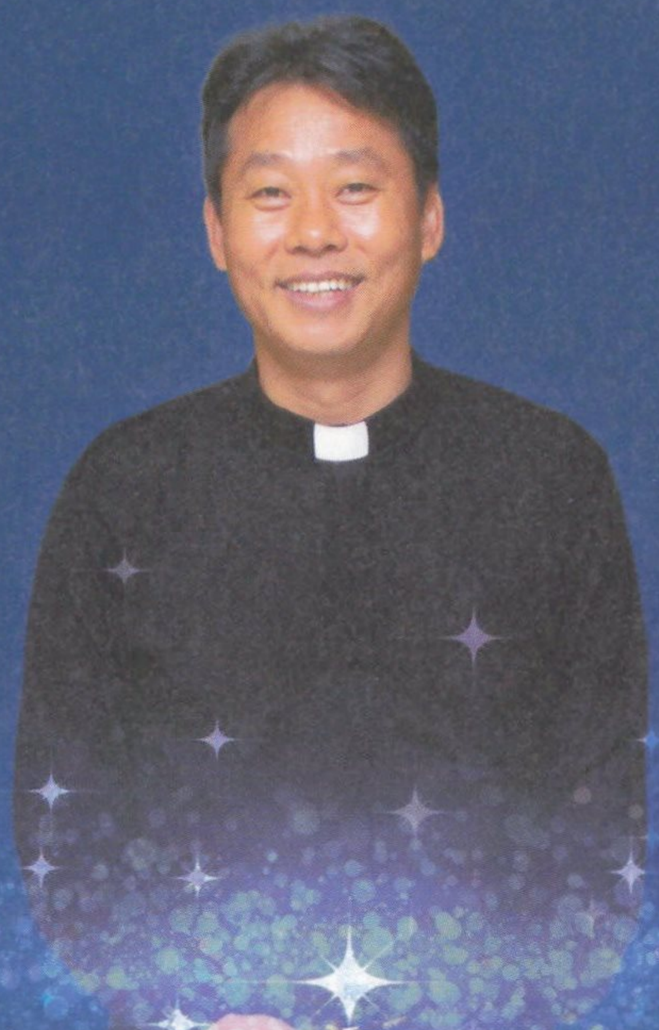
바리톤 강 경 원



베이스 김 정 대



특별출연 : 부산베데스다합창단



故 이태석 신부

4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의 봉사 ,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그 정신이 우리 사회에 잔잔히 번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제2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013. 5. 29 (수) PM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휘 오충근

연주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주 최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 후 원 |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 BS금융그룹 BS 부산은행 · 부산일보사 · 국제신문 · KBS 부산방송총국 · 부산 MBC ·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 http://cafe.daum.net/johnlee1004 T. 051-637-0125

관람응모

BS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www.popbusan.com

추첨 후 개별통지

※ 본 공연은 2013년 부산광역시 시비보조금과 음악회 후원처의 지정기부금 및 출연인 재능기부로 시행됩니다.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제20회 을숙도 명품 콘서트

연인이여, 그대 손을 나에게

임주섭 관현악을 위한 **품바** 2013
Chopin / Variation on "La Ci Darem la Mano, op.2"
Dvorak / Symphony No. 8 in G B163(op.88)



피아니스트 **노경원**
인제대 교수



예술감독 **김원명**
경성대 교수



지휘자 **윤상운**
동의대 교수



작곡가 **임주섭**
영남대 교수

2013. 5.9 (목)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T.I.F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T.I.F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 **롯데마트 사하점, 부산원음방송, 사하인터넷뉴스, 팝부산, 홈플러스장림점**
입장료 | **전석 2,000원**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무대감독 **전광수**, 음향감독 **이광섭**, 조명감독 **오종영**

CONTENTS

2013 May Vol·257 culture.busan.go.kr

06 **커버스토리** |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08 **프리뷰**

14 **문화가 화제** | 부산시 21C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정책 新패러다임 발표

16 **반갑습니다** |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위해 부산 찾는 건반 위의 구도자 백건우

18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 힐링의 섬 대마도 _ 박미혜

22 **클래식, 문학을 만나다 ⑰**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2_ 이동신

24 **불멸의 거장 – 드뷔시 ⑤** | 작품을 통해서 본 드뷔시의 음악세계 2 _ 최윤희

26 **그림, 풍류를 만나다 ㉗** | 부채그림 기려원유도(騎驢遠游圖)① _ 변광석

28 **그곳에 가면** | 이바구길

30 **우리는 문화가족** | 부산통기타사랑모임 통키타운

32 **리뷰** | 음악을 통해 인간 부르크너를 만나다_ 박진홍
부산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 _ 김남석

34 **테마가 있는 여행** | 복사꽃 향기 가득한 청도 봄여행

37 Culture Life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66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년 5월호 통권 25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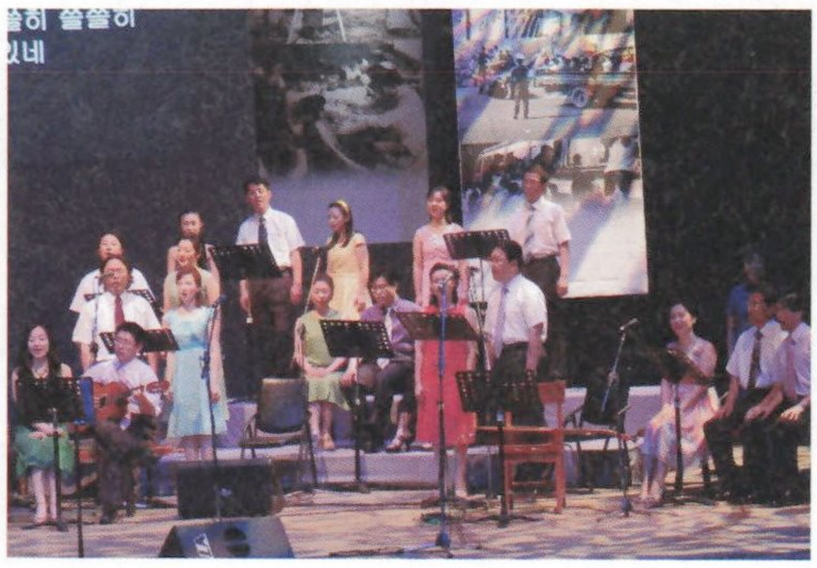
발행처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대연동 848-4)
Tel. 051-120(주간), 051-607-6222(야간)

발행인 | 최동환 **편집인** | 박원철

편집장 | 백경옥 **발행일** | 2013년 4월 25일

인쇄처 | (주)대주애드 Tel. 051)803-6631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1973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부산시립무용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제9대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홍경희와 함께 한국춤의 정수를 담은 공연 '찬란한 유산'으로 부산무용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의 정서와 감성으로 새롭게 채색한 한국춤의 향연 '찬란한 유산'은 부산시립무용단이 지난 40년 세월동안 부산시민들에게 선보여왔던 우리 춤의 숨겨진 미학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창작한 무대이다. 우리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창작춤과 민속춤, 전통춤 등 다양한 장르의 춤들을 한 무대에서 조화롭게 빚어낸 '찬란한 유산'은 부산은 물론 한국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어 부산시립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무대를 위해 한국춤의 현대적인 변주를 다양한 작품으로 선보여온 홍경희 예술감독과 부산민속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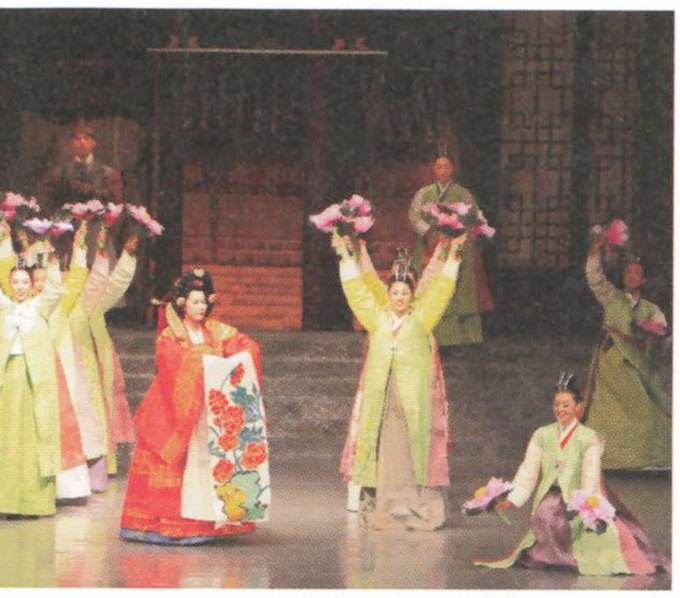
ⓒ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거장 김온경 선생, 한국춤의 브랜드화 성공신화를 이룬 안무가 배정혜가 함께 작업에 참여, 우리춤의 새로운 역사에 도전한다.

'찬란한 유산'의 연출을 맡아 부산 무용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배정혜는 국립무용단 예술감독과 서울시립무용단 단장,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를 역임하며 '춤, 춘향' '코리아 환타지' 'Soul, 해바라기'로 우리춤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찬란한 유산'을 위해 부산시립무용단 단원들에게 동래고무를 직접 지도하는 김온경 선생은 부산무형문화재 제10회 동래고무 예능보유자, 부산무형문화재 연합회 회장, 동래고무 보존회 회장,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우리 춤을 전승, 보급해 왔다.

우리 춤은 정중동(靜中動)의 미학이 매력이다. 멈춤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멈춤이 있으며 분명한 차이를 두는 형식으로 완성된 미보다 삶과 공존하고자 하는 아우름의 미학이 춤 속에 깊이 배어 있다. '찬란한 유산'은 정중동의 미학을 살린 고요함과 흥겨움, 전통과 창작, 민속과 정재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 아름답게 빚어낸다.



'찬란한 유산'의 시작을 알리는 '서무(序舞)-섬섬옥수'는 전통적인 궁중무용의 정수를 담아내면서 창작의 결을 더한 무대로 한국 궁정과 왕비의 귀품을 그려낸 화려한 연희를 '궁- 왕비의 아침'이라는 타이틀로 그려냈다.



이어지는 '본무(本舞)-일취월장'은 창작춤과 민속춤의 정수를 보여주는 다양한 소품들로 구성되었다. 부산의 정서와 몸짓을 보여주는 '동래학춤' '동래고무',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창작춤 '부채춤', 하늘과 영혼을 잇는 무속행위로서의 살풀이를 군무로 재창조한 창작 군무 '풀이', 수평의 춤사위와 조화를 이루는 장고를 통해 독특하고 장쾌한 울림과 멋을 전하는 '장고춤'으로 우리 민속춤의 멋과 아름다움을 전한다.

대미를 장식하는 '결무(結舞)-혼연일체'는 북의 장대한 울림으로 대지를 깨우고 우리의 감성을 깨운다. 힘이 장대한 북소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한바탕 춤 '결무(結舞)-혼연일체'는 나는 듯 머무는 듯 몰아치고 되돌아가는 멋이 있는 화려한 북장단과 멋들어진 발놀림, 팔사위를 담은 '천고'로 한국인의 신명을 보여준다.

일 시 5월 22일(수)-23일(목)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S석 7,000원·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 부산문화회관을 찾기 힘든 지역민들을 위해 부산시립예술단이 지역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는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 무대가 5월 한달간 펼쳐진다.

올해는 5월 9일 이효상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으로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이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북구문화빙상센터,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온 가족이 부담 없이 편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퍼토리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립예술단 외에 최고의 실력파들로 구성된 전문국악팀 '타로'가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 무대에 참가, 5월 10일 북구문화빙상센터와 5월 30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역동적인 타악의 재미를 선사한다.

부산에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 연주자들과 부산예술대학교 강열우 교수, 신문범 교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소리꾼 박성희가 주축이 된 타로는 2004년 창단 공연이후 지역 국악 연주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7회의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식공연,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개막식 축하공연, 부산세계불꽃축제 개막식 축하공연, OECD세계포럼 환송만찬회, 조선통신사 한·일교류대회, 한·중 수교 20주년 문화교류 축하공연 등 180여회의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타로는 특히 2009년 부산시 공모사업 1위에 선정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타악의 신명을 전해왔다.



■ 전문국악팀 '타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5월 9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5월 10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주페 '경기병' 서곡
가곡/그리운 금강산, 목련화
현제명/오페라 '춘향전' 중 '그리워 그리워'
슈트라우스/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웨버/뮤지컬 '에비타' 메들리 등 수곡

· 지휘/이효상
· 소프라노/최선희 · 테너/김진영
· 호른/만이(Man Yi)
· 문의/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국악전문단체 타로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타로(打路)'

5월 10일(금)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5월 30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사물놀이, 장구합주 '다드리', 판소리
국악가요 '천지여 천지여', '배띄워라'
모듬북합주(with 탭댄스, 힙합, 태권도, 마샬 아츠, 판굿 등)

· 문의/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시립합창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콘서트 '사랑의 노래'

5월 23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극장
5월 28일(화) 오후 7:30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프로그램

혼성합창/사랑노래모음 Because, Perhaps love, Love me tender, The Rose, Only you, Love is a splendored thing
재미있는 여성합창/행복은(윤초롱 곡), 숨바꼭질(조웅현 곡), 골드미스(류연희 곡)
남성합창/My Way(정덕기 편곡), Vive L'amour(Robert show 편곡)
7080 추억의 음악연곡(김일권 편곡)

· 지휘/오세종
· 문의/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부산시립무용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콘서트 '찬란한 유산'

5월 30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대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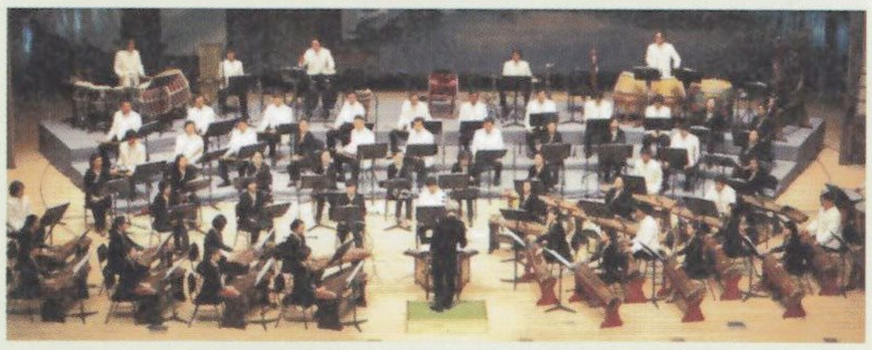
▶프로그램

한국의 위상과 역사를 소개하는 천하태평지무
왕비의 아침, 한국 민속춤의 정수인 부채춤, 동래학춤,
사랑을 주제로 한 창작 작품 '사랑가', '청실홍실',
한국의 신명을 담은 타악 퍼포먼스 '천지현황'

· 재구성/홍경희(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문의/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콘서트 '힐링 콘서트'

5월 31일(금) 오후 7:30 영도문화회관 대공연장



▶프로그램

수제천(집박/채수만), 거문고 산조, 대취타, 시나위,
흥겨운 민요 한마당, 사물놀이

· 집박/채수만(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
· 해설/전현진
· 문의/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일 시 5월 9일-5월 31일
장 소 금정문화회관(9일)
을숙도문화회관(23, 30일)
해운대문화회관(30일)
북구문화빙상센터(10, 28일)
영도문화예술회관(10, 31일)
입장료 전석 1,000원
문 의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아홉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 지휘 오세종


■ 가수 윤형주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인기 프로그램 가요합창음악회 아홉 번째 이야기가 5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지휘하는 올해 무대는 가수 윤형주의 특별출연으로 'Concert R, G, B'라는 타이틀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타이틀 'Concert R, G, B'의 R은 Red '정열'을, G는 Green '슬픔'을, B는 Blue '꿈'을 상징, 각각의 무대를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화음으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Red(정열)의 무대에서는 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박경희 곡), 어젯밤이야기(소방차 곡), 베사메 무쵸, 고래사냥(송창식 곡)을, Green(슬픔)의 무대에서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최백호 곡), 영영(나훈아 곡), 이별이래(유열 곡), 가을을 남기고간 사랑(패티 김 곡)을, Blue(꿈) 무대에서는 그 겨울의 찻집(조용필 곡), 이 밤을 다시 한 번(조하문 곡), 사랑노래모음(안현순 편)을 작곡가 최석태와 문지은, 김양희의 편곡으로 7080 세대는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시립합창단과 첫 만남을 갖는 가수 윤형주는 '트윈폴리오'의 주축 멤버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방송인이다. 웨딩 케익, 하얀 손수건, 바보, 우리들의 이야기, 어제 내린 비, 두개의 작은 별 등 30여곡의 히트곡을 비롯해 50여곡의 복음성가를 발표했다. 윤형주는 가수 활동 외에도 법무부 홍보대사, 한국십대선교회(Y.F.C) 한국본부 이사,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Habitat) 한국본부 이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이사 등을 지내고 현재 교도소 선교(소년수 대상), 장애인 선교 등의 선교사역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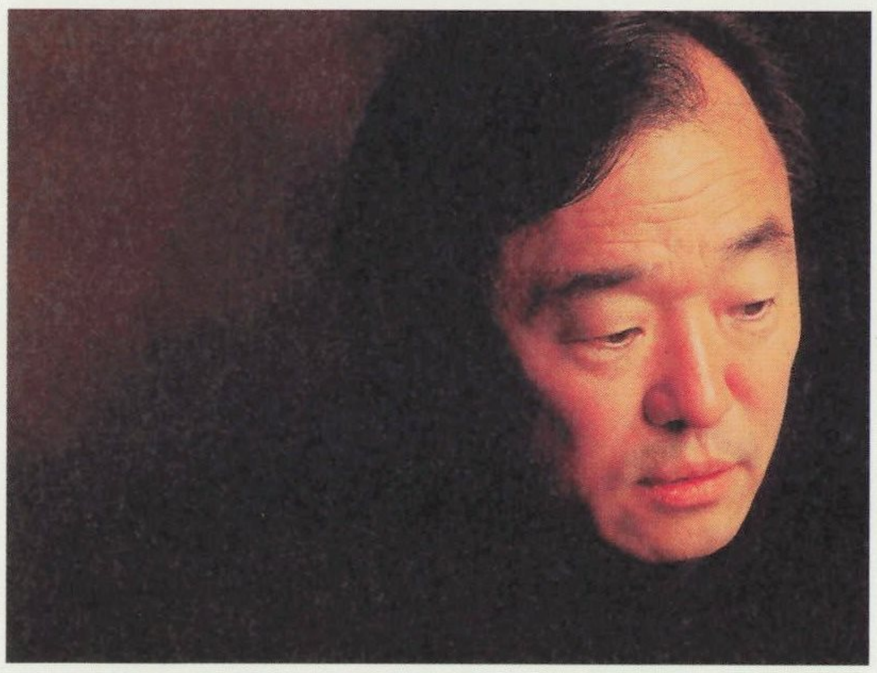
풍성한 무대를 위해 부산카머심포니 오케스트라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조미혜와 드러머 김진훈, 기타리스트 김정태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단원을 역임한 조미혜는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바이올린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실내악연주, PHOS 앙상블 퓨전음악회로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를 시도해왔다. 부산재즈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연주, MBC 목요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온 김진훈은 JH Drum/Percussion School 원장, 'DUK' Project 밴드로, 기타리스트 김정태는 J2 실용음악학원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 시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층 20,000원, 2층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 및 부산MBC 창사 54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백건우 초청연주회



■ 피아노 백건우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5월 24일 오랜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나움버그 국제콩쿠르 우승,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골드메달을 수상하며 세계를 무대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피아니스트

백건우는 '전설의 유령을 부르는 천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Pianist(New York Times)', '진실하고, 진정한 Virtuoso이며, 위대한 음악인이다(Figaro)'는 찬사를 받고 있는 건반위의 진정한 구도자이다. 1972년 뉴욕 앨리스 툴리홀에서 라벨 전곡, 카네기홀에서 제임스 콘론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연주하면서 뉴욕 데뷔 무대를 가진 백건우는 그동안 로린 마젤, 마리스 얀손스, 네빌 마리너, 볼프강 자발리쉬, 이르지 벨로흘라베크, 미하일 플레트네프, 드미트리 키타엔코 등 세계 유명지휘자와 연주했다.

백건우의 레퍼토리는 바흐에서부터 슈톡하우젠, 부조니에서부터 스크랴빈, 리스트에서 메시앙까지 대단히 광범위하다. 2000년에는 아시아 초연으로 부조니 피아노협주곡을 서울에서 연주했으며, 메시앙의 '어린 예수를 바라보는 20개의 시선들'을 초연했다.

음반 활동 또한 활발히 펼친 백건우는 스크랴빈, 리스트, 무소르그스키 피아노 전곡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전곡(지휘 Vladimir Fedoseeyev for BMG), 프로코피에프 피아노협주곡 전곡을 녹음했다(1993년 프랑스 Diapason 금상, 1993년 Nouvelle Academie du disque상 수상). 또 Decca Universal 전속 아티스트로 2000년 바흐-부조니 녹음, 2001년 포레(Diapason 금상 수상), 2003년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팽협주곡 전곡을 녹음했고 2005년에 베토벤 소나타 32곡 녹음을 시작하여 2007년에 전곡을 완성했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 기사훈장을 받은 백건우는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Emerald Coast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in Dinard(France)'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 백건우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제1번과 제4번을 연주한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은 베토벤의 초기 작품에서 보여지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려 노력한 흔적이 발견된다. 의욕에 찬 제1악장은 베토벤의 창작 활동이 왕성했던 시절을 반영한 밝고 서정적인 곡이며, 제2악장은 평화와 행복감에 찬 가요적인 중간 악장, 제3악장은 무곡풍의 리듬을 가진 론도이다.

피아노 협주곡 제4번은 베토벤의 5개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도 새롭고 완숙한 경지를 보여주는 곡이다. 서정적인 1악장과 시를 읊는 듯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대비가 뚜렷한 2악장에 이어, 생생한 리듬감의 3악장이 바로 연주된다. 오케스트라가 이전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어 피아노 협주곡임에도 마치 교향곡을 연상케 한다. 1808년 12월 빈에서의 공개 초연 당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속에 실려 오르는 피아노 선율이 마치 천상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길을 보는 듯하다'는 격찬을 받았다.

일 시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50,000원·S석 30,000원
A석 20,000원·B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Ⅱ


■ 지휘 리 신차오

3월 20일 베토벤 교향곡 제1번과 제2번 연주를 시작으로 2013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두 번째 무대가 5월 30일 교향곡 제8번과 교향곡 제3번으로 막이 오른다.

베토벤 교향곡 제8번은 베토벤이 교향곡 제7번을 완성한 6개월 후인 1812년 10월 발표된 곡이다. 대부분의 지휘자들이 청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며 압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7번을 선호하는 탓에 과거 양식으로 돌아간 듯한 8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지만 유머와 풍자, 반전의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대담한 진보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1악장으로써는 드물게 춤곡 풍의 3/4박자로 설정하고 서주 없이 곧바로 주제를 제시한 후 떠들썩하게 전개하며 주제의 성격을 모호하게 했고, 느린 악장을 쓰지 않고, 단조로우면서도 귀여운 멜로디로 진행한 2악장과 스케르초 대신 미뉴에트를 사용한 3악장, 돌발적인 조성 진행과 역설적인 표현으로 유머를 전해주는 4악장 등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제8번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상한 전조와 예상을 뒤엎는 전개방식으로 순간순간 놀라움을 안겨주는 모험과 재치가 숨어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주시간은 25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토벤 교향곡 제3번은 1803년에 작곡되었으며 베토벤의 중기 작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나폴레옹을 자유와 평등, 형제애로써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인도해 줄 영웅으로 이상화하여 나폴레옹에게 이 곡을 헌정하고자 했던 베토벤은 나폴레옹이 스스로 황제가 되었음을 알았을 때, 나폴레옹 역시 폭군이 될 것을 알고 실망과 분노로 헌정문이 써 있는 표지를 찢어버렸다고 한다. 이후 베토벤은 나폴레옹에 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17년 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죽었다는 보도를 듣고는 이 작품의 제2악장 '장송 행진곡'을 염두에 둔 듯 '나는 결말에 적절한 음악을 써 두었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작품의 배경에 관한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교향곡 제3번은 영웅의 위대한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불멸의 작품으로, 당시의 통념에 비해 엄청난 규모를 지닌 혁명적인 작품이었다. 느린 악장의 자리에는 비극적 장엄미와 열정을 가진 '장송 행진곡(Funeral March)'이 놓여 있으며, 각 악장마다 모든 음악적 재료들이 끊임없이 솟아 나옴으로써 힘의 증가가 계속되고, 이에 의해 한 주제가 다른 주제로부터 솟아 나오게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즉, 한 클라이맥스에서 다음 클라이맥스로 넘어가는 과정이 유기적인 결합을 지니고 있는데 이처럼 대립된 재료들을 유기화시킴으로써 하나의 통일된 음악을 만들어 가는 점이 바로 베토벤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이다. 1804년 12월, 로브코비츠 가에서 비공개로 초연되었으며, 공개 초연은 1805년 4월 7일 빈에서 베토벤 자신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연주시간 50분.

일 시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일정

Ⅲ	6. 27	교향곡 제4번	Ⅴ	11. 15	교향곡 제6번
					교향곡 제5번
Ⅳ	7. 11	교향곡 제7번	Ⅵ	12. 12~13	교향곡 제9번

2013년 제9회 부산국제무용제

춤! 바다를 열다—소통과 융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해변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세계 유일의 무용축제 '제9회 부산국제무용제'가 5월 3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운대해변 특설무대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풍성한 춤의 향연을 펼친다.

올해 부산국제무용제에서는 세계 9개국 우수단체가 참여하는 BIDF 공식초청공연과 AK(Arts Korea)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 BIDF춤아카데미, BIDF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바다와 어우러진 화려한 춤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소통과 융화'라는 주제로 프랑스, 미국, 루마니아, 베트남, 일본, 중국, 튀니지, 핀란드, 스페인 등 9개국과 국내 초청 40개 단체가 참여해 인종의 벽, 언어의 벽, 세대차이의 벽, 관념과 사상의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소통의 몸짓을 선보인다. 지난해 현대무용가 안은미, 부산 출신의 발레리노 김용걸에 이어 올해는 현대무용가 최상철 교수와 세계적인 발레리나 김주원이 각각 프로그래머와 홍보대사를 맡아 더욱 관심이 높다.

한국의 젊은 안무가를 국제적인 안무가로 육성하기 위한 AK21 국제안무가 육성공연은 지난 3월 16일 1차 비디오심사를 시작으로, 4월 21일 2차 심사를 통과한 4개팀이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6월 3일 결선공연을 치른다. 올해는 안영준 '균열', 이지은 '말의 온도', 지경민 '인간의 왕국', 한정미 '슬로우 웍'이 결선무대에 올라 열띤 경연을 펼친다.

개막에 앞서 오는 5월 4일 김해공항 국내선 로비에서 '찾아가는 홍보공연'으로 부산국제무용제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주요 일정

▶5월 31일(금)
18:30 BIDF 개막 식전행사
19:30 BIDF 개막식
20:00 BIDF 공식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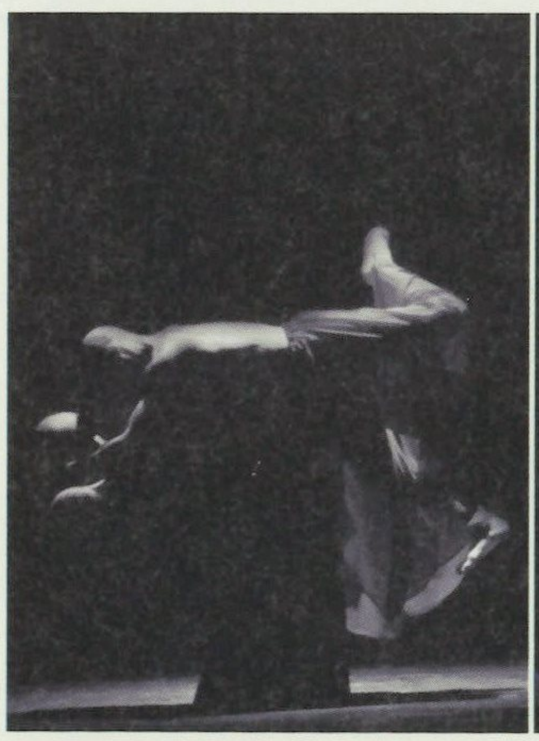
▶6월 1일(토)
18:30 BIDF 열린춤무대
19:30 BIDF 공식초청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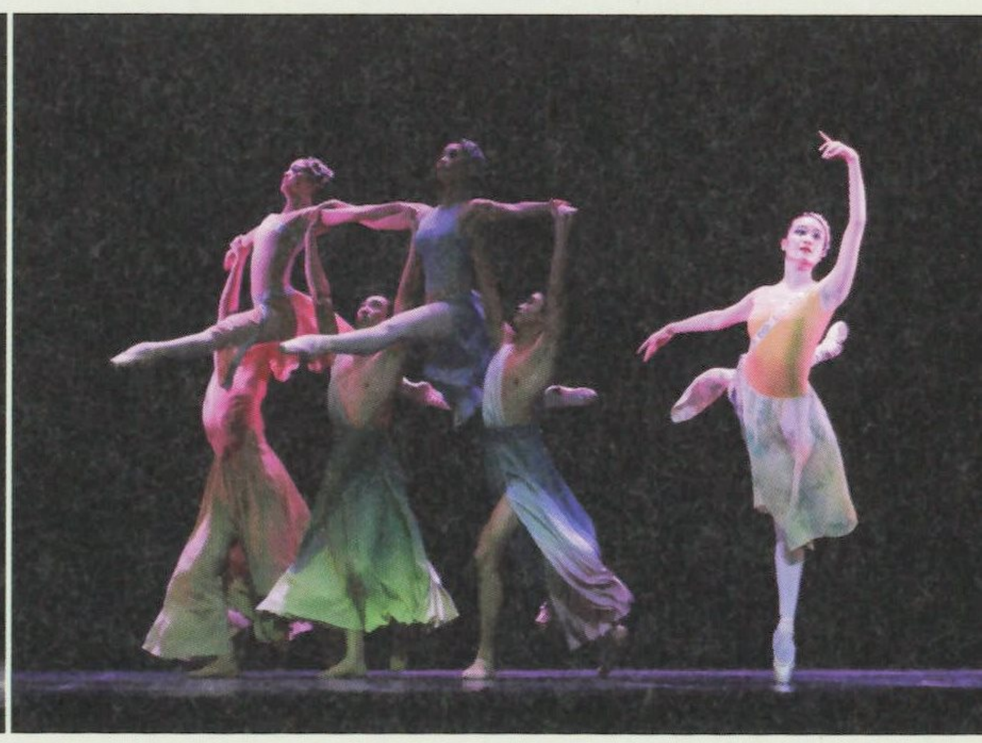
▶6월 2일(일)
18:30 BIDF 춤아카데미
19:30 BIDF 공식초청공연
22:00 해변무대 폐막식

▶6월 3일(월)
19:00 AK21 국제안무가 육성 공연
19:40 AK21 축하공연

▶6월 4일(화)
19:00 폐막축하공연, BIDF 시상식, 아듀 폐막식

일 시 5월 31일(금) –6월 4일(화)
장 소 해운대해변 특설무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문 의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868–7881, www.bidf.kr)





‘함께해서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

부산시, 21C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정책 新패러다임 발표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시민 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 및
여건 개선의
3대 정책 목표 제시

직할시 승격 50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3월 25일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문화정책 간담회에서 ‘함께해서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21C 문화도시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날 열린 문화정책 간담회에서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정책을 콘텐츠 중심의 문화정책으로 변환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 및 대안을 밝혔다.

이번에 밝힌 부산시의 새로운 문화정책은 △부산문화회관장 개방직화 △생활문화 진흥을 통한 문화공동체 지원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시민문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문화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산 2% 확대, 생활문화공동체 육성, 예술창작 진흥, 예술한류의 확산 등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 방향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문화정책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 △시민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예술인 창작지원 및 여건 개선의 3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조성

먼저, 첫째 목표인 ‘품격 있는 문화도시 기반조성’은 문화행정 운영시스템의 민간주도 전환, 문화예술분야 예산 확대,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부산문화회관 위상제고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문화행정 운영시스템의 민간주도 전환을 위한 부산문화회관장 개방직 채용 및 문화정책특별보좌관제와 부산문화재단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인 이사장제 도입 등 혁신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를 비롯한 문화예술예산을 시 전체 예산의 2%이상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예산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확대

둘째 목표인 ‘시민중심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확대’에는 시민문화커뮤니티 중심도시 부산 육성, 문화콜센터 운영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문화예술교육강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육성을 통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의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시민예술동아리 발굴 육성과 거점별 지역문화커뮤니티 공간 지원 등 생활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과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건강한 문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소외계층의 문화공동체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삼아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생활문화공동체들이 10월 한 달 동안 부산 전역에서 공연과 전



시의 장을 펼치는 시민예술축제의 달을 운영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문화매개역할을 할 문화콜 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확대, 문화예술교육사와 문화복지사의 현장배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예술콘텐츠 육성을 위한 스토리발굴과 창작클럽 육성,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한 부산 대표 브랜드 콘텐츠작품 제작, 창작오페라 제작, 전통예술의 창조적 활용과 보급, 지역공연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극장 및 지역기획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인 창작지원 및 여건 개선

셋째 목표인 '예술인 창작지원 및 여건 개선'에는 예술인 복지확대, 창작공간 조성, 예술창작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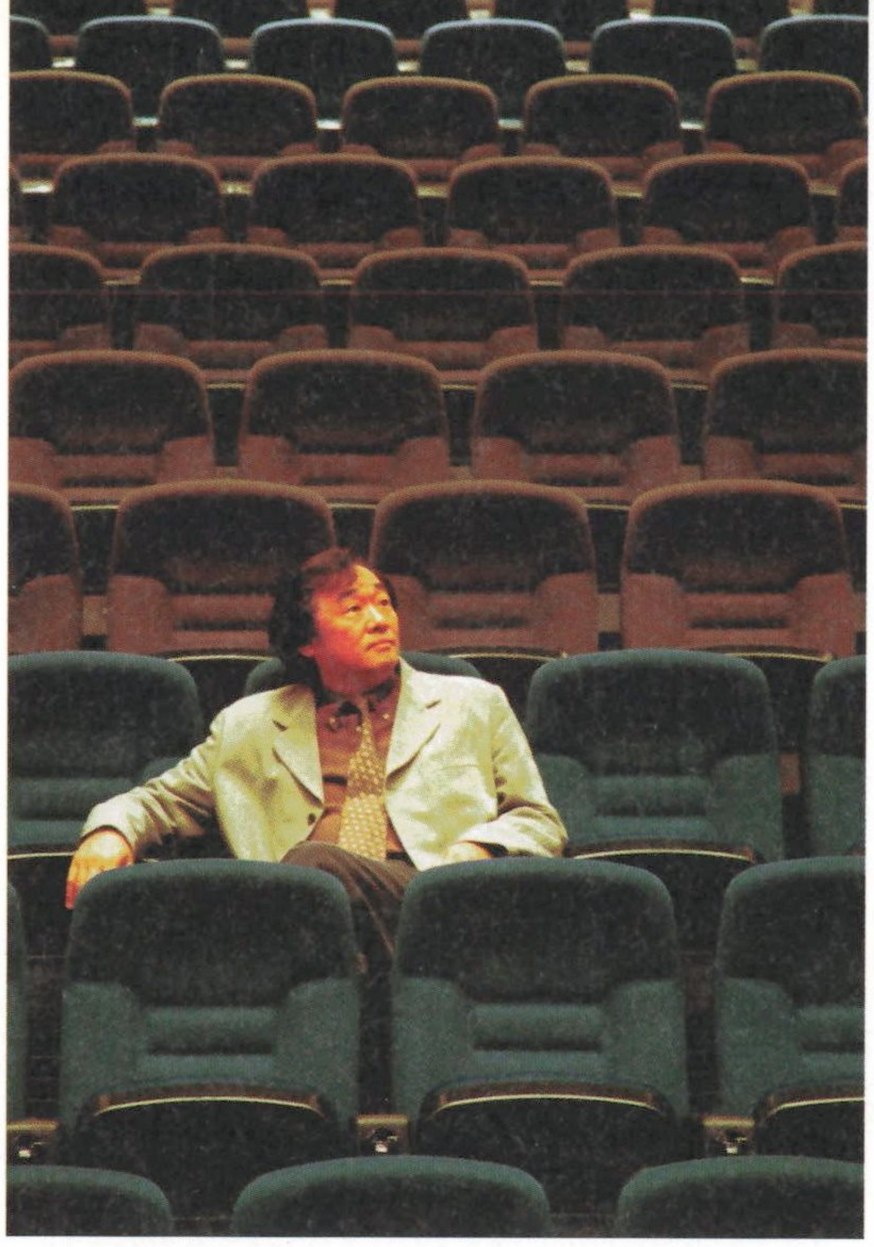
예술인복지법에 부응한 복지시책을 반영하고 원로예술인 추모사업, 예술인복지 지원조례 제정, 협력형 예술인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색있는 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문화커뮤니티와 적절하게 연계하여 권역별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청년, 대안문화공간을 발굴 육성하는 등 청년문화 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문화가 가진 본래의 가치를 주목하고 선언내용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추진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동아시아의 대표 문화도시 부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건우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 위해 부산 찾는
건반 위의 구도자





"진실하고, 진정한 Virtuoso(음악의 대가)이며, 위대한 음악인이다." – Figaro

"전설의 유령을 부르는 천둥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 New York Times

"백건우는 Busoni(부조니)의 재생인가?" – Fanfare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5월 24일 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헐벗고 굶주렸던 1960년대, 15세의 나이에 뉴욕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입학한 이래 백건우는 50여 년을 피아노와 함께 하며 진정한 구도자의 길을 걸어왔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는 단순한 건반의 울림이 아니라 그의 인생관, 음악 철학을 아우르는 메시지로 정평이 나 있다. 부산연주회에 앞서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부산음악팬들을 위해 지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오랜만에 갖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무대

부산을 찾은 지 2~3년 된 것 같습니다. 부산팬들은 정말 열정적입니다. 매번 공연에서 저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는 2000년 10월 곽승 지휘자 시절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을 연주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연주는 정말 오랜만이어서 정말 저도 매우 기대됩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부산에 대한 추억

부산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에 내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자주 찾지는 못하지만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있는 부산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바다를 아주 좋아합니다.

▶피아노를 사랑하는 건반위의 구도자

음악에 진심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도자이지요. 한 작곡가를 탐구할 때는 관련 영화와 책, 그림까지 섭렵할 정도로 몰입합니다. 1972년 뉴욕에서 라벨의 독주곡 전곡을 완주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스크랴빈, 라흐마니노프와 포레, 부조니 등을 연구했습니다. 2005년부터 3년간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의 녹음을 완성한 후 7일간 전곡 연주 대장정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슈베르트 피아노곡을 재발견 중입니다. 슈베르트 음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들입니다.

▶섬마을 사람들과 교감하는 섬마을 음악회 선사

섬마을음악회는 특별한 만남이지요. 예전부터 음악을 통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중요시해 왔어요. 섬에서 음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우리나라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마을 음악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연평도와 위도, 욕지도 등 3곳에서 섬마을 음악회를 가졌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평생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섬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 그들과 함께 한 영혼의 울림과 교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6월초에 울릉도와 사량도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부산에서 베토벤을 재현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자 주빈 메타)의 초청으로 3월 28일~30일 하이파와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연주했지만 이곡은 연주 때 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부산에서 4번과 1번 두곡을 연주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건반위의 순례자'

5월 부산 연주 후 한국에서 섬마을 음악회, 그리고 제가 총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디나르음악페스티벌 연주회를 비롯해 체코페스티벌, 이태리 나폴리 오페라좌에서의 공연, 일본, 중국 등등 계속 공연이 이어집니다.

▶부산 팬들에게 전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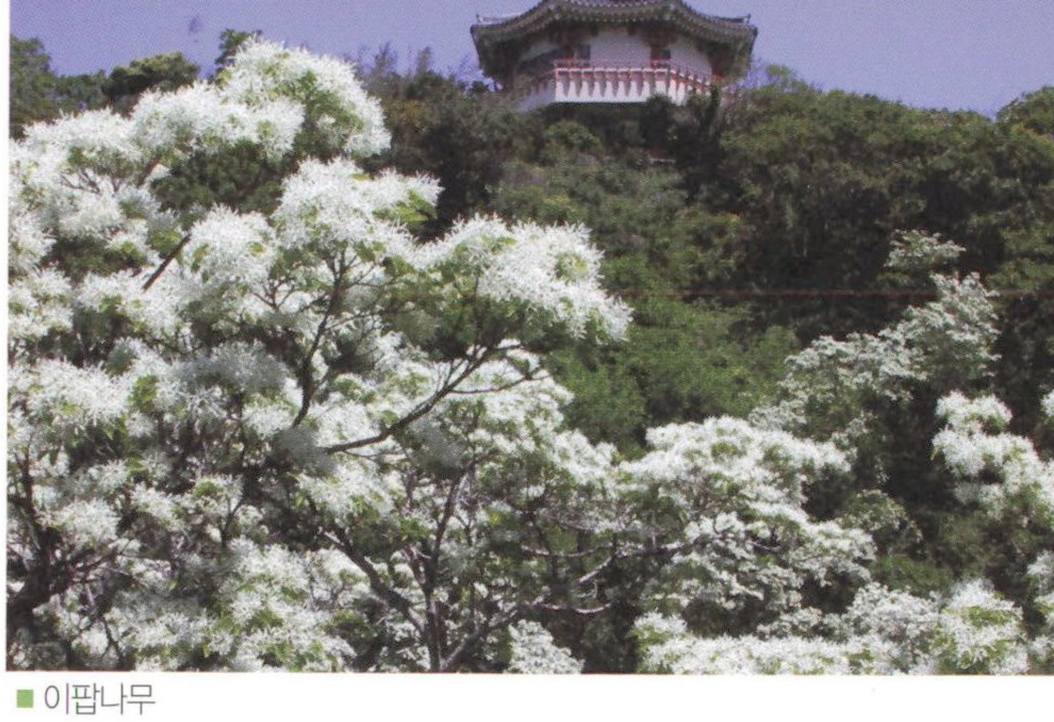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매우 기대됩니다. 중국에서 지휘자 리신차오 씨와 여러번 공연했는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휘자와 부산에서 또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부산팬들과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힐링의 섬 대마도

■ 박미혜_ 일본통신원, 쓰시마 국제교류원



■ 국경마라톤의 출발지 미우다 해변



■ 이팝나무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어버린 단어는 단연 '힐링'인 것 같다. 매스컴의 영향도 물론 한몫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 방송을 즐겨 보고 있지 않은 내게도 어느 새인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스며든 듯 하다.

이곳, 가깝고도 먼 이국 땅 쓰시마 생활이 3년째 접어들었다. 처음 부임하여 이곳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배 운항이 중단되어 무척 썰렁했지만 배운항이 재개되면서 이 한적한 어촌 마을에 한국 관광객들이 물밀 듯이 몰려들고 있다. 작년만 하더라도 약 15만 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 주었으니 3만 4천 여명의 작은 마을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지 놀라운 정도. 선박회사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 인하도 물론이지만, '힐링'을 외치며 일상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가볍게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외국을 찾는다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가?

대마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연을 벗삼아 바쁜 일상을 피해 한숨 돌릴 수 있는 곳이다. 부산에서 약 49km, 일본열도 후쿠오카로부터는 약 138km가 떨어져 있어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지만, 대마도가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외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다. 작은 땅의 90% 이상이 산지라서 농사 지을 땅이 얼마 되지 않고 산업 시설도 많지 않은 이곳에 약 15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오니, 한국 사람들이 쓰시마의 경제를 움직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여행의 목적도 매우 다양하다. 아웃도어가 유행인 지금, 등산 및 낚시를 즐기러 오는 4-50대의 중년층, 약 6시간의 체재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로 사이클링을 하는 당일 여행객들, 패션과 쇼핑의 중심 아이콘인 20대 여성들의 면세 쇼핑 등 연령별로 목적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실로 다양하다. 여행을 계획할 때 누구나 한번쯤은 그 지역의 이벤트를 찾아보고 지역주민들과의 멋진 만남을 꿈꿔봤을 터인데, 본인의 1차적인 여행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에 더불어 현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해외 여행의 질은 배가 되지 않을까?

쓰시마하면 무공해의 자연!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정도이니,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겠는가! 남국을 연상케하는 매력적인 바닷가와 리아스식 해안의 전망, 히노키(노송나무)의 향기는 연중 즐길 수 있지만, 시기에 맞춰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매력만점 여행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쓰시마는 겨울이 되어도 눈을 보기가 흔치 않다. 많은 눈을 볼 수가 없으니 가끔 흩날리는 싸라기눈만으로도 괜스레 낭만에 젖기도 한다. 이러한 쓰시마에서 하얀 눈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으니 바로 5월이다. '쓰시마의 하얀 눈'이라고 하면 의아해 하겠지만 3천

그루가 넘는 이팝나무가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는 가미쓰시마(上対馬)의 와니우라(鰐浦)지구에서는 5월이 되면 꽃이 만개하여 새하얗게 눈이 내린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 이 이팝나무의 꽃이 해수면에 비치면 그것 또한 절경이니, 새하얀 꽃을 보며 우리의 마음도 함께 정화시켜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매년 5월 첫째 주에 히토쓰바타고(이팝나무) 축제가 열린다. 유람선에서 감상하는 이팝나무는 바다와 어우러져 또 다른 절경을 즐길 수 있으며, 평소에는 출입이 통제되어 있던 우니지마 섬(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도 기항을 하기 때문에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공연 무대가 설치되어 일본 전통북 및 전통무용 공연 등으로 일본의 독특한 문화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무엇보다도 이벤트에는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코너가 있으니 소라와 톳, 표고버섯 등 대마도의 신선한 특산품으로 만드는 이팝나무 도시락을 비롯해 야키토리(닭꼬치), 타코야키 등을 맛보며 축제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기를 바란다.

쓰시마는 6월에 들어서면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수국이 길가를 따라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수국은 강수량 및 토양의 산도에 따라 알록달록 꽃 색깔이 달라져 '살아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불린다. 파스텔 톤의 수국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이 정말 아름답다. 이곳은 평소에도 저 멀리 아득하게 이국(부산)을 조망할 수 있고, 해안 길을 따라 달리는 낭만적인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한 곳이다. 매년 6월 둘째 주 주말에는 수국 축제가 개최되며 해안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수국을 맘껏 즐기며 기분 좋게 산책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제주도 조랑말과 크기가 비슷한 쓰시마 토종 말 다이슈마 승마 체험 등 아이들과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때에도 물론, 동네 사람들이 행사장에 한데 모여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축제장의 뜨거운 열기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오늘날 건강뿐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을 통한 인내의 과정을 맛볼 수 있는 마라톤이 인기가 많다. 국경의 섬 쓰시마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미우다 해수욕장에서 출발하여 정겨운 어촌 마을을 달리며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받아 보는 건 어떨까?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과 응원의 목소리는 완주 후의 기쁨과 더불어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쓰시마의 지형이 평탄하지는 않기에 초보자에게는 다소 어려운 코스일 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나 역시도 3월

■ 6월에 열리는 수국축제





■ 쓰시마의 하얀눈을 만날 수 있는 이팝나무 축제 회장

해운대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처음 참가해 봤는데, 도중에 그만두고도 싶었지만 완주 후의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뻤다. 그때 만난 일본인 선수로부터 쓰시마의 코스는 오르막길도 많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큰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양국의 선수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골인 테이프를 끊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은 분명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의 광고 문구와 같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일상으로의 탈출을 꿈꾸며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최근에는 여행 스타일도 많이 변모하여 본인들의 여행 목적을 확실히 알고 여행 투어 상품보다 더 알뜰하게, 더 알차게 계획하는 여행족들이 늘고 있다. 그들이 여행을 선택할 시에 꼭 한번쯤 찾아보게 되는 것이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이벤트이다. 화려한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한 어촌 마을,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깝고도 먼 이국땅 쓰시마에서 '힐링'을 해보는 건 어떨까?

▶2013년 일정

날짜	축제명	장소
5월 4일(토)	이팝나무 축제	가미쓰시마마치 와니우라(鰐浦)
6월 16일(일)	수국 축제	가미아가타마치 사고(佐護)
7월 7일(일)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가미쓰시마마치 미우다(三宇田) 해수욕장

〈이 외의 행사 정보는 쓰시마 부산사무소 홈페이지 참고〉

■ 7월에 열리는 국경마라톤 IN 쓰시마



니체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2

■ 이동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는 뮌헨 궁정오케스트라의 호른주자였던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의 영향으로 일찍이 음악적 소질을 보였다. 열여덟 살에 뮌헨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과 예술사를 공부함으로써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철학자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쇼펜하우어, 니체의 책들을 즐겨 읽음으로써 우울한 사회상황, 도도한 과학적 실증주의의 흐름,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편협한 아카데미즘, 냉혹한 목적론의 우상화, 서양기독교 세계의 타락 등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슈트라우스는 전적으로 음악에 몰두하기 위해서 1년 만에 대학을 그만두고 이듬해 본격적인 음악활동에 들어갔다. 낭만주의의 경향과 리스트에서 시작된 교향시의 전통을 이어받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외에도 〈맥베스〉, 〈돈 주앙〉, 〈죽음과 변용〉,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돈키호테〉, 〈영웅의 생애〉 등의 교향시를 작곡하였고, 〈가정 교향곡〉, 〈알프스 교향곡〉 등의 교향곡도 작곡하였다.

슈트라우스가 니체철학을 음악으로 만들고자 구상한 것은 그의 나이 스물 여덟살 겨울,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를 여행하며 니체의 책을 읽었을 때이다. 그는 니체의 기독교비판과 독일의 안일하고 경직된 정신분위기에의 비판적인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자세에 감명을 받았다. 특히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는 니체 철학의 핵심이 되는 주제들, '신의 죽음' '초인' '영원회귀' '힘에의 의지' 등이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이 책에 주목하고 작곡을 결심하게 되었다.

슈트라우스는 '차라투스트라' 4부, 총 82개 소제목 중 1부에서 3개, 2~4부에서 2개씩의 주제를 선택하여 모두 9개의 곡을 만들었지만 곡의 순서는 니체의 책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니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정신의 발전과정에다 두고 그것을 9개의 주제로 요약, 나열하였다. 부제에 '프리드리히 니체를 자유롭게 따른'이라고 쓰고 '나는 결코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작품을 음악으로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 발전의 이념을, 여러 단계를 거쳐 초인에 이르는 과정과 사상을 음악으로 표현하려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슈트라우스는 서곡을 시작으로 2곡부터 5곡까지 낙타의 단계(억압과 순종)가 지나면 전환점이자 중심이 되는 6곡을 거쳐 7곡, 8곡의 사자의 단계(자유와 해방), 그리고 마지막 9곡의 어린아이의 단계(자유의 실행)로 정신발달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가고 있다. 그리고 이 9곡의 마지막 종결부는 서곡으로 되돌아간다.

● 제1곡 서곡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서주가 인상적인 곡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아침 동이 트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나가서 외친다. '나는 너희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제2곡 저편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삶의 저편 세계를 상상하고 그것을 진정한 세계로 보는 사람들, 저 세계에 대한 도취적

인 즐거움과 자기 상실에 빠져서 살고 있다. "저편의 또 다른 세계를 꾸며낸 것은 고통과 무능력, (…) 이 피로감이 온갖 신을 꾸며내고 저편의 또 다른 세계를 꾸며낸 것이다."

● 제3곡 위대한 동경에 대하여

현실에서의 체념과 우울함 속에서 희망과 구원을 동경하는 마음은 이미 그 안에 희망과 구원을 품고 있다. "온 바다가 조용해져 너의 동경에 귀 기울이기까지, 격렬한 노래를 불러야 하리라. 동경으로 가득 찬 조용한 바다 위에 황금빛 기적인 조각배가 뜨고 그 황금의 둘레에 온갖 좋고 나쁜 놀라운 사물들이 춤추듯 뛸 때까지."

● 제4곡 희열과 열정에 대하여

선과 덕은 무엇인가? 이들은 세계의 저편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덕은 이 땅에서의 덕이다. "너는 이 열정의 심장부에 너의 최고 목표를 세웠다. 그러자 열정은 너의 덕이 되고 희열이 되었던 것이다."

● 제5곡 무덤의 노래

나는 내 젊은 시절이 묻혀 있는 무덤 앞에 선다. 그리고 내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사랑을 상속한 자요, 너희들의 추억을 위한 야생의 덕이 다채롭게 꽃피어 있는 사랑의 토양이다. 오, 더 없이 사랑스러운 자들이여! 그때 너희들은 추악한 유령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나를 덮쳤다. 아, 행복했던 그 시간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 제6곡 앎과 깨달음에 대하여

'앎'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형성한 공포의 결정체이다.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마술사는 교활하며 음울한 환락으로 사람들을 걸려들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 양심을 가진 자는 마술사의 간계를 꿰뚫어 본다. "공기를! 신선한 공기를 들게 하라! 차라투스트라를 부르라! 그대, 고약한 늙은 마술사여, 그대는 이 동굴을 후덥지근하게 만들고 있으며 독으로 채우고 있다!" "공포, 우리에게는 예외적인 것이다. 오히려 용기와 모험, 미지의 것과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의욕, 내게는 이런 용기가 인류의 역사 전체를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 제7곡 건강을 되찾고 있는 자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가 보아라. 세계가 마치 화원인양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만물이 그대를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 주고자 한다!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그대를 찾아온 것인가. 쓰디쓴, 숨 막힐 듯한 깨달음이?" "오, 차라투스트라여, 노래하라! 그리고 포효하라! 새로운 노래로 그대의 영혼을 치유하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그대의 막중한 운명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 차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짐승들은 그대가 누구이며 누구여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 보라, 그대는 영원회귀를 가르치는 스승이시다. 이제 그것이 그대의 운명인 것이다!"

● 제8곡 춤의 노래

어느 날 저녁 차라투스트라는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거기에는 소녀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이 소녀들의 춤은 어린 신들을 위한 춤도 아니요, 지혜를 얻기 위한 춤도 아니다. 오직 생명을 향한 춤이다. "오, 생명이여, 나는 최근에 너의 눈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는 듯 싶었다." "아, 이제 너는 다시 눈을 뜬다. 오 사랑스런 생명이여! 그리고 나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 속으로 다시 가라앉고 있는 듯싶다."

● 제9곡 몽유병자의 노래

니체는 깨달음에 도달한 자가 자신이 깨달은 바를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암시하고 있다. 동시에 깨달음에 도달한 그를 이웃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를 조롱하거나 비웃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 깨달음을 얻는 자는 몽유병자와 다름없어 보일 것이다.

● 에필로그 - 조짐

'몽유병자의 노래' 다음에 니체는 한 장을 덧붙여 차라투스트라의 최후의 시간을 보여준다. 처음에 차라투스트라가 태양이 솟는 아침 동굴 밖으로 나오듯이, 마지막 장에서도 그 장면이 똑같이 연출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자신을 추종했던 보다 높은 인간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다는 것을 탄식한다. "그들은 아직도 나의 동굴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들의 꿈은 아직 나의 몽유병자의 노래를 들이마시고 있다. 내게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런 귀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가 소리쳤다. "좋다! 사자는 왔으며 내 아이들도 가까이 와 있다." 차라투스트라도 성숙해 졌다. "나의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은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솟아올라라. 너, 위대한 정오여!"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내용이나 이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을 때 반드시 책을 그대로 묘사하려는 것은 아니고 니체의 철학이 나타내는 핵심을 짚으려고 했다. 하지만 어떤 배경이 되었든 이 곡은 듣는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를 떠올릴 때 첫손에 꼽을 만한 명곡임은 확실하다.

작품을 통해서 본 드뷔시의 음악세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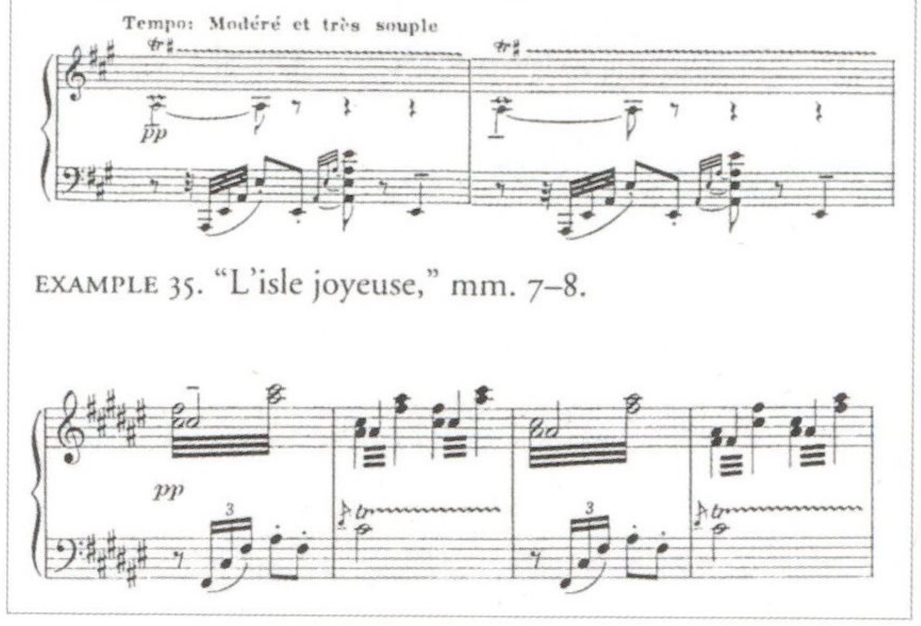
■ 최윤희
피아니스트, 고신대학교 및 동대학원 출강

1889년 파리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도시를 대표하는 에펠탑을 세우게 된다. 기념행사 중 하나로 열린 국제박람회에서 드뷔시는 고대 자바의 타악기 음악인 가멜란을 듣게 된다. 드뷔시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신비로운 동양세계에 현혹된다. 자바 음악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로 된 탑과는 사뭇 상반되는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파리음악원에서는 국제박람회가 열리기 2년 전에 작은 가멜란을 구했으며 아마도 드뷔시는 그것을 연주해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마빛 머리의 소녀(La Fille aux cheveux de lin)'는 5음계의 가멜란 음정을 사용하여 가멜란의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풍부한 화성을 통해 배음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 선율은 높은 성부에 두어 가멜란 음악을 흉내 낸 것이다. 자바 음악의 소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대위법적인 다성부 음악이다. 자바음악의 대위법에 관해 드뷔시는 "팔레스트리나의 음악을 아이들의 놀이로 들리게 한다"고까지 했다.

1903년 작곡된 '판화(Estampes)'의 첫 곡 '탑(Pagodes)'도 가멜란의 영향을 받은 곡이다. 드뷔시의 피아노 음악은 타악기 적이다. 바르톡의 음악이 리듬과 악센트에 강조를 둔 타악기 적인 피아노 음악이라면 드뷔시는 해머가 현을 때리고 난 후의 잔향에 매우 신경을 쓴다. 드뷔시는 5음계와 공을 연주하는 듯한 울림을 사용한다. 가멜란과 피아노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배음이다. 예를 들어 피아노의 C음을 누르면 우리는 C음 이외에 여러 음을 듣게 된다. 그의 전주곡집 2권 'Canope'에서도 배음의 효과와 가멜란 음악의 영향을 볼 수 있다. 이 곡에서 우리는 자바의 지더(zither)와 같은 현악기를 모방한 소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높은 음을 내는 인도나 중국의 악기를 흉내낸 부분도 찾을 수 있으나, 이 곡에서는 서양음악에서 흔히 나타나는 화성의 움직임은 찾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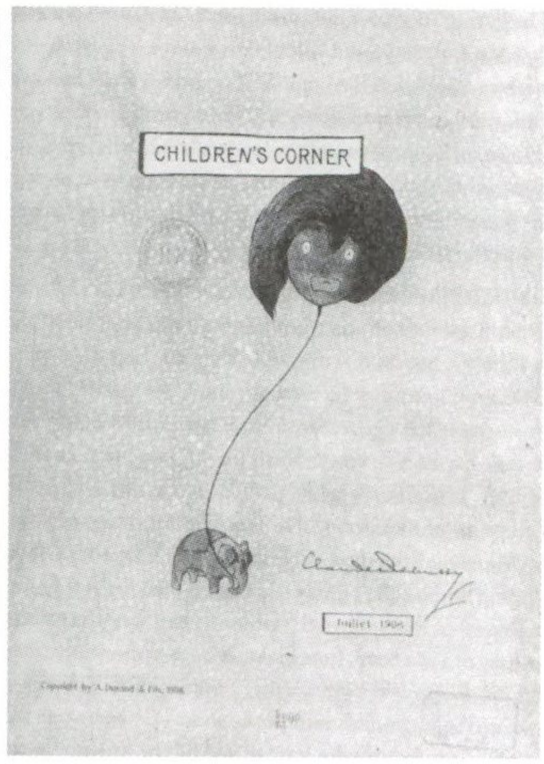
'황폐한 사원에 걸린 달(Et la lune descend sur le temple qui fut)'은 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동양음악의 영향을 받은 곡이라고 피에르 불레즈는 설명했다. 'Canope'와 마찬가지로 화성은 단지 소리의 질감을 형성할 뿐 의미 있는 진행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 곡의 소리는 꿈 속에 있다는 상상을 하게 한다. 사원이 있었던 곳 위로 달이 지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인상주의라기보다는 상징주의에 가깝다. 상징주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가멜란이었고, 드뷔시는 "모든 명명할 수 없는 작은 것들의 의미를 가멜란은 표현해준다"고 했다.

우리는 희극이라 하면 쉽게 재미있는 면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드뷔시의 곡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드뷔시는 이탈리아의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행하던 희극 형식인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희극은 비극을 포함하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던 사실이다. 드뷔시는 "이것은 이탈리안 코미디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비극적인 표현이다"라고 했다. 가면(Masques)에는 환상의 가면 속에 숨



EXAMPLE 35. "L'isle joyeuse," mm. 7–8.

■ 드뷔시와 리스트 곡에 나타난 유사성



■ 어린이의정경 초판 표지



■ 드뷔시가 소유했던 일본 칠기 목판화 '금붕어'

겨진 슬픔이 늘 자리 잡고 있다. 두 박과 세 박의 모호함 그리고 A장조와 A단조 사이의 조성의 모호함이 이 곡의 비극적인 요소를 더욱 살려준다. 1960년 Marguerte Long이 드뷔시의 회고록을 내기 이전에는 Masques가 피아노를 위한 비극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곡의 템포를 너무 빠르게 연주하여 드뷔시의 의도와는 달리 희극적인 연주를 했다.

21세기의 우리는 인상주의라는 표현에 매우 익숙해있다. 그러나 당시 인상주의라는 표현이 얼마나 조롱 섞인 말이었는지 실감하기 힘들다. 1874년 4월 모네, 드가, 시슬리, 피사로, 르느와르를 포함한 29명 예술가들의 전시회가 열흘 후에 Le Charivari라는 풍자 잡지에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기사가 실렸다. 인상주의자들은 교육이 부족하고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묘사되었다. 그들은 혐오스런 존재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이 드뷔시의 교향악곡 '봄(Le Printemps)'에 대한 평가였다. 흔히 인상주의를 생각하면 신비스러운 면을 생각하기 일쑤인데 드뷔시에게 인상주의와 신비로움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고 인상주의는 정확함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오케스트라 곡 '영상(Images)' 둘째 악장 '이베리아(Ibéria)'에서 그는 '사람들과 사물들이 깨어나고, 상인이 휘파람을 불며 수박과 성게를 파는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라고 썼다. 따라서 인상주의는 효과와 방법에 있어서 매우 정확성을 요구하고 있다.

드뷔시는 리스트의 교향시들을 좋아했고 작곡가로서의 리스트를 존경했다. '금붕어(Poisson d'or)'는 드뷔시가 소유했던 일본의 칠기 그림에 의해 영향을 받은 곡으로 기교적인 면에서 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곡이다. 리스트적인 기교를 보이는 또 다른 곡으로는 전주곡집 1권 중의 '서풍이 본 것(Ce qu'a vu le Vent d'Ouest)'이 있다. 드뷔시의 '기쁨의 섬(L'isle joyeuse)'과 리스트의 '에스트가의 분수(Les jeux d'eaux à la Villa d'Este)'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으며 드뷔시가 리스트의 영향을 받았음이 뚜렷이 나타난다.

드뷔시의 딸 슈슈가 두 살 반이었던 1908년에 '어린이 코너(Children's Corner)'를 출판했다. 그리고 몇 해 후에는 어린이 발레 '장난감 상자(La boîte à joujoux)'를 썼다. 제목 Children's Corner를 영어로 쓴 것은 당시 유행하던 영국 스타일의 유아원이 유행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으나 사실상 음악은 모차르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드뷔시는 모차르트를 존경했다. "모차르트가 프랑스인이 아니라니! 참 속상하다. 진정 그는 본받아야 할 의미 있는 작곡가인데"라고 했다. 모차르트는 프랑스 작곡가가 아니었으나 드뷔시는 그를 존경했으며 그 존경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두는데서,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딸 슈슈에게 헌정된 이 곡은 아이들을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어른을 위한 음악이며 어린아이 같은 드뷔시 자신을 표현한 곡이기도 하다.

세기말을 살았던 드뷔시는 그의 어려운 외부환경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극복하였으며 독자적인 자신만의 길을 걷고자 노력한 인물이다. 자칫 애매모호함으로 오해하기 쉬운 드뷔시의 음악은 실은 그의 완벽하고 치밀한 성격의 산물이며 자신에게 솔직하고자 했던 드뷔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세계에 충실했던 드뷔시는 현재 우리에게 근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위대한 작곡가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6월호 부터는 올해 탄생 200주년을 맞아 '바그너'의 음악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채그림 기려원유도(騎驢遠游圖)
지독한 병고 끝에 기운을 찾으니 ①

■ 변광석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788년(정조 12) 가을에 단원은 화원으로 절친한 선배였던 복헌(復軒) 김응환(金應煥;1742~1789)과 함께 정조의 명을 받아 강원도 영동지방 9개 군과 금강산의 절경을 화폭에 담고 왔다. 이들이 여행하며 머무는 고을에선 특별히 접대를 잘 하도록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그만큼 정조는 조선의 문물과 산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데 이미 오래 전이었던 1772년에 김응환은 단원에게 〈금강전도(金剛全圖)〉를 그려준 바 있었으니, 이것이 금강산 그림여행을 함께 다녀올 수 있었던 인연이 되었다. 이 둘의 인연은 이듬해에도 이어졌다. 즉 1789년에 또 어명이 내려져 대마도에 가서 일본지도를 그려 오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김응환이 부산에서 병들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곧바로 단원은 상례를 치르고 혼자 대마도에 가서 일본지도를 그려왔다고 했는데(吳世昌,〈槿域書畵徵〉) 이는 신빙하기 어려운 얘기다. 오세창이 글을 쓰면서 사료를 제대로 검증 비판 없이 그대로 인용해 버린 오류였다. 사실 이 해는 통신사(通信使)가 일본에 방문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산 왜관(倭館)에서 역관(譯官)의 도움으로 대마도를 방문한 기록이나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듬해 1790년 봄에 단원은 중병으로 고생하였다. 강원도 사생, 중국 사행 등 오랜 여정의 노고에다 절친한 사람의 죽음까지 겹쳐 심신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다행히 중병을 이기고 몸을 회복하면서 그린 작품이 바로 〈기려원유도(騎驢遠游圖), 종이담채, 28×78cm, 간송미술관〉이다. 이 해(庚戌) 4월(淸和, 首夏)에 그렸다는 화기가 스승인 표암과 단원 자신의 관지에 나온다. 부채 면(扇紙)에 그린 화면의 내용은 강변 고갯길을 배경으로 선비가 나귀를 타고 휘휘 늘어진 버들가지 아래를 지나는 모습이다. 마침 푸다닥 날아오르는 물새소리에 선비는 고개돌려 무심하게 바라보고 말구종은 말없이 뒤따른다. 한가로운 강변의 적막이 잠시 깨어난 순간이다. 선비와 말구종, 수양버들과 물새우는 강언덕 및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말해주는 제화(題畵)에서 보듯이 필경 문인화풍이다. 모름지기 이는 고요함의 뒤에 활기가 솟는 법을 말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단원이 병고 뒤에 활력을 되찾으려는 자신의 심기가 드러나 있다.



■ 기려원유도(부분)

나귀타고 가는 주인공의 오른쪽에 보이는 제화시는 스승인 표암 강세황(姜世晃)이 직접 단원에게 써준 것이다. 제화의 내용은 이렇다.

사능(士能;김홍도)이 중병에서 새롭게 일어난 즉시 이렇게 잘 그렸으니, 정치하고 세밀한 공부를 알 만하다. 고질병이 깨끗이 나아 기뻐 위안이 되니 바로 앞에서 얼굴을 보는 듯하다. 하물며 필세가 교묘하여 바로 옛사람과 서로 우열을 다투니 더욱 쉽게 얻을 수 없구나. 마땅히 상자에 깊이 보관해야 할 것이다. 경술년 청화절에 표옹 쓰다.(士能 重病新起 乃能作此 精細工夫可知 其



■ 기려원유도(전체)

宿痾快復 喜慰若接顔面 況乎筆勢工妙 直與古人相甲乙 尤不可易得 宜深藏篋笥也 庚戌淸和 豹翁題)

문장과 서화에 뛰어난 표암은 단원의 그림에 감탄하며 위와 같이 칭찬했다. 이어서 화면 왼쪽에 전서체로 제발을 남긴 사람은 경산(京山) 이한진(李漢鎭;1732~1815)이다. 서예가 이한진은 전서학(篆書學)에 뛰어났으며 음악에도 통하여 그의 퉁소 연주실력은 실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1731~1783)의 거문고와 라이벌이었다고 한다. 원래 문장과 시부는 선비들이 즐겨하는 글쓰기였지만 당시 실학자나 중인들은 여기에다 음악을 실용의 도구로써 함께 했다. 음악을 예(禮)로써 사용한 왕실과 달리 양반이나 중서인들에게는 당시 하나의 풍류이자 트렌드로서의 그들의 음악을 즐겼다. 그래서 어디서나 다양한 장르의 연주가 이루어지는 문화의 공간을 연출했다. 한 번은 유춘오(留春塢)라는 담헌의 별장에서 연주 한 판이 벌어졌다. 특히 담헌은 거문고와 가야금 연주에 뛰어났다고 한다. 그 때의 기록이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1732~1809)의 문집에 나온다.

담헌 홍대용은 가야금을 펼치고, 성경(聖景) 홍경성(洪景性)은 거문고를 붙잡고, 경산 이한진은 소매속의 퉁소를 꺼내고, 김억(金檍)은 서양금을 손에 들고, 장악원 악공 보안(普安)은 국수(國手)로서 생황을 불었으니 담헌의 유춘오에서 모였다. 성습(聖習) 유학중(兪學中)은 노래로 분위기를 잡았다. 교교(嘐嘐) 김용겸(金用謙)이 연장자로서 상석에 올랐다. 맛있는 술로 약간 취하자 중악(衆樂)이 서로 연주되었다…(〈청성집〉권6, 記留春塢樂會)

노래가 흘러 나오고 좌중의 사람들은 술이 얼큰해지자 즉석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청성은 그 모임에 참석했던 태화(太和) 홍원섭(洪元燮)의 얘기를 듣고 이 기록을 썼다. 청성은 고문(古文)에도 능하여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서얼의 신분적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였고, 홍대용·박지원·박제가 등과도 깊이 교유했다. 위 기록은 홍대용 등 실학자, 장악원 악공, 이한진 등 중인들이 함께 어울려 즉석 연주도 하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른바 양반, 중인 및 악공까지 신분의 고하를 초월하여 공연한 그야말로 열린음악회였다. 그렇다고 대중음악이라고 하기는 곤란하지만 마인드가 열린 풍류음악의 문화였다. 그것은 아무래도 18세기가 한양 도성 안팎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영조·정조는 백성들을 위한 열린 대민정책을 펴는 분위기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사실 단원도 음악에 대한 감성이 뛰어났음은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다.(〈예술에의 초대〉2011년 4월호) 1784년 가을 경상감사 이병모(李秉模;1742~1806) 영감이 흥해군수였던 성대중을 비롯해 인근 현감들과 안기찰방 김홍도를 불러 경개좋은 청량산에서 풍류모임을 한 적이 있었다. 그 날 단원은 퉁소를 불어 신선이라는 극찬까지 받았을 정도로 한가락 하는 실력이었다. 물론 거문고나 비파도 그의 손을 늘 떠나지 않았다.

끝으로 화면 맨 왼쪽에는 단원이 남송(南宋) 육유(陸游;1125~1210)의 시를 제화로 써놓고는 지독한 병고를 치르고 나서 겨우 기운을 회복한 뒤에 자신의 마음을 실어 놓았다.

(다음 호에 계속)

■ 골목갤러리

골목길 구비구비 이야기를 찾아 나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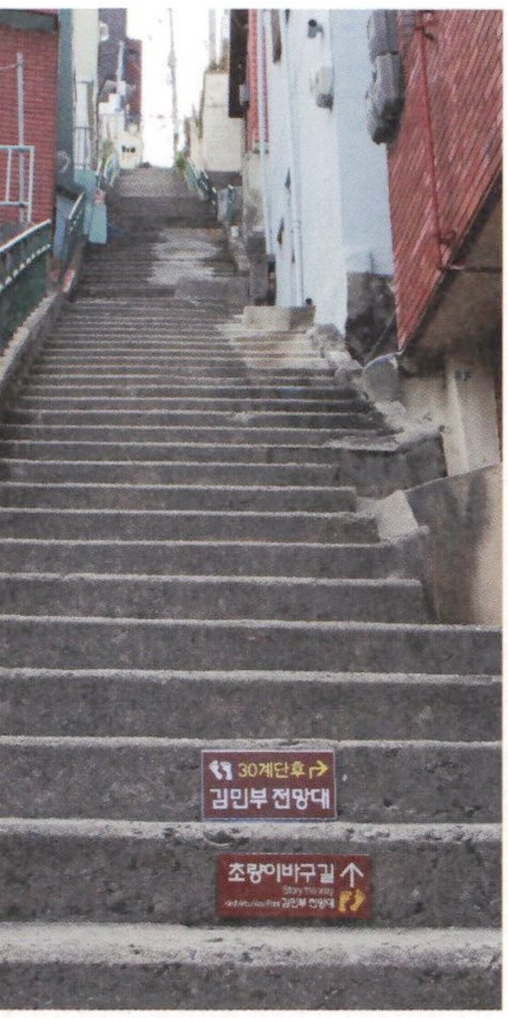
이바구길



■ 김민부전망대

임시수도 부산의 애환이 서려있는 산복도로.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면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산복도로에는 여느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산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있다. 최근 들어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여행'이 인기를 끌면서 산복도로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부산의 산토리니'로 유명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에 이어 부산의 또다른 산복도로 명소가 탄생했는데, 그 곳이 바로 동구의 '이바구길'이다. '이야기'를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이바구'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이바구길'은 부산역 맞은편 옛 백제병원을 시작으로 초량동 산복도로인 망양로 변에 들어선 '이바구공작소'까지 총 1.5km에 이르는 구간이다. 그 이름 그대로 부산의 근대현사를 통과해온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길을 따라 구비



■ 186계단

구비 서려있다.

'이바구길'의 출발지는 1922년 한국인 의사 최용해가 세운 부산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인 백제병원 옛 건물이다. 이 건물 바로 옆에는 부산 최초, 최고(最古)의 물류창고인 남선창고 터가 자리하고 있다. 초량 앞바다가 매립되기 전인 1900년에 세워진 남선창고는 함경도에서 물건을 가져온다 하여 북선창고, 또는 명태를 보관했다고 해서 일명 명태고방으로 불리었는데, 지금은 헐려서 그 터와 표지판만이 세월의 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골목길 투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산복도로의 풍경과 시를 전시해놓은 담장갤러리를 따라가다 보면 초량초등학교와 부산지역 최초의 교회인 초량교회를 만날 수 있다. 특히 1937년 개교한 77년 전통의 초량초등학교는 가수 나훈아와 개그맨 이경규, 음악감독 박칼린, 연극연출가 이윤택, 만화가 박재동 등을 배출한 학교로도 유명하다. 이번에는 초량초등학교와 초량교회 사이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들어선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골목갤러리'. 학교 담장벽을 따라 초량동의 옛 풍경과 역사, 동구가 배출한 유명인사, 그리고 동구의 현재와 미래 등이 소개되어 있다.

골목갤러리가 끝나는 즈음, 바람도 울고간다는 168계단이 기다린다. 폭이 좁은데다 경사까지 심한 168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얼마 못가 김민부 전망대를 만날 수 있다. 동구 출신의 천재시인으로 15세 때 신춘문예로 등단해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시인 김민부는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로 시작되는 가곡 '기다리는 마음'의 작사가로 유명하다. 작은 카페테리아가 들어서 있어 지친 걸음을 쉬어갈 수 있는 김민부 전망대는 부산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탁트인 전망을 자랑한다.

잠시 땀을 식혔다면 다시 남은 계단을 올라가보자. 이바구길의 대표적인 명소인 '이바구 공작소'가 기다린다. 지난 3월 6일 문을 연 이바구 공작소는 근현대사의 질곡을 안고 있는 산복도로 이야기를 수집하고 담아내는 곳으로, 특히 지역 어르신들이 스토리텔러로 이곳에 상주하면서 이바구 공작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실제 삶에서 우러나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밖에도 이바구 공작소 인근에는 '한국의 슈바이쳐' 성산 장기려 박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더 나눔'과 산복도로 종합체험센터 '까꼬막'이 자리하고 있다. 장기려 박사의 나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문을 연 '더 나눔'에서는 무료 건강검진과 각종 건강 및 문화강좌가 열리고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산비탈'을 의미하는 '까꼬막'은 이바구길 관광안내소로, 산복도로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복도로가 담고 있는 역사성과 독특한 공간성이 알려지면서 '이바구길'을 찾는 관광객 수는 하루 수백명에 달한다. '이바구길'은 최근 다녀간 관람객들의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골목길 투어'의 명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산복도로 종합체험센터 까꼬막



■ 장기려 박사를 기념하는 기념관 더나눔



■ 산복도로 문화공간 이바구공작소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
부산통기타사랑모임 통키타운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의 쉼터 '통키타운'은 음악을 좋아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통기타 동호회이다. 다양한 악기군의 동호회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통기타는 쉽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대중적인 악기라는 장점 때문에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부산통기타사랑모임 통키타운은 2009년 김명진(닉네임 지니지니) 씨와 이준달(닉네님 온달) 씨가 통기타와 함께 한 젊은 날의 꿈을 다시 찾기 위해 온라인 카페를 만들면서 출발했다.

"중학교 때는 주변에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통기타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통기타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통기타를 인연으로 군대에서 밴드 활동을 했던 것도 잊을 수 없네요. 그런 추억 때문에 뒤늦게 부산통기타리스트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통키타운으로 이어졌죠."

동호회 차원에서 강습반과 소모임을 운영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키타운은 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5천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며 착실하게 성장해왔다.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정규회원들은 100여 명 정도. 소방관에서부터 디자이너, 캐리커처 작가, 선박기계 설계사 등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지만 통기타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소문난 통키타 실력으로 직장 내 인기가 많다는 게 통키타운의 자랑.

통기타운 결성 당시 바쁜 직장 생활과 동호회 활동을 병행하던 김명진 씨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초급자들을 위한 강습반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김명진 씨는 강습반 지도로 쌓은 노하우가 입소문이 나면서 문화센터의 요청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기타 강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명진 씨와 함께 8주과정의 강습반을 마친 수강생들은 강습기간 만료 후 50% 정도가 동호회 회원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도 한다. 지난 4월까지 20기의 강습반이 수업을 마치고 즐거운 통키타의 세계에 입문했다.

통키타운은 운영진들의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정해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통키타운의 첫 강습생으로 통키타운과 인연을 맺는 김대홍 씨가 신임 회장을 맡고 있고 김대홍을 비롯한 8명의 회원들이 총무와 회원관리, 장비 시설, 리허설 공연 등 각 분야에 역할을 맡아 동키타운을 이끌어가고 있다.

통키타운은 회원들의 회비로 양정2동에 25평 규모의 보금자리를 마련, 오프라인 정모를 비롯해 통키타운 회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연습실, 강습반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습이 열리는 일요일 오전을 제외하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별도의 소모임을 갖는다. 화요일 소모임은 회장 김대홍 씨의 주도하에 통기타 곡을 배우고, 금요일 소모임은 김명진 씨의 지도로 통기타를 비롯한 대중음악의 전반적인 이론을 익히고 있다. 정기모임은 월 1회 갖는다.

이런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통키타운은 금정산성 음악회, 서면 산울림 라이브카페 등에서 자체 공연은 물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지역 노인정, 노인요양병원의 공연 요청으로 봉사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요즘 통키타운은 5월 19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결성 이래 처음으로 첫 정기공연을 계획으로 연습에 열심이다. 리허설, 공연담당을 맡고 있는 장영준, 이학민 씨는 성공적인 첫 정기공연을 위해 연습, 리허설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연주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지난 3달 공연 준비에 매달린 통키타운 회원들의 공연은 일상, 또 다른 즐거움을 찾는이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문의_ 통키타운(http://cafe.naver.com/tongkytown)





■ 통키타운은 강습반과 소모임을 운영하며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5천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며 착실하게 성장해왔다

음악을 통해 한 인간 브루크너를 만나다

부산시립교향악단 489회 정기연주회

■ 박진홍_ 음악평론가

4월 9일 저녁, 지천을 흐드러지게 꽃눈으로 수놓던 벚꽃 잎들도 떨어졌지만 차가운 바람은 사람들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있었다. 이날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브루크너 심포니 9〉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의 489회 정기연주가 열렸다.

전반부는 중국의 신예 피아니스트 슈에 사오츄의 협연으로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연주되었다. 작곡된 지 150여 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연주자들과 애호가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피아노의 명작 중의 명작이다.

혹자는 이 작품 속에 내재된 주제를 '향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날 슈에 사오츄의 연주는 이 주제에 대해 깊은 공감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색채감과 경쾌한 리듬, 벨벳의 느낌과 같은 부드러움이 담긴 슈에 사오츄의 연주는 2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히 정상급의 연주자임을 인정케 하는 것이었다. 특히, 필자는 중반부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발하는 솔로 이후 부드럽게 급격히 변화시켜가는 프레이즈의 운영에 숨이 멎을 것 같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협주곡의 기본적인 골격인 오케스트라와의 역할 구현에서도 음악적 밸런스를 유연하게 맞추어 가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다만 작품의 도입부에서 부드럽고 풍부한 오케스트라 선율에 대비되는 보다 강렬한 피아노의 타건을 통한 감정 표현이 다소 약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차이코프스키의 연주에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진 현악기군의 연주와 무대 전체의 사운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입체적인 음색을 보여준 관악기들로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후반부는 이날의 메인 연주인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이 연주되었다. 연주 전 음향반사판에는 브루크너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마에스트로 리신차오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삶은 고되다. 이 음악 속에는 삶 속에서 투쟁하는 한 인간 브루크너를 만날 수 있다. 음악을 감상하며 그 무엇도 떠 올리지 말기를. 자연스레 인간 브루크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1악장의 연주에서 제시부에서부터 시종일관 리신차오는 신이 부여한 대로 운명을 거스르지 않는 한 사람을 표현하듯 간결하고 절제된 바통의 움직임을 보여 주었다. 마치 삶이라는 거대한 기계속의 톱니바퀴가 된 것 같은 모습이었다.

마에스트로의 연주와 함께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길을 구하는 자, 초월적인 존재를 갈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다가 왔다. 현악기들의 일체감과 관악기들의 두터운 볼륨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고뇌하며 번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무거우면서도 깊이 있게 표현했다. 2nd 바이올린과 첼로의 연주 위치의 바꿈은 선명한 바이올린의 음색과 풍부한 현악기군의 소리를 효과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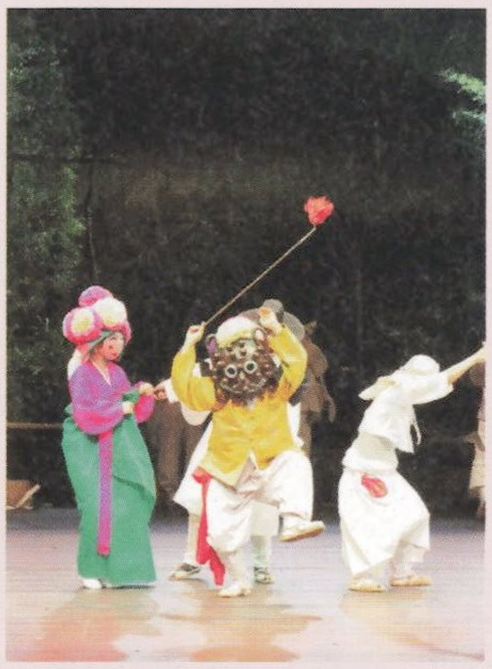
브루크너의 9번 교향곡은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미완성 작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을 이 작품에 매달렸던 브루크너이지만 결국, 마지막 악장을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했다. 이날 연주는 어려운 삶 속에서 음악에 정진했던 브루크너의 삶의 일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리신차오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그런 브루크너의 음악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일깨우고,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낮춤으로써 이겨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특히 3악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응축되었는데, 마지막 피아니시모는 그렇게 고요 속으로 사라져 갔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잔향들, 음악에 비친 브루크너의 모습을 좀더 오래도록 마음속에 잡아 두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 날 연주는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는 브루크너의 마지막을 본 것 같은 아련함과 짙은 감동이 한 동안 남아 있는 연주였다.

부산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 그리고 보편적인 것

■ 김남석_ 부경대학교 교수, 연극평론가



■ 국악뮤지컬 '자갈치아리랑'의 한장면

서연호 작, 강성우 연출, 이준호 작곡의 〈자갈치 아리랑〉은 국악뮤지컬의 양식적 실험의 도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작품으로 판단된다. 부산국립국악원은 2011년 12월(4일)에 이 작품을 초연했고, 이후 국내 여러 곳에서 순회공연을 치루면서 국악뮤지컬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2013년 4월(17~18일) 이 작품을 다시 국립부산국악원 무대에 올렸다. 80여 명의 단원이 총출연하여 오케스트라와 무용단의 뛰어난 앙상블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일차적 의의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 작품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이 작품이 근간으로 삼고 있는 로컬리티(locality)와 이를 무대극으로 실현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이다. 〈자갈치 아리랑〉은 조선 말기 자갈치 시장의 끈끈한 생명력을 구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작품으로, '동백'으로 대표되는 '자갈치 아지매'가 집나간 탕자인 남편을 기다리면서 집안을 건사하고 자식을 키워내는 힘을 형상화하고 있다.

동백의 힘은 부산이 지닌 놀라운 생명력에 비견될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지역 정서와 환경 특징)을 활용하여 이 생명력을 창조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이 생명력은 지역적인 것에서 출발했지만,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폭넓게 담보했기 때문에, 로컬리티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 작품은 '부산적인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 작품에 삽입된 동래야류의 '문둥이 춤'과 수영야류의 '영감할미 과장'은 탕아가 된 남편과 그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환을 드러내는 데에 적절한 표현 방식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부산적인 것'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부산의 역동성이 가미되어, 궁극적으로는 '한국적인 것'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뮤지컬은 기본적으로 악가무의 요소를 중시하기 때문에, 장면 전개와 서사 속도가 지연되는 특징을 지닌다. 관객들은 음악극을 통해 서사의 전개를 지켜보기보다는, 서사를 뒷받침하는 노래와 춤을 구경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요 표현 수단이 말이 아니라, 음악과 춤과 노래가 되면서 보다 다채로운 관극 요소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자갈치 아리랑〉은 이러한 관극 요소를 부산적인 내용과 요소로 채우면서도 보편적인 관극의 요소로 정당하게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걸음 접근한 답안을 내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답은 부산 여인의 생명력과 부산 춤의 역동성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부산적인 것'이 더욱 개발되어 이 작품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근원적인 요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이러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부산적인 것은 한국적인 것을 넘어, 세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으로 확대 심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복사꽃 향기 가득한 청도 봄 여행

■도주관



■청도복숭아시험장 입구



때 아닌 강한 바람에 흐드러지게 피었던 봄꽃도 움츠렸던 지난 4월 12일, 4월 테마여행의 행운을 안은 정기회원 가족들로 부산문화회관 주차장이 아침부터 생기가 넘친다. 4월의 테마여행지는 복사꽃 향기 가득한 '맑은 도시([淸道)' 청도. 특히 이번 테마여행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정주아, 박재현, 송다솔 씨가 회원가족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한시간을 달려 도착한 청도는 막 피기 시작한 복사꽃들로 봄날의 흥취가 가득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겨울철 자연상태의 얼음을 보관했던 석빙고. 석빙고 앞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문화유산해설사가 정기회원 가족들을 반갑게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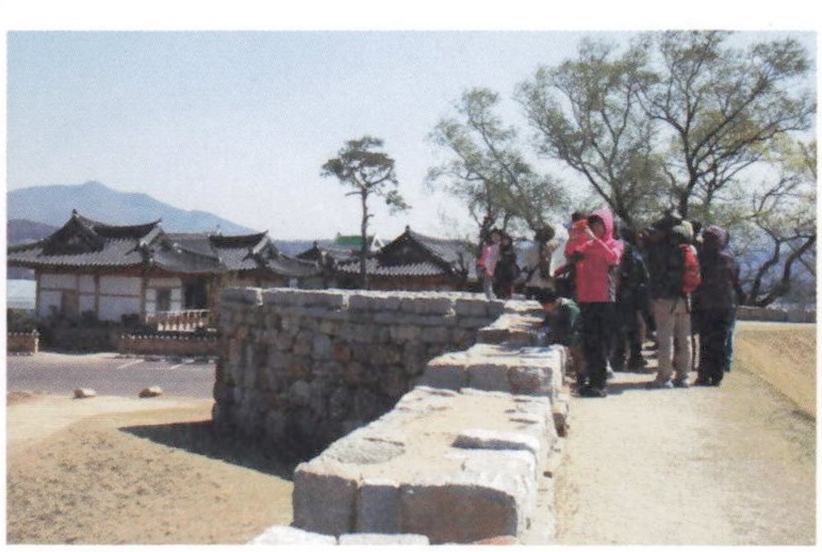
숙종 39년(1713년)에 축조된 청도 석빙고는 경주, 안동, 창녕, 현풍, 달성 등 현재 남아 있는 6개의 석빙고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빙고이다. 특히 다른 지역의 석빙고와는 달리 봉토가 모두 유실되어 홍예만 남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서 석빙고 내부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 곳 석빙고에는 3가지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우선 절묘한 천장 구조인데요, 아치형의 천장 사이에 만들어진 움푹 들어간 빈 공간이 일종의 에어포켓 역할을 하면서 내부의 더운 공기를 빼내구요, 이렇게 모여진 더운 공기는 천장에 뚫린 환풍구를 통해 밖으로 유출시킵니다. 거기에 얼음에 치명적인 물과 습기는 석빙고 바닥을 경사지게 만들어 빠르게 배수되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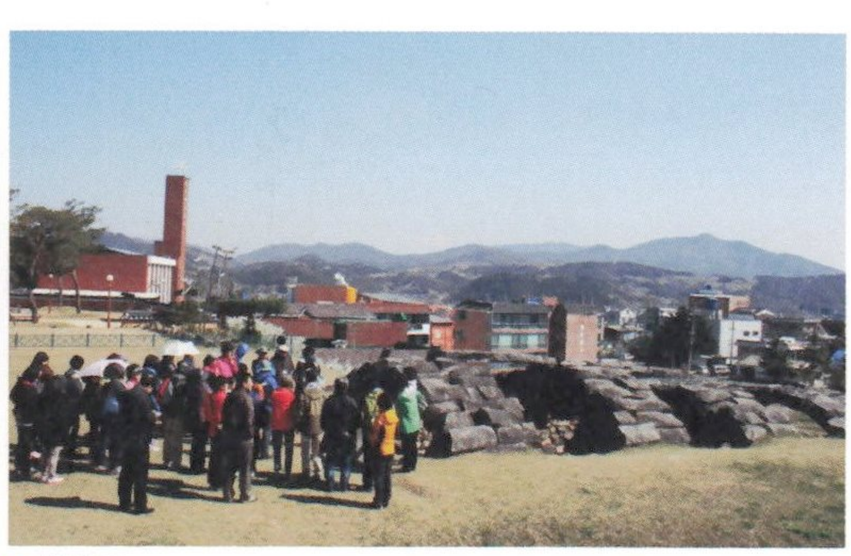
지금의 과학적 기술로도 손색이 없는 조상의 슬기에 회원들의 감탄이 절로 나온다. 석빙고를 둘러본 후에는 인근에 자리한 청도읍성과 도주관, 동헌, 그리고 청도향교 등 청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며 청도의 과거를 느껴보았다. 도주(道州)는 고려시대에 부른 청도군의 또다른 이름으로, '도주관(道州館)'은 조선시대 청도군 객사로 쓰이던 장소이다.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앞서 청도읍성 입구에 자리한 전통찻집 '꽃자리'에 잠시 들렀다. 400여종의 꽃들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풍광에 카메라 셔터 누르는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맑고 개운한 맛으로 유명한 청도 추어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회원가족들은 우리나라 유일의 복숭아 전문연구기관인 '청도복숭아시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체 3만여평 부지에 400여종이 넘



■청도읍성



■석빙고



■ 1. 청도향교
2.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열린 국악관현악단의 작은음악회
3. 청도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철가방공연장





는 복숭아 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청도복숭아 시험장은 복숭아의 새로운 품종육성과 재배법 개선, 병해충 방제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입구부터 회원들을 반기는 화사한 복사꽃에 회원들의 마음이 설렌다. 평소에는 일반인들의 방문이 제한되어 있지만 마침 방문한 날이 '복숭아 시험장 개방의 날' 첫 날이라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복사꽃 개화가 조금 늦어지면서 활짝 핀 복사꽃은 볼 수 없었지만 금방이라도 터질듯한 꽃망울에 '무릉도원'을 상상하며 오랜만의 봄나들이 여유를 즐겨본다.

청도복숭아시험장에서 준비한 차(茶)와 다식도 맛보며, 복사꽃 물들인 손수건을 만드는 사이 시험장 한켠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연주회 무대가 마련됐다. 따사로운 봄 햇살아래 단원 정주아(피리), 박재현(타악), 송다솔(거문고) 씨가 빚어내는 흥겨운 국악앙상블 선율이 시험장을 가득 채운다. 우연히 이 곳을 찾았던 시민들까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열정적인 연주에 큰 박수를 보낸다.

청도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개그맨 전유성 씨가 운영하는 코미디전용관 '철가방극장'. 청도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철가방극장'은 코미디언 지망생들을 위한 코미디사관학교로,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매일 공연이 열리고 있다. 철가방극장 단원들이 펼치는 쉴새없는 콩트에 연신 웃다보니 금방 한시간이 지나간다.

공연관람을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만개한 복사꽃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청도 봄나들이는 정기회원 가족들의 가슴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6월에는 경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 또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정기회원 본인을 포함해 2인이 부산시립예술단과 여행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엽서 부산문화회관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테마여행게시판
마감 5월 15일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4)

▶5월 당첨자

●엽서신청자

권호경(부산진구 당감2동)
김경희(부산진구 연지동)
김미영(서구 토성동)
김은경(남구 대연4동)
김태진(연제구 연산5동)
이선옥(남구 대연5동)
이재율(사상구 주례3동)
최옥선(부산진구 가야동)
최지윤(양산시 물금읍)
최형화(금정구 장전동)

●신규가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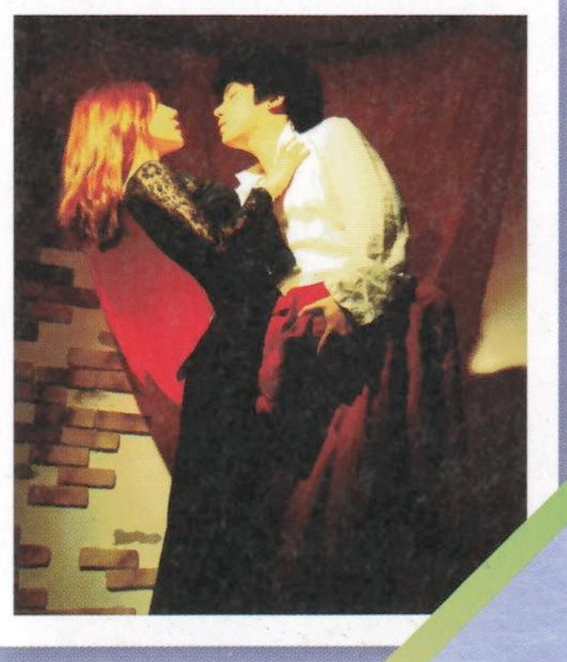
김미숙(연제구 거제1동)
김민희(남구 대연3동)
김선옥(남구 감만동)
김용환(금정구 구서동)
박종길(해운대구 중동)
오일석(북구 화명3동)
이영재(금정구 부곡3동)
이재훈(서구 서대신동2가)
허정애(남구 용호1동)
황미희(남구 용당동)

Culture Life

38 Program Guide 부산문화회관
46 Program Guide 기타공연장
58 New Music
59 New Book
60 Special Movie
61 Special Event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소향아트센터 | 1544-1555
수아트홀 | 744-1415
솜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2013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5월 3일-4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부산국제연극제 10주년을 기념해 관객에게 사랑받았던 작품으로 다시 만나는 개막작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2008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최고작품상', 스페인 세비야 치크라나 연극 페스티벌 '최우수 관객 인기상', 2009년 독일 모어스 국제 코미디 공연 페스티벌 '코미디상', 스페인 톨레도 Teatro Rojas 페스티벌 '최고음악극상', 2009년 부산국제연극제 전회, 전석 매진에 빛나는 '파가니니'는 스페인 신체 코미디극 극단 YLLANA Production이 심각하고 엄숙하기만 한 클래식 콘서트의 틀을 깨고, 재치 있는 유머와 감성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음악 메들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한국 가족극 극단 하땅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2:00,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제17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최고인기상, 특별부문상 수상, 2009년 김천전국가족연극제 대상, 무대미술상 수상을 수상한 극단 하땅세의 화제작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70센티미터 정도의 평범한 어항을 무대로 구성한 이 작품은 카메라를 통해 무대 뒤의 커다란 스크린에 확대하는 기법을 동원, 배우와 인형, 영상이 어우러져 관객들은 마치 우물가에 있는 듯, 개구리 왕자와 실감나는 우물 속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부산연극제 대상수상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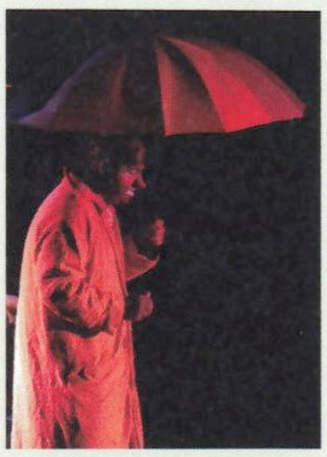
5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8: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부산국제연극제를 통해 다시 만나는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여자연기상 수상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운악'.
현진건의 소설 '운수좋은 날'을 새로운 시선으로 각색한 '운악'은 행운과 불행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간사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가장 불운한 사나이 김첨지와 운명의 한판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 연출/윤우진 · 작가/양효윤
· 출연/이혁우, 박찬영, 진선미, 양성우, 박지현, 김민지, 유하나, 이동욱, 김상현 외

►스페인 극단 Toti Toronell 'NA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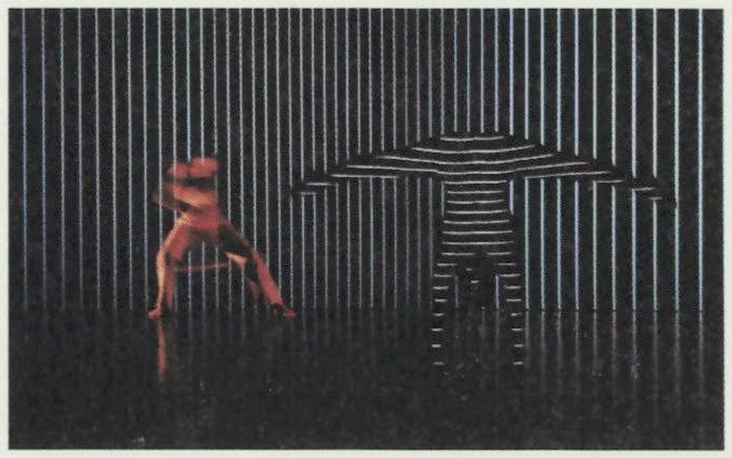
5월 7일-8일 화-수요일 오후 8: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위트 넘치는 연기와 함께 펼쳐지는 음악, 애니메이션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순수한 웃음을 선사하는 스페인 극단 Toti Toronell 'NAIF'.
2009년 만들어진 프로젝트 공연 〈NAIF〉는 독특하면서 순수한 감성을 가진 광대를 그린 작품으로 2011년 한국 피지컬 씨어터 페스티벌 초청, 스페인 카탈로니아 Figueratarrega 페스티벌 초청, 핀란드 Imatra 제8회 국제 B&W Theatre 페스티벌 초청, 2013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Kulturborse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유럽 및 아시아 전역에서 공연을 펼쳤다.

►오스트리아 Klaus Obermaier 폐막작 '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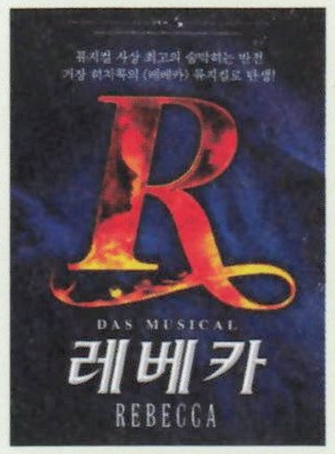
5월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714-6920)



2013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으로 국내에 첫 공개되는 '유령'은 '모든 아름다움이 설치 된 마술적인 여행 그 자체다(프랑스 Le Monde)', '정확하고도, 활기찬 무대와 기계의 결합은 폭풍과도 같은 박수를 불렀다(미국 The New York Times)', '아직도 예측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는 마법은 존재한다(영국 The Guardian)' 등 수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라이브 공연과 사운드가 프로그램으로 투영되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동원한 '유령'은 수준 높은 무대 기술을 통해 디지털 시대, 관객에게 새로운 공연 예술의 볼거리를 선사한다.

뮤지컬 레베카 (Musical Rebecca)

5월 11일-12일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2:00, 6: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S석 8만원 ·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인터파크(1544-1555)



'엘리자벳', '모차르트!'의 미하엘 쿤체, 실베스터 르베이에 의해 뮤지컬로 재창조된 히치콕의 명작 '레베카' 부산무대.
뮤지컬 '레베카'는 사고로 죽은 전 부인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 드 윈터와 죽은 레베카를 숭배하며 맨덜리 저택을 지배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 사랑하는 막심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 댄버스 부인과 맞서는 '나(I)'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전개된다.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초연된 뮤지컬 '레베카'는 '원작을 뛰어넘는 뮤지컬의 탄생', '할리우드 대작 영화를 잘라 무대 위에 올려놓은 듯한 화려한 무대'라는 호평과 함께 3년 동안 전 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 원작/대프니 듀 모리에 · 대본, 가사/미하엘 쿤체
· 음악/실베스터 르베이 · 프로듀서/엄홍현
· 연출/로버트 요한슨 · 음악감독/김문정

출연

류정한, 오만석, 옥주현, 신영숙, 임혜영. 김보경, 최민철, 이경미, 최나래, 이정화, 박완, 강민욱, 곽동욱 외

●●●

임효진, 최민경 피아노 듀오 콘서트

5월 13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최민경(010-9496-2687)



피아니스트 임효진 피아니스트 최민경

부산예술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동문으로 음악적 교류를 가져온 피아니스트 임효진과 최민경이 들려주는 듀오 콘서트 '투피아노의 세계를 향하여 네번째 이야기'.

피아니스트 최민경은 로렌쪼 페로지 국제 음악콩쿠르 실내악 부문 1위를, 임효진은 이태리 Morcone 국제 피아노 콩쿠르 2위를 수상하고 귀국,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미요/스카라무슈
쇼스타코비치/콘체르티노
브리튼/서주와 부를레스크풍 론도 등 수곡

멜로매니아 제19회 정기연주회 '바다사랑'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멜로매니아(010-8543-9378)



1994년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남성성악가들로 출발한 멜로매니아의 제19회 정기연주회.

클래식 음악의 보급, 회원들의 실력증진을 위해 창단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온 멜로매니아는 그동안 회갑을 맞는 회원의 독창회, 2010년 서울 멜로매니아의 창단 지원 및 교류 공연, 2012년 부산 여성멜로매니아 창단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김노현/황혼의 노래
헨델/오페라 '리날도' 중 '나를 울게 하소서'
조두남/뱃노래, 그리움
김동진/신아리랑
쿠르티스/돌아오라 쏘렌토로 등 수곡

· 출연/테너 오거돈, 바리톤 한성권, 테너 정량부, 바리톤 민정식, 테너 원요한, 바리톤 김성홍, 테너 윤치연
· 트레이너/박광하 · 피아노/정은희

●●●

2013 부산콘서트콰이어 특별연주회
부산콘서트콰이어 사랑의 음악회 '그리움'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우리아트(010-5555-3825)



故 김석형

지역주민과 불우이웃들에게 노래로 사랑을 전하는 부산콘서트콰이어의 2013년 특별연주회.

부산문화를 위해 열정을 바친 故 김석형을 추모하기 위한 이번 무대는 불우 이웃들을 함께 초청, 노래를 통해 사랑을 전한다.

▶프로그램

최석태/그리움
모차르트/레퀴엠 중 'Lacrimosa'
그리스 가곡/기차는 8시에 떠나고 등 수곡

· 지휘/전상철 · 반주/고지혜
· 출연/테너 장원상, 테너 김동윤, 베이스 최상재,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

거문고 연구회 '부산 동보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전통과 만나다-맥(脈)

5월 14일 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명수(010-3130-1353)

거문고 음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동보악회 부산지회 4인의 거문고 연주자가 들려주는 제4회 정기연주회.

'전통과 만나다 – 맥(脈)'이라는 주제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네 삶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음악의 맥을 거문고를 통해 들려주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춤과 노래와 함께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처용무, 고려가요 '정석가 · 사모곡'
가곡/언락 · 편락
정대석/고구려의 여운

· 연주/이대하, 박하혜, 오상훈, 전현진(이상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부산시립합창단의 가요합창음악회
아홉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2만원 · 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매년 호평을 받아온 부산시립합창단의 콘서트형 프로그램 가요합창음악회 아홉 번째 이야기 'Concert Red, Green, Blue'.

'Concert Red, Green, Blue' 타이틀에 맞추어 Red의



'정열'을, Green의 '슬픔'을, Blue의 '꿈'을 담은 감각적인 노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수석지휘자 오세종 지휘, 가수 윤형주의 협연으로 각각의 무대를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야기로 구성, 부산시립합창단의 특별한 화음으로 노래한다.

부산시립합창단과 첫 만남을 갖는 가수 윤형주는 웨딩케익, 하얀 손수건, 바보, 우리들의 이야기, 어제 내린 비, 두개의 작은 별 등 30여곡의 히트곡과 복음성가를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프로그램

Red(정열)/저 꽃 속에 찬란한 빛이(박경희 곡), 어젯밤 이야기(소방차 곡), Besame Mucho(베사메 무쵸),고래사냥(송창식 곡)

Green(슬픔)/내 마음 갈 곳을 잃어(최백호 곡), 영 영(나훈아 곡), 이별이래(유열 곡), 가을을 남기고간 사랑(패티김 곡)

Blue(꿈)/그 겨울의 찻집(조용필 곡), 이 밤을 다시 한 번(조하문 곡), 사랑노래모음(안현순 편)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사회/이미연(전 SBS 리포터) · 협연/윤형주(가수)
· 특별출연/조미혜(부산카머심포니 악장), 김진훈(드럼), 김정태(기타)
· 편곡/최석태, 문지은, 김양희

2013 김복선 발레 공연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신지연(010-8554-1452)

대한민국무용제 대상, 서울무용제 안무상을 수상하고 동아대학교 교수로 발레 대중화에 힘써온 김복선 교수와 동아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 재학생들이 함께 펼치는 2013 김복선 발레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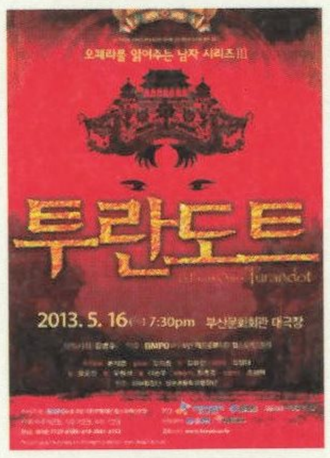
▶프로그램

'잠자는 숲속의 공주' 중 'pas de six(6인무)'(안무/Marius Petipa · 재구성/김복선)
'백조의 호수' 중 3막, 흑조 Grand pas de deux(안무/Marius Petipa)
봄이 오면(안무/장선희 · 음악/김윤아)
Union Jack(안무/George Balanchine · 재안무/김복선)
투스텝으로, 불빛 속으로(안무/장선희 · 음악/브람스 헝가리 무곡)
This is your life 중 '사랑의 2인무'(안무/허용순)
카르멘(안무/장선희 · 음악/비제 오페라 카르멘 중)

· 특별출연/황혜민, 엄재용(유니버설발레단 수석)
· 출연/김강민, 김명윤, 김민경, 김선교, 김수정, 김환희, 백가람, 양지원, 윤세희, 이보라, 이은, 이현정, 장예진, 정성복, 조종희, 추아민 외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투란도트'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1만원
문 의 |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부산메트로폴리탄 팝스오케스트라 김병수 지휘자의 해설로 오페라를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 세 번째 무대 '투란도트'.

전설 시대 중국을 배경으로 한 '투란도트'는 1926년에 초연된 푸치니의 유작이다. 푸치니는 '투란도트'에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음악 형식에 도전했지만, 후두암 수술 후유증으로 류가 죽는 부분까지만 작곡을 한 뒤 세상을 떠났고, 류의 희생을 딛고 칼라프가 투란도트의 사랑을 얻게 되는 해피엔딩은 푸치니의 절친한 친구였던 지휘자 토스카니니의 감독 하에 푸치니의 제자 프랑코 알파노가 완성했다.

· 출연/투란도트 윤지영, 칼라프 김지호, 류 김유진, 티무르 김정대, 핑 윤오건, 팡 우원석, 퐁 이승우, 알톰황제 최용준, 만달리노 손상혁
· 지휘, 해설/김병수
· 합창/JEM합창단, 남문초등학교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2013 발레 음악 시리즈 II '러시아 발레 음악'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이동신 | 플루트 이화영 | 클라리넷 백양지

3월 26일 차이코프스키의 명작 백조의 호수를 시작으로 2013년 다양한 발레 음악을 선보일 예정인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발레 음악 시리즈 II '러시아 발레 음악'.

러시아를 대표하는 하차투리안과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러시아에서 주로 활동한 민쿠스의 작품을 통해 러시아 발레 음악의 정수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함부르크 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 중인 플루티스트 이화영과 독일 자브뤼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단원으로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백양지가 높은 기교를 요하는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과 베버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하차투리안/스파르타쿠스 모음곡 제2번 중 제1곡
베버/클라리넷 협주곡 제2번
닐센/플루트 협주곡
민쿠스/'라 바야데르' 중 제2막

· 지휘/이동신
· 플루트/이화영(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 클라리넷/백양지(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수석)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제12회 벨리씨미 성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모노 드라마 & 베르디 오페라 갈라 콘서트
'VIVA VERDI'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벨리씨미 성악연구회(010-8277-4746, 010-9281-2662)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성 성악인의 모임으로 매년 따뜻한 테마와 주제로 무대를 열어온 벨리씨미 성악연구회의 제12회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우리 귀에 익은 베르디의 주요 작품을 모노드라마와 오페라 갈라콘서트로 구성,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벨리씨미는 이태리어로 '멋있는' '아름다운'을 뜻한다.

▶프로그램

베르디/축배의 노래, '돈카를로' 중 '아름다운 사라센 궁전의 정원에서'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 이름' '모든 축제에는 언제나' '언젠가 너를 만난 것 같다' '일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등
· 예술 총감독/신진범
· 무대감독 및 연출/안주은
· 출연/소프라노 신진범, 이은미, 박수정, 이나연, 장은녕, 정혜리,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 특별출연/테너 장원상, 바리톤 고영호
· 모노드라마/박혜영 · 피아노/최성근, 임소영
· 특별출연/혜화초등학교 중창단

● ● ●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5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문 의 |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40-3372, 010-2926-8801)

2009년 7월 창단이후 폭 넓은 연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음악전문 사회적 기업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예술성 높고 친근한 연주회로 시민들은 물론 음악평론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

칼리보다/오보에협주곡 작품 110
그리그/피아노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3번 1악장
· 지휘/홍성택
· 협연/오보에 박현지, 피아노 임혜린, 피아노 김경윤

● ● ●

부산통기타사랑모임 통키타운
제1회 정기연주회

5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학민(010-2622-1528)

음악을 좋아하는 직장인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통기타 동호회 통키타운의 첫번째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Romentico, 사진, 연극이 끝난 후, 좀비, Nobody, 스타킹, Can You, 트러블 메이커, 결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리, 나는 행복한 사람, 들어줄래 등 수곡

● ● ●

제15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5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663-4900, 010-8553-4917)

1993년 경성대학교 임병원 교수와 제자들로 창단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의 창단 20주년을 기념하는 제15회



정기연주회.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공백기를 마치고 2010년 해운대문화회관 초청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한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는 그동안 14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협주곡의 밤, 청소년 해설음악회, 기업방문음악회, 가정음악회, KBS, MBC의 방송출연 등 수많은 연주회를 가져왔다.

▶프로그램

로시니/현을 위한 소나타 제 1번 1악장
생상스/동물의 사육제
요세프/수크 현을 위한 세레나데
바르톡/루마니아 민속춤곡
· 예술총감독/임병원(경성대학교 예술대 학장)
· 협연/최윤희(경성대학교 교수)
고영주(경성대학교 외래 교수)

● ● ●

불교무용단 장마루무용단
-풍경소리에 연향을 담아

5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신서련(010-6862-8015)



YAMAHA·KAWAI·STEINWAY
PIANO DRECT IMPORT
TUNNING & REPAIRING
PIANO TECHNICIAN
CHO, HYUN SEOK R.P.T.
INTERNATIONAL REGISTERED PIANO TECHNICIAN
(국제자격 피아노조율사)
NATIONAL FIRST LEVEL PIANO TECHNICIAN
(국자자격 1급 조율사)
THE DEPARTMENT OF MUSIC COLLEGE OF ARTS, PUSAN NATIONAL UNIVERSITY
(부산대학교 전속 조율사)
STEINWAY PIANO 기술연수 수료
Tel. 051-553-4277 / 051-753-8963
H.P. 010-9003-8963

잊혀져가는 전통무용의 춤사위를 되살리고 사찰에서만 행해졌던 의식무를 무대화시키기 위해 결성된 불교무용단 장마루무용단의 춤.

▶프로그램

승무, 살풀이, 작법, 내맘의 흐름, 장고춤, 흥춤

· 출연/김귀자, 박선희, 김옥순, 신서련, 김동봉, 박경화, 여미영, 전은경, 김은경, 이선혜, 박성옥, 최향자

창작합창 21 제8회 작품 발표회
음악에 길을 묻다IV

5월 2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삼화 (010-8028-0856)
조혜선(010-8501-5117)

합창음악의 연구와 창작, 발표를 통해 대중과 함께하는 창작합창 문화의 보급,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창작합창 21의 제8회 작품발표회.

코람데오 합창단, 단비올 남성앙상블이 최삼화 회장을 비롯해 임지연, 권태우, 정승원, 윤소정 등 창작합창 21 작곡가들의 창작 합창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임지연/주사랑 안에
권태우/이 세상 단 한분
정승원/주기도문
윤소정/그 사랑
최삼화/놀라우신 주의 사랑
김종태/나에게 주소서
정혜란/귀하신 나의 주
최인식/찬란한 태양 등 수곡

· 합창/코람데오 합창단(지휘/황장수), 단비올 남성앙상블(지휘/강성철)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5월 22일-23일 수-목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창단 40주년을 맞아 부산시립무용단이 부산의 정서와 감성으로 새롭게 채색한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부산시립무용단이 자랑하는 한국 춤의 정수를 담은 '찬란한 유산'은 한국 전통춤의 현대적 변주를 다양하게 선보여온 부산시립무용단 제9대 예술감독 홍경희와 부산 민속춤의 거장 김온경, 한국춤의 브랜드화 성공신화를 이룬 전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배정혜가 참가, 우리 춤의 아름다운 멋과 흥취를 빚어낸다.

· 예술감독/홍경희 · 연출/배정혜
· 드라마투루기/이미연
· 동래고무 지도/김온경

▶작품

· 序舞(서무)-섬섬옥수
궁-왕비의 아침
· 本舞(본무) - 일취월장
동래학춤, 동래고무, 부채춤, 풀이, 장고춤
· 結舞(결무)-혼연일체
천고-신명으로 꿈꾸는 세상

제1145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음악 & 발레의 화려한 만남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5천원
문 의 | (사)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김영희(010-8519-0448)

음악감독 및 리더 김영희에 의해 1986년 창단된 이래 120여회 연주회, 국제음악제 초청공연(서울, 대만, 러시아 크라스노이야르스크) 등을 왕성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음악&발레의 화려한 만남.

Berlin Philharmonischer Choir 부지휘자 겸 피아니스



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진의 지휘, '기억에 오래 남을 영감을 일으키는, 생각 깊은 음악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정권, 지난해 이태리 Lipizer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 입상, 2009년 독일 Kloster Schontal 국제바이올린콩쿠르에서 최연소 3위 입상 및 비르투오소 특별상 등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매력적인 마스크에 힘이 넘치는 도약과 우아하면서도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발레를 선보이고 있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이동훈이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스트링오케스트라를 위한 '세레나데' 작품 48
비에냐프스키/파우스트 판타지 작품 20
생상/피아노협주곡 4번
차이코프스키/발레모음곡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 직할시 승격 50주년 및 부산MBC 창사 54주년 기념
피아니스트 백건우 초청연주회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 B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휘 리 신차오 피아노 백건우

부산직할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나움버그 국제콩쿠르 우승, 부조니 국제콩쿠르에서 골

드메달을 수상하며 세계를 무대로 폭 넓은 활동을 펼쳐 온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2000년 이후 13년만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한다.

백건우는 1992년 프랑스 디아파종 금상, 1993년 프랑스 누벨 아카데미 뒤 디스크에 선정, 2000년 프랑스 정부 예술문화기사 훈장을 받았다.

▶프로그램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1번 다장조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4번 사장조
· 지휘/리신차오 · 피아노/백건우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5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청소년 5천원
문 의 |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40-3372, 010-2926-8801)

음악전문 사회적 기업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청소년 유망주들이 함께 하는 청소년 협주곡의 밤.

▶프로그램

슈만/피아노협주곡 작품 54 가단조
베토벤/피아노협주곡 제1번 다장조 작품 15
하이든/피아노협주곡 라장조 Hob. XVIII:11 등
· 지휘/홍성택
· 피아노/김충만, 정주이, 오대현, 박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조덕배 소극장 콘서트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공연과(607-6057)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에서 만나는 조덕배 소극장 콘서트.



1984년 '나의 옛날 이야기로' 데뷔한 조덕배는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은', '꿈에'로 1980년대 신금을 위리는 목소리와 애절한 가사로 사랑을 받았다. 2007년 9집 '아홉번째 이야기'를 발표하고 2009년 뇌출혈로 활동을 중단했던 조덕배는 뇌졸중을 이겨내고 2011년 컴백했다. 이번 부산무대에서는 조덕배의 히트곡 '꿈에' '안개꽃을 든 여인' '내 사람아'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등으로 아련한 옛 추억과 향수를 선사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161~2)

지난해 독일 할레청소년합창페스티벌 대상 수상으로 화제를 모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독일, 체코 해외공연을 마무리하는 기념 공연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독일에서 직접 선보인 소고춤과 장구춤, 한국 및 독일의 대표 가곡, 염현섭이 지휘하는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단과 소프라노 신정순의 축하 무대가 마련된다.

▶프로그램

장구춤과 소고춤
이기경(편곡)/두껍아 문지기 주제에 의한 합창
조두남/새타령
한국, 독일가곡/도라지꽃(박지훈 곡), 보리밭(윤용하 곡), 송어(슈베르트 곡), 봄의 찬가(슈베르트 곡)
합창명곡/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리랑고개위의 들장미이영조(편곡) 등 수곡
· 지휘/전상철(부산시립소년소녀 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이승윤(부산시립합창단 반주자)
· 지도/노금선, 김양자
· 특별출연/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지휘/엄현섭) 소프라노 신정순

소프라노 이지은 귀국 독창회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0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0-5833)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소프라노 이지은 독창회.

이지은은 이태리 아이롤라(Airola) 국제콩쿠르에서 최우수 가창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페르골레지/반넬라의 비웃음
비발디/4개의 아리아 중 '나의 나날이 끝날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하리' '오라, 오 나의 사랑'
로드리고/4개의 사랑의 마드리갈


부산악기사
www.piano123.co.kr
그랜드피아노
복원(수리), 조율, 감정, 대여
부산문화회관전속 조율사 / 김해문화의전당 전속
대표 강 규 찬 (조율사)
H.P 010-4556-9410
TEL 051)758-5445 / 5450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525번지

김동진/수선화
안정준/아리 아리랑
슈트라우스/클레멘스 브렌타노의 시에 의한 6개의 가곡 중 '밤에' '미르테의 꽃이여' 등 수곡

에듀와르도 페르난데스 기타독주회

5월 26일 일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문 의 | 코리아무지카(02-2272-6516)



우루과이 출신의 천재 기타리스트 에듀와르도 페르난데스 부산연주회.
에듀와르도 페르난데스는 1971년 우루과이 기타 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1972년 브라질 뽀르또 알레그레 기타 콩쿠르 최우수상, 스페인 기타 콩쿠르(Andre Segovia Competition in Mallorea) 그랑쁘리, 파리 국제 기타 콩쿠르 최고의 상을 수상하고 1977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세계적인 천재 기타리스트의 명성을 얻었다.
페르난데스는 훌륭한 테크닉을 배경으로 리드미컬하면서도 잔잔한 멜로디로 천상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프로그램

소르/에튜드
페르난데스(편곡)/하이든 현악사중주 작품 42
쥴리아니/로시니아나 작품 121 3번, 바레이션 콘체르토 작품 130
· 특별출연/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

2013 부산청소년음악제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음악협회(634-1295)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미래의 청중이 될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매년 개최되는 부산청소년음악제 2013 무대.
올해는 분포중학교 관현악부, 부산해운대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산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출연, 협동을 통해 음악이라는 조화와 특별한 앙상블의 예술을 만들어낸다.

· 출연/분포중학교 관현악부, 부산해운대구립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산교문청소년 오케스트라

제2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5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마을에서 사제라는 신분을 넘어 평범한 이웃의 한 사람으로, 아픈 곳을 살피고 치료해 주는 의사로, 다양한 악기와 즐거운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으로 살다간 부산사람 이태석 신부의 나눔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부산사람이태석기념음악회 두번째 무대 '가곡과 아리아의 밤'.
마에스트로 오충근과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김경, 장진규,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김정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재능기부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이태석 신부가 작곡한 '아리랑 열두 고개' 합창과 '비목', '그리운 마음',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주옥같은 가곡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버/오페라 '오이란테' 서곡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언젠가는 모르지만'
로시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험담은 미풍처럼'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이수인/내맘의 강물
조두남/산촌
이태석/오케스트라를 위한 '아리랑 열두고개' 등 수곡
· 지휘/오충근
· 연주/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 협연/소프라노 김유섬, 메조 소프라노 강희영, 테너 김 경, 장진규, 바리톤 강경원, 베이스 김정대
· 합창/부산혜원학교 부산베데스다 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0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II'

5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지난 3월, 베토벤 교향곡 제1번과 제2번 연주를 시작으로 2013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의욕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향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두 번째 무대.
수석지휘자 리신차오의 지휘로 베토벤의 다른 교향곡들에 비해서 비교적 혁명적이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놀라움을 안겨주는 진정한 모험과 재치가 숨어있는 교향곡 제8번과 영웅의 위대한 이상을 음악으로 표현한 교향곡 제3번 '영웅'을 들려준다.

| 국제수준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 | 글로빌아트홀

CD 녹음 / DVD 녹화	연주회 / 클래스발표회 / 음향세미나 / 행사
유학오디션용 / 국제콩쿨용	독창회 독주회 실내악 오케스트라 국악연주회
현재 미국 명문음대 100%의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음 (CD 및 DVD오디션에서 합격사례) 피아노 : 송정민(이스트만음대 전액장학생), 엄유정(텍사스 어스틴음대) 첼로 : 김미나(줄리어드 합격 및 론지 장학생)/바이올린 : 이슬기(피바디음대) 성악 : 김지현 김혜원(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합격) 외 다수	피아노 성악 현악 관악 클래식기타 작곡 가야금 독주 및 합주 연주회 실황 녹음 녹화 가능
개인 음반 / 합창단 합주단 기념음반 / 교회찬양대 기념음반(녹음 및 녹화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 48번길 162 글로빌아트홀(온천3동 1243-21) ☎ 051-505-5995 Fax. 051-505-5935 glovil@daum.net

▶프로그램

베토벤/교향곡 제8번

베토벤/교향곡 제3번은 '영웅'

토요상설무대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6)

아지무스오페라단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베르디 오페라갈라 축제 Festiva di Opera Gala

6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VIP 8만원 · R석 5만원 ·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2013년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맞아 유명 성악가들의 목소리로 만나는 베르디 오페라 갈라 축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 시흥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하고 지난해 지휘부문 대한민국오페라대상을 수상한 여성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전문예술법인 T.I.F.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베르디의 주옥같은 아리아와 중창, 화려한 오페라영상으로 음악회의 감동을 더해준다. 공연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백혈병환아들의 수술비로 쓰여진다.

▶프로그램

오페라 '롬바르디아인' 중 '내 기쁨으로 그녀를 감싸고 싶다' '십자군의 롬다르디인'

오페라 '아틸라' 중 '영원한 영광의 정상에서'

오페라 '루이자 밀러' 중 '저녁들이 고요할 때'

오페라 '리골레토' 중 '그리운 그이름' 등 수곡

· 지휘/김봉미(서울필하모닉 전임지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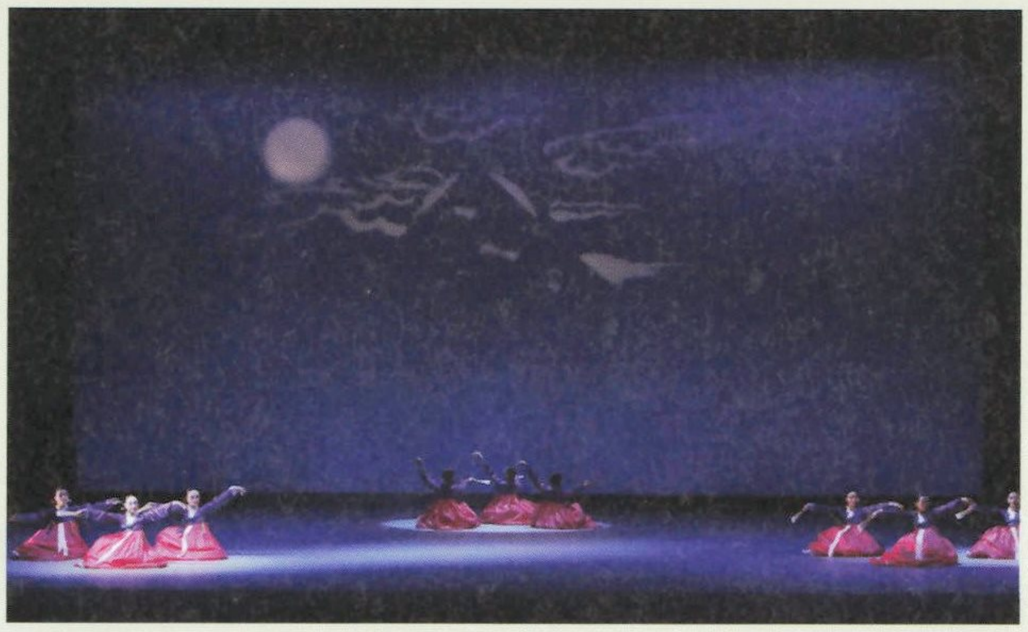
· 연주/T.I.F. 심포니 오케스트라

출연

소프라노 서경숙, 강민성, 고예정, 김현애,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성미진, 테너 강학윤, 이홍득, 장진규, 조윤환, 바리톤 안상철, 하병욱, 강경원

5월 18일 (사)한국무용협회 부산시지회 '남선주의 춤 춘흥'

한국무용협회 부산지회 소속 춤꾼들이 선사하는 흥겨운 우리춤 한마당.



▶프로그램

열림의 모듬북(출연/윤정미, 구지혜, 신윤경, 김예린, 이남정)

태평무(출연/남선주)

소고춤(출연/김정원, 김여운, 김유진, 김지선)

풍류장고춤(출연/김정원, 윤정미)

승무(출연/남선주)

진도북춤(출연/신윤경, 구지혜, 김예린, 김여운, 이남정)

5월 25일 러브레터 '봄 그리고 재즈의 향연'

하지림, 최창근, 허진호 등이 활동하고 있는 재즈그룹 러브레터가 우리 귀에 익은 대중적인 곡들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재즈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Autumn leaves, 섬집아이, You don't know what love is, Byebye blackbird, Norwegian wood, Route66, Tristeza, Love, Too young to go steady, Love is here to stay, Gentle rain

• 출연

하지림(동부산대학교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최창근(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교수), 허진호(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고명석(si실용음악학원 드럼 전임강사), 최은아(부산예술대학 실용음악과 외래교수)

Music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 학생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

▶1일 Piano & 4 Colors

피아니스트 길금혜, 김희정, 양정은, 최혜련이 들려주는 4인 4색 무대.

▶8일 비타펠리체 정기연주회 '시네마 뮤직 콘서트'

소프라노 이수진, 구현진, 엄말영, 박연경, 메조소프라노 이지영, 테너 우원석, 황성학, 바리톤 김대성, 베이스 정용욱, 피아니스트 김경미, 플루티스트 송주연으로 구성된 비타펠리체 정기연주회.

▶15일 백재진 바이올린 독주회 '본의 소리로'



서울대학교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동의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독주회.
백재진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교향악단 객원악장, 울산시립교향악단 악장을 역임하고 비르투오조 앙상블 리더로 활동중이다.

▶22일 오퍼스앙상블 'Hello! Musica Viva'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이에스더, 피아니스트 최은주, 첼리스트 전명희, 비올리스트 임정은, 클라리네티스트 정우영으로 구성된 오퍼스앙상블의 무대.

▶29일 P&R 렉쳐콘서트 II '내 귓가의 독일 멜로디'

소프라노 김현숙, 테너 이은민, 피아니스트 김성희, 박미은이 들려주는 독일음악의 밤.

아트카페 움 목요음악회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아트카페 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카페 움(557-3369)

▶2일 크로노스앙상블과 함께하는 '바로크 시대로의 여행'



지난 2003년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로 결성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청중과 소통해온 크로노스앙상블이 들려주는 바로크 음악의 밤.

· 연주/이장호, 조양희, 신민정, 박언정(바이올린), 박소영(비올라), 김판수(첼로), 류재환(오보에), 이성희(피아노)

▶9일 재즈밴드 '러브레터'가 전하는 사랑 이야기

하지림(피아노), 허진호(베이스기타), 최창근(색소폰), 최은아(보컬), 곽영일(드럼)로 구성된 재즈밴드 '러브레터'가 들려주는 사랑의 선율.

▶16일 플루티스트 김현정 독주회

현재 글로빌청소년오케스트라 수석 트레이너, 동아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김현정 독주회.

▶23일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령 독주회

현재 DCMF 멤버, 대구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령이 들려주는 크라이슬러 음악의 밤.

▶30일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따뜻한 숨소리, 그리고 하모니카 선율'

청소년 하모니카합주단 '모데라토', 부산실버하모니카 합주단 '소리모아', 부산하모니카연주단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모니카 연주자 이성규 독주회.

해운대문화회관 목요상설공연 '끌림'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7천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2일 아동극단 징검다리 '괴물 꽝철이'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싫어하는 괴물 꽝철이에게 맞서는 주인공 풀잎의 모험을 그린 창작아동극.

▶9일 얌모얌모 콘서트

기존의 음악회와는 차별화되는 재미와 웃음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 출연/테너 허동권, 한우인, 장진웅, 바리톤 이태영, 소프라노 윤선기, 피아노 하영화

▶16일 해설이 있는 가곡의 밤

우리나라 가곡을 깊이있는 해설과 연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출연/권순유, 이혜진(소프라노), 장용균(베이스), 원지성(피아노), 오한석(첼로), 김설화(바이올린)

▶23일 재미있는 클라리넷 앙상블

클라리네티스트 허태성, 윤소라, 정광명, 이예슬, 서지나, 김태우로 결성된 메소드 클라리넷 앙상블의 무대.

▶30일 콘탁 콰르텟 콘서트

지난 2003년 바이올리니스트 송지현, 서영희, 첼리스트 김유미, 비올리스트 조진영 등 부산, 경남지역에서 활동중인 젊은 연주자들로 결성된 콘탁 콰르텟의 무대.

을숙도문화회관 금요 해피콘서트

5월 3일 금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신라대학교 오페라클래스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들려준다.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6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7일 윤여숙의 춤 '춤으로 세상을 밝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윤여숙의 무대.

▶프로그램

이매방류 살풀이춤, 동래입춤, 강태홍류 산조춤, 문둥탈춤, 창작작품 '명(明) : 춤으로 세상을 밝히다'

▶14일 김미진 첫 번째 판소리 완창 발표회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34호 판소리 흥보가 전수장학생으로 있는 김미진의 박녹주제 판소리 '흥보가' 완창무대.

▶21일 문양숙의 樂

현재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석으로 활동중인 가야금주자 문양숙의 무대.

▶28일 남산놀이마당의 '영남의 솟대쟁이'

1992년 창단 이후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남산놀이마당의 무대.

● ● ●

라 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5월 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이진성(010-4560-5322)



'어렵지 않은 클래식음악'을 모토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한 음악회를 가져온 라 무지카 앙상블이 들려주는 드보르작 음악의 밤.

▶출연

황지원(바이올린,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우소라(바이올린,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성호(비올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김판수(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이진성(피아노, 경성대, 동의대, 인제대 외래교수)

● ● ●

부산문화회관 특별기획공연 가족사랑콘서트-천원의 행복

5월 9일(목)-31일(금) 오후 7:30 지역 區 문화회관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문화회관(607-6057)



부산문화회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지역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며 마련하는 가족사랑콘서트 '천원의 행복'.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가족과 함께 듣는 클래식'

9일(목)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0일(금)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원지휘자 이효상이 이끄는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소프라노 최선희, 테너 김진영, 호른주자 만이가 들려주는 가족음악회.

▶국악전문단체 타로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10일(금)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30일(목)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지난 2004년 창단공연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국악전문단체로 성장한 '타로'와 함께하는 가족사랑콘서트.

▶부산시립합창단 '사랑의 노래'

23일(목)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28일(화) 북구문화빙상센터 공연장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곡과 팝, 7080 가요 등을 들려주는 부산시립합창단 '사랑의 노래'.

▶부산시립무용단 '찬란한 유산'

30일(목)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타악퍼포먼스 등 멋과 흥이 넘치는 우리춤을 선사하는 부산시립무용단 '찬란한 유산'.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힐링 콘서트'

31일(금)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흥과 신명이 넘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해설이 있는 '힐링 콘서트'.

● ● ●

여주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5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연세대학교와 미국 매네스 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여주현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제8번
브람스/소나타 제3번 등

● ● ●

을숙도 명품콘서트

5월 9일 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서울대학교와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드레스덴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김해국제음악제 집행위원장 겸 총감독,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노경원의 협연으로 마련되는 을숙도 명품콘서트 5월 무대.

· 연주/T.I.F오케스트라(지휘/윤상운 · 동의대학교 교수)

● ●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1회 정기연주회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정성희(010-8511-3768)

지난 1992년 소년의 집 관현악단을 정상급의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유경이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지휘/안유경
· 협연/테너 정필윤, 바이올리니스트 박진, 이승재

●●●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신명무대
'우리소리 우리춤'

매주 토요일 오후 4:00(4일 공연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11일 프로그램

춘앵전, 풍류장구춤, 남도민요 '동백타령', 태평성대, 가야금병창 '명기명창', 태평소와 관현악, 사물놀이

▶18일 프로그램

선보허자, 포구락, 판소리 '춘향가' 중 '초경이경', 진주교방굿거리춤과 동래학춤, 신뱃놀이(원일 곡), 판굿 등

▶25일 프로그램

해령, 무산향, 경기민요 '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살풀이춤, 굿풍류, 밀양백중놀이춤 등

●●●

2013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Spring & Summer
서울시립교향악단 H-Premium Concert

5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입장료 | VIP 11만원 · R석 9만원
S석 7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
2009년 제7회 하마마츠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 최연소 우승, 제14회 차이코프스키콩쿠르 3위 입상으로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차세대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협연으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와 교향곡 제5번 '운명'을 들려준다.

· 지휘/정명훈 · 협연/조성진(피아노)

●●●

동래문화회관 토요클래식 뮤직샤워

5월 11일(토), 25일(토) 오전 11:0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11일 테너 김태모, 소프라노 송윤경 듀오콘서트



이태리 국제성악콩쿠르 1위를 차지하고 창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테너 김태모와 KNN 라디오 '좋은음악 좋은 만남' 진행자로 활동중인 소프라노 송윤경의 듀오무대.

▶25일 피아니스트 허혜정, 표세구의 하모니

현재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외래교수로 활동중인 허혜정과 경남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표세구가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

거제동성당 설립 40주년 기념음악회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 부부음악회

5월 11일 토요일 오후 7:30 거제동성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봉수(010-4434-6605)

거제동성당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부부성악가인 소프라노 신정순, 바리톤 고봉수가 마련하는 부부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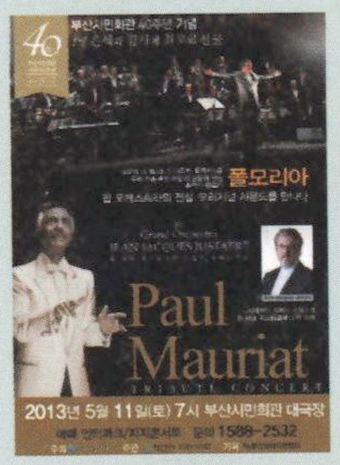


소프라노 신정순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성악과와 이태리 삐아첸짜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바리톤 고봉수는 이태리 삐아첸짜 국립음악원 'G. Nicolini' 성악과를 졸업하고 현재 해운대 노노실버합창단, 노이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2013 폴모리아 트리뷰트 콘서트 by
장자크 주스타프르 그랜드 오케스트라

5월 11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A석 8만원 · B석 6만원
문 의 | ㈜공간엔터테인먼트(1588-2532)



팝 오케스트라의 전설 폴 모리아 추모콘서트.
장 자크 주스타프르 그랜드 오케스트라가 폴 모리아의 주옥같은 명곡과 그가 직접 편곡한 민요 '아리랑', 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들려준다.

●●●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제45회 정기연주회

5월 13일-14일 월-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김민정(010-6531-0307)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의 앙상블 무대를 감상할 수 있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 출연/정광민, 이은정(13일) 박선미, 서미라, 김지민, 장근미, 배지현, 윤희경, 김미진, 정영주, 이진성, 김영지, 이성애, 김소희(14일)

제1회 부산소극장오페라페스티벌

5월 14일-18일 화-토요일 오후 8:00, 19일 일요일 오후 3:00,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시민들이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오페라 세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동래문화회관 부산소극장 오페라 페스티벌.

▶14일-15일 2013 히어로 베토벤

악성 베토벤의 삶과 음악을 그의 대표작들을 통해 들려주는 '2013 히어로 베토벤'.

· 출연/바리톤 최대우, 배우 정원혁

▶16일-17일 미니오페라 '사랑의 묘약'

아리따운 처녀 아디나의 마음을 얻기위한 주인공 네모리노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도니제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 연출/장진규
· 피아노/손소연, 강미
· 출연/소프라노 김정은, 김다슬, 테너 장진규, 김성, 바리톤 조성빈, 베이스 최현욱

▶18일-19일 헨젤과 그레텔

그림형제의 동화를 오페라 무대로 옮긴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 제작, 지휘, 음악코치/정금련
· 연출/박용민
· 출연/소프라노 신민원, 정은미, 박수진, 구현진, 바리톤 강경원, 이태영, 메조소프라노 성미진 외

동성화학과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서희태의 영화가 들리는 콘서트 5'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준 영화 '집으로'의 감독 이정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두레라움 페스티벌 앙상블의 연주로 이정향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 '집으로' OST곡을 들려준다.

· 진행 및 지휘/서희태

을숙도문화회관 힐링콘서트
부산 해금 · 아쟁 연주단 奚牙淵 '활의 노래'

5월 15일 수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05)

올해 초 창단한 해금, 아쟁 연주자들의 모임인 '해아연(奚牙淵)'이 들려주는 힐링콘서트 5월 무대.

· 협연/김지현(25현 가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행복나눔 상설 국악 콘서트

5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2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지난 2009년 부산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한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결성된 퓨전 국악단체인 음악대륙 가이아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국악에서부터 창작국악,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악곡을 들려준다.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제3회 정기연주회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재학생들이 마련하는 세 번째 정기연주회.

이문희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독주회

5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국립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문희(010-2296-1650)



현재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전수조교, (사)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이사로 활동중인 이문희는 이번 무대에서 절제되면서도 담백한 멋이 깃든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들려준다.

이승현 가야금 독주회 '情感 III'

5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승현(010-8996-2078)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음악학 박사)을 졸업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이승현 가야금 독주회.

성금연류, 김죽파류, 최옥삼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 네 바탕을 선보이는 '情感' 세번째 무대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와 별곡을 들려준다.

2013 40주년기념 김영임의 소리 孝 대공연

5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6:30
벡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VIP 9만 9천원 · R석 8만 8천원
S석 7만 7천원 · A석 6만 6천원
문 의 | 플랜비(759-1155)



경기명창 김영임이 매년 5월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마련하는 소리 孝 대공연 2013년 무대.

효를 주제로 국악과 드라마,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초대형 국악뮤지컬 회심곡과 전통민요, 박범훈 창작곡을 들려준다.

행복나눔 상설 클래식 콘서트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5천원 · 학생 2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부산시립교향악단 목관5중주의 연주로 들려주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입문 콘서트.

· 연주/이화영(플루트), 류재환(오보에), 정우영(클라리넷), 윤태준(바순), 백상흥(호른)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피아노 & 플루트 듀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7: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피아니스트 신나래와 플루티스트 이나래가 펼치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5월 무대.

소프라노 양근화 귀국 독창회

5월 2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양근화(010-3645-7953)



동아대학교 성악과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짜르테움 국립음대 오페라과(석사), 이태리 도니제띠 음악원 뮤지컬과(디플롬)를 졸업하고 이태리 Terre dei Fieschi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소프라노 양근화 귀국 독창회.

제79회 한낮의 유U; 콘서트 Whisper My Serenade

5월 21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국제신문(500-5222)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에르노 페어와 경성대학교 교수로 있는 베이스 크리스토퍼 템포렐리 협연으로 마련되는 한낮의 유U; 콘서트 5월 무대.

루마니아 바나툴 주립 티미슈아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5월 22일 수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박미희(010-4020-6290)



1871년 창단한 루마니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루마니아 바나툴 주립 티미슈아라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지휘/라두 포파
· 협연/양주빈(첼로)
조아라(피아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8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3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1~2)

연주기량이 우수한 청소년을 발굴, 연주기회를 제공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38회 청소년 협연의 밤.



▶프로그램

정동회/25현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가'
김만석/대아쟁 협주곡 '천축'
조원행/해금 협주곡 '상생' 등

· 지휘/김철호(수석지휘자)
· 협연/정부경(25현 가야금, 이화여대 4년), 장은교(아쟁, 부산대 3년), 조희규(해금, 부산대 3년), 정유경(25현 가야금, 가야여중 2년), 김혜지(피리, 부산대 4년)

이지선 피아노 독주회 '피아노 협주곡 현악 사중주를 만나다 2'

5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청소년 1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레아(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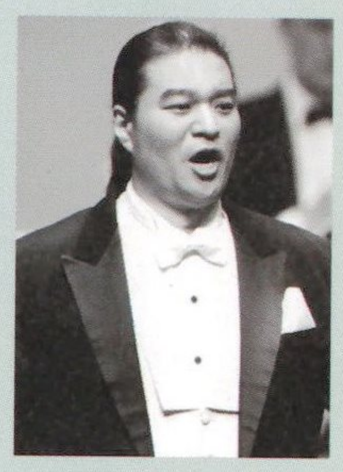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 음대를 졸업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지선이 우리 귀에 친숙한 모차르트,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피아노 5중주로 편곡,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바이올린/서은아, 이영주
· 비올라/손주연 · 첼로/서성은

제12회 테너 이칠성 독창회 베르디 탄생 200주년을 기리며…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아(010-9334-6105)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엔리소 카루소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해 실력을 인정받았던 테너 이칠성은 현재 센텀합창단, 이기대성당 지휘자, 아미치 세뗄레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찬조출연/소프라노 이정아

Alexander Gebert & Anna Magdalena Kokits Cello & Piano

5월 24일 금요일 오후 7:00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입장료 | 균일 1만원(사전 예약)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010-4781-5959, www.goeunmuseum.org)

현재 Altenberg 트리오 멤버이자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Alexander Gebert와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독주자 및 실내악 연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Anna Magdalena Kokits가 함께하는 듀오무대.

제3회 신영순 작품 발표회 '인성과 실내악'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00, 5: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 학생 1만원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글로빌아트홀 예술총감독, 글로빌콘서바토리 학장으로 있는 작곡가 신영순 작곡 발표회.

동아콩쿠르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하고 2002 아시안게임음악 작곡자, 국가상훈편찬위원회가 발행한 '현대사의 주역들' 인물편에 수록된 바 있는 신영순은 그동안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의 특징을 제대로 살려 자연스럽게 우리 정서를 표출한 작품을 발표해 왔다.

제65회 글로빌 행복음악회

5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금 기금)
문 의 | 글로빌아트홀(505-5995)

글로빌아트홀이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제14회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정기연주회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브니엘예술고등학교(582-7671)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매년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정기연주회.

· 관현악 지휘/이동신 · 합창 지휘/이건륜
· 협연/백진욱(바순), 박주현(성악), 이승아(플루트)

한끼의식사기금 2013 사랑의 콘서트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한끼의식사기금(731-7741~2)



한국 포크음악계를 대표하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장필순과 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플루티스트 이상창, 소프라노 이윤정, 테너 박찬이 출연, 사랑과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는 한끼의식사기금 2013 사랑의 콘서트.

동래문화회관 목요힐링콘서트

5월 30일 목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일반 2천원 · 학생 1천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550-6611)

전통과 현대를 국악으로 아우르는 '목요힐링콘서트' 5월 무대로 기분좋은 퓨전국악곡을 들려준다.

Play

연극 '아유크레이지'

3월 14일(목)-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요절복통 해프닝을 그린 코믹극 '아유크레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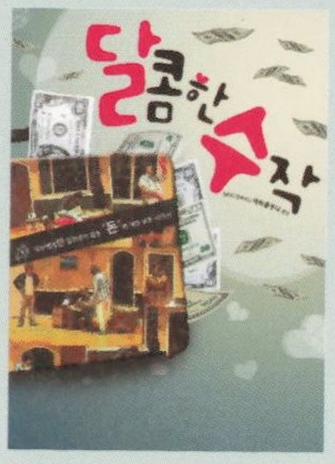
연극 '미치지 않고서야'

3월 15일(금)-5월 1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2:00, 5:00
(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자식들을 반듯하게 키워내기 위한 어머니 박정봉의 고군분투기가 유쾌한 웃음과 짠한 감동으로 펼쳐지는 연극 '미치지 않고서야'.

코믹극 '달콤한 수작'

3월 29일(금)-6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 공휴일 오후 3:00, 6:00(3/31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복잡해지는 상황들과 오합지졸 캐릭터들의 정신없는 대사가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내는 리얼 코믹극 '달콤한 수작'.

· 원작/마이클 쿠니
· 각색, 연출/전주협
· 출연/김도한, 금정원, 박상민, 윤준기, 김기환, 김병철, 전현우, 최정아, 김아람 외

뮤지컬 '우연히 행복해지다'

3월 29일(토)–5월 6일(월) 평일 오후 8:00,
주말 공휴일 오후 3:00, 6:00(3/31일 오후 6: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1588-2757)

행복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6명의 남녀를 통해 조건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는 콘서트 뮤지컬.

· 작/함유진 · 연출/김재근

코믹뮤지컬 '프리즌'

4월 4일(목)–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1:00,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가온아트홀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60% 할인)
문 의 | 극단 라임(1600-1602)

가수를 꿈꾸는 탈옥범들의 요절복통 스토리에 콘서트, 퍼포먼스, 비보잉, 마술, 개그 등 다채로운 장르가 결합된 코믹뮤지컬 '프리즌'.

연극 '도둑과 연인'

4월 20일(토)–5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디코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cafe.naver.com/gg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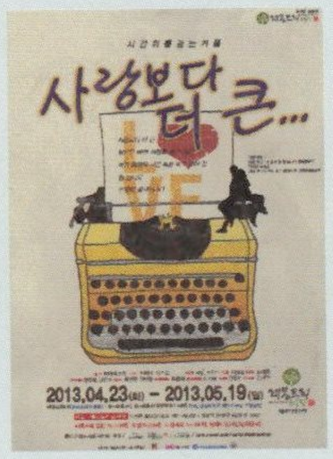


소설가를 꿈꾸는 성민과 그의 왈가닥 애인 혜교, 그들의 원룸에 침입한 멍청한 좀도둑이 펼치는 해프닝을 통해 우리가 자칫 잊고있는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로맨틱 코믹극 '도둑과 연인'.

· 작, 연출/전상배
· 출연/하현관, 강혜경, 구미석, 신민호

레몬트리 소극장 개관기념 공연
사랑보다 더 큰…

4월 23일(화)–5월 19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일요일 오후 3:00(월요일 공연
없음) 남천동 레몬트리소극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 학생 2만원(예매시 1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레몬트리소극장(626-0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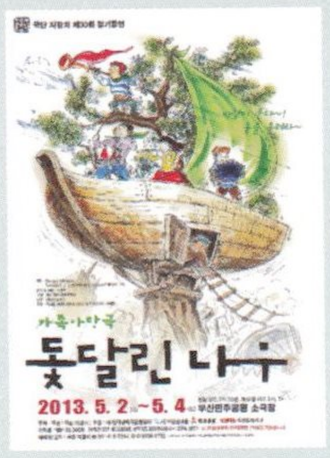


서로의 속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두 주인공의 40년 인생을 단 하루의 시간으로 표현, 인간이 갈구하는 희망과 욕망, 꿈이 시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

· 작/머레이 쉬스갈
· 연출/이성섭(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 출연/최원준, 권민증

극단 자갈치 제30회 정기공연
가족극 '돛달린 나무'

5월 2일–3일 목–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2:00, 5:00 민주공원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 3인 가족권 4만 5천원
4인 가족권 5만 5천원(예매시 20% 할인)
문 의 | 극단 자갈치
(515-7314, 010-5106-1732)



재개발이 한창인 도시의 변두리지역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모험의 이야기를 통해 계층과 계층, 세대와 세대, 그리고 가족과 가족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맺기의 장을 시도하는 극단 자갈치 가족극 '돛달린 나무'.

· 연출/강미정, 손재서
· 출연/전성호, 백대현, 이혜영, 최의덕, 황지선, 김여진, 허아영
· 작곡 및 음악감독/우창수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5월 3일(금)–12일(일)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예노소극장, 액터스소극장,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5+2 Ticket(초청작 5편 +GO, 아비뇽OFF 2편) 50,000원,
전 공연 프리패스 카드 100,000원
문 의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802-8003, www.bipaf.org)

매년 새로운 컨셉으로 세계 각국의 연극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제작, 문제작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연극제 2013년 무대.

-BIPAF CONCEPT-

올해 컨셉인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을 주제로 한 화제작을 선보인다.

► 프랑스 Adrien M/Claire B '시네마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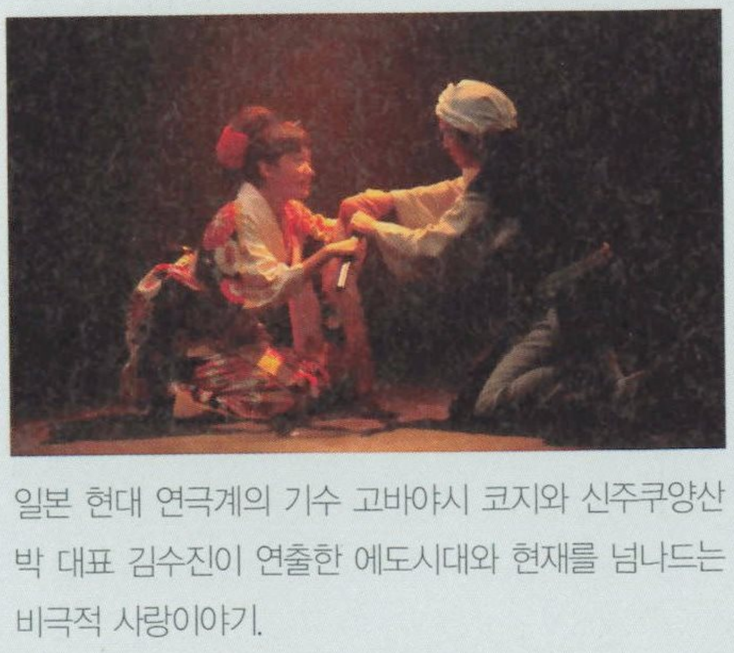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두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통해 유쾌한 감성, 풍부한 상상력을 펼치는 디지털 퍼포먼스극.

►대만 Mobius Strip Theatre '일그러진 도시'

5월 5일 일요일 오후 6:00, 6일–7일 월–화요일
오후 8: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디지털 아트와 전자음악, 드럼을 이용 대만의 전통노래를 통해 인류의 본래적 성향을 다룬 작품.

►일본 신주쿠양산박 '도우겐의 슬픈 연가'

5월 8일–10일 수–금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일본 현대 연극계의 기수 고바야시 코지와 신주쿠양산박 대표 김수진이 연출한 에도시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비극적 사랑이야기.

►영국 Anomic Multimedia Theatre
'Chapter6 : 인생'
5월 9일-10일 목-금요일 오후 8:00, 11일 토요일 오후 6:0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죽음의 운명에 직면한 소녀의 꿈속 여행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 이야기가 멀티미디어를 통해 펼쳐진다.

-BIPAF OPEN-

형식과 컨셉, 장르에 제한 없이 국내외 우수작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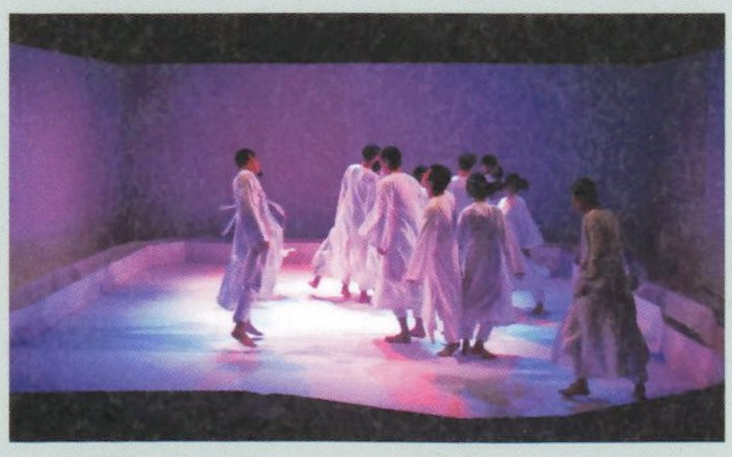
►운(雲) 프로젝트 그룹 'Ugly Man'
5월 10일 금요일 오후 6:00, 11일 토요일 오후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광대들의 일상을 우화적이고 코믹하게 풀어낸 넌버벌극.

-Go, 아비뇽OFF-

2014년 프랑스 아비뇽 OFF 축제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경쟁부문.

►극단 까망 '나는 처용'
5월 3일 금요일 오후 3:30, 4일 토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예술다리 전설의 삼선교 '꽃담'
5월 3일 금요일 오후 6:30, 4일 토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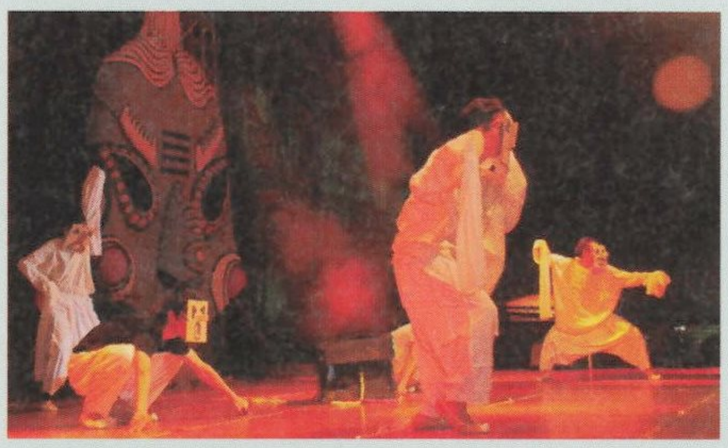
►극단 장이 '어떤 사건'
5월 3일 금요일 오후 9:30, 4일 토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극단 누리에 '쥐'
5월 4일 토요일 오후 1:00, 5일 일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극단 76 '상대방의 자리'
5월 4일 토요일 오후 7:00, 5일 일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극단 디아코노스 '네가 그러는 동안에'
5월 6일 월요일 오후 3:30, 7일 화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예술창작집단 몽우
'짐은 임금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다'
5월 6일 월요일 오후 6:30, 7일 화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극단 소리 '별'
5월 6일 월요일 오후 9:30, 7일 화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극단 기차 '구름에 걸린 구두'
5월 7일 화요일 오후 1:00, 8일 수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극단 노가리 '붉은 장미의 탱고'
5월 7일 화요일 오후 4:00, 8일 수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친구네 옥상 '요한 프란츠'
5월 7일 화요일 오후 7:00, 8일 수요일 오후 1:00
액터스소극장

►극단 나무 '이야기 하루'
5월 9일 목요일 오후 3:30, 10일 목요일 오후 6:30
공간소극장

►트러스트 무용단 'Yom'
5월 9일 목요일 오후 6:30, 10일 금요일 오후 9:30
공간소극장

►창작집단 거기가면 '반호프'
5월 9일 목요일 오후 9:30, 10일 금요일 오후 3:30
공간소극장

►극단 해오름 '꿈을 파는 가게 신문 공주'
5월 10일-11일 금-토요일 오후 1:00 액터스소극장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머무르다'
5월 10일 금요일 오후 4:00, 11일 토요일 오후 7:00
액터스소극장

►극단 DR '경련'
5월 10일 금요일 오후 7:00, 11일 토요일 오후 4:00
액터스소극장

뮤지컬 '삼총사' 부산 공연

5월 3일-12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8:00, 일 · 공휴일 오후 3:00, 7:00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입장료 | VIP석 13만원 · R석 11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문 의 | 인터파크 공연기획팀(950-6511~2)



왕실 총사가 되기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프랑스 왕의 친위부대 삼총사의 모험과 우정을 박진감 넘치게 그린 뮤지컬 '삼총사'.
· 출연/남경주, 신성우, 김법래, 이건명, 김민종, 민영기, 엄기준 외

극단 미지 씨어터 '입살이'

5월 3일(금)-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청춘나비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5천원 · 청소년 1만 5천원 새터민 특별할인 7천원
문 의 | 극단 미지 씨어터(010-9688-8935)

궁핍과 불신만이 남아있는 한 가족의 파괴된 인성과 욕망이 불러온 비극적 운명을 그린 연극 '입살이'.
· 각색, 연출/양지웅
· 출연/윤소희, 박찬영, 정행심, 김미현, 김미하, 이혜란

영도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네가 그러는 동안에'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학교폭력을 다룬 청소년 뮤지컬로, 학교폭력의 가해자 '태영'과 그에 맞서는 '민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실상과 그들의 슬픔을 그려낸 '네가 그러는 동안에'.

가정의 달 기념공연 어린이극 '알콩달콩 우렁친구'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한 어린이극 '알콩달콩 우렁친구'.
산골에 혼자 사는 소년 동이와 알콩숲 동물친구들과의 우정이 신명넘치는 우리소리, 우리춤과 함께 펼쳐진다.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 5천원 · S석 2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영원한 소년 피터팬과 떠나는 신나는 모험의 세계가 흥겨운 춤과 노래로 펼쳐지는 어린이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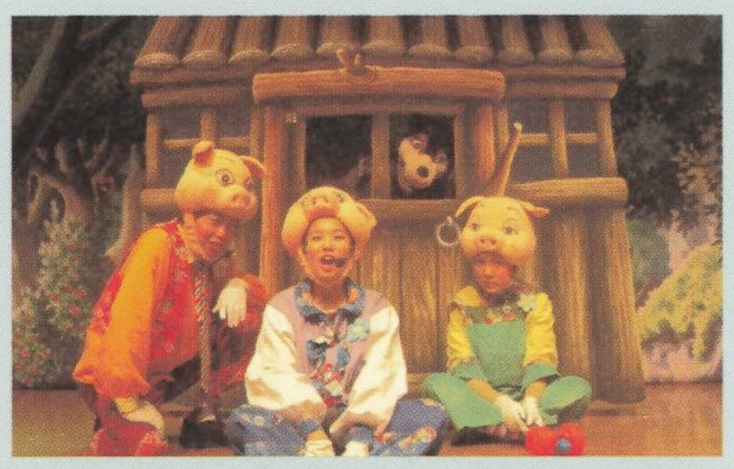
어린이뮤지컬 '신데렐라'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못된 새엄마와 새언니들의 구박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신데렐라의 행복찾기를 그린 어린이뮤지컬.

어린이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

5월 4일-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심술궂은 늑대에 맞서 자기의 집을 짓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통해 부지런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어린이뮤지컬.

전래동화 뮤지컬 '어흥!! 호랑이와 곶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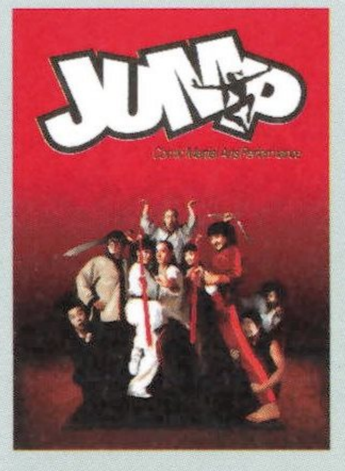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5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6일-7일
월-화요일 오전 11: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우는 아이도 달래는 곶감을 자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라고 착각한 호랑이의 어리석음을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으로 풀어낸 가족뮤지컬.

· 작, 연출/오계영
· 출연/조일영, 오계영, 송판수, 이선화, 정나윤 외

5월 가정의 달 특별공연 '점프'

5월 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5일 일요일
오후 2:00, 6:00 KBS 부산홀
입장료 | R석 6만원 · S석 5만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다양한 동양무술에 아크로바틱까지 망라된 새로운 개념의 마샬 아츠 퍼포먼스극 '점프'.
몰래 숨어든 어설픈 도둑들과 펼치는 무술가족의 배꼽빠치는 한판 승부가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기장어린이극단 신바람 정기공연 2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5월 4일(토), 11일(토) 오후 2:00, 5:00
기장군청 차성아트홀
입장료 | 일반 1만원 · 어린이 8천원
문 의 | 차성아트홀(723-7203)



꿈 속 오즈나라 여행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도로시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예술감독/이윤주
· 연출/강국희
· 출연/이윤석, 백서연, 서민균, 김예지, 박재현 외

2013 을숙도 연극열전 극단 맥 '비나리'

5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6일 월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220-5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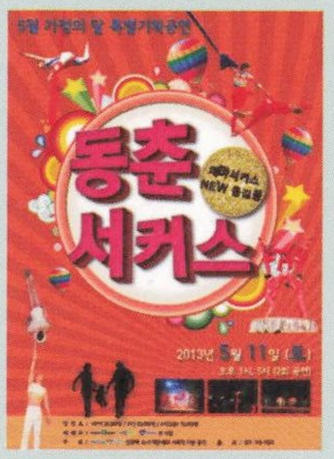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탈굿, 오구굿, 동래야류, 동래학춤, 사물놀이, 판소리 등 우리의 전통 리듬과 소리, 몸짓으로 풀어낸 신체극 '비나리'.
· 작, 연출/이정남
· 안무/홍순아
· 출연/심미란, 조영미, 배문수, 박석재, 박재우, 박강록, 정재욱

5월 가정의 달 특별공연

동춘서커스-테마서커스 NEW 홍길동

5월 11일 토요일 오후 1:00,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석 3만원 · R석 2만원
A석 1만원(자녀를 동반한 3인이상 가족권 25% 할인)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련한 동춘서커스 부산공연. 1925년 창단 이후 한국 곡예의 자존심을 지켜온 동춘서커스단은 이번 무대에서 공중 아크로바틱, 저글링, 자전거 묘기, 변검 등 다양한 공연과 묘기를 선보인다.

가족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5월 12일 일요일 오후 4:00,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VIP 7만원 · VIP 5만원
R석 3만원 · S석 2만원
문 의 | 극단 옘스(010-3689-8067)

예사랑 영어 뮤지컬스쿨 대표로 있는 소프라노 장은영과 바리톤 김상효, 메조소프라노 박소연과 예사랑 영어 뮤지컬스쿨 학생들이 선보이는 영어뮤지컬 .
· 연출/김성경(오페라 제작소 밤비니 대표)

유기농 로멘스연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5월 17일(금)-7월 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AN아트홀.광안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플레이 더 부산(1600-0316)

짠한 슬픔과 유쾌한 웃음이 공존하는 스토리와 라디오와 현실, 현재와 미래를 오가며 진행되는 빠른 극 전개, 상상력 넘치는 무대장치로 극의 재미를 더해주는 유기농 로맨스극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뮤지컬 '사랑할까요?'

5월 17일(금)-6월 9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611-8518)



인간의 일상을 통한 삶의 부조리를 명쾌하게 그려낸 머레이 쉬스갈의 부조리 코미디극 '타이피스트'를 흥겨운 음악과 배우들의 코믹스런 연기로 재탄생시킨 뮤지컬 '사랑할까요'.
· 연출, 작사, 작곡/김만중

가족뮤지컬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엄마'

5월 18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9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무엇이든 빨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우연히 빨래 줄에 걸린 도깨비를 빨아버린다는 내용의 재미있는 가족뮤지컬.

한결아트홀 개관기념 초청공연 탈선 춘향전

5월 24일(금)-6월 2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 대학생 2만 5천원
초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1588-9155,
www.hangyeolarthall.com)



가마골소극장이 밀양연극촌으로 이전하면서 새롭게 문을 연 한결아트홀 개관기념 초청공연.
가진 자와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 방자를 통해 가진 자에 대한 야유와 조롱을, 춘향의 욕설을 통해 가부장적 남성사회에 대한 저항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탈선 춘향전'을 선보인다.
· 원작/이주홍 · 재구성 극본, 연출/이윤택
· 출연/김미숙, 김미혜, 이혜민 외

어린이뮤지컬 '잭과 콩나무'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26일 일요일 오후 12:00, 2: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805-5355)

하늘높이 솟아오른 콩나무를 타고 하늘나라로 가게된 잭의 신기한 모험담을 그린 어린이뮤지컬.

Dance

댄스 앳지 Dance-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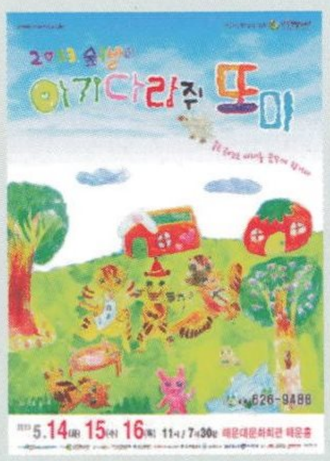
5월 1일 수요일 오후 8:00, 4일 토요일 오후 4:00,
7일 화요일 오후 8:00 LIG아트홀 부산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LIG아트홀
(1544-3922, www.ligarthall.com)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춤의 날(Dance-edge)을 세우고 있는 개성 강한 현대무용가들을 소개하는 기획공연.
▶1일 프로그램
예효성 & 류장현 & 금배섭 '나는 사람입니다'(안무/예효성, 류장현, 금배섭)
두 댄스 씨어터 '시간은 두 자매가 사는 서쪽 마을에서 멈추었다'(안무/정영두)
▶4일 프로그램
밝넝쿨&이은경 'Hard Duo'(안무, 출연/밝넝쿨, 이은경)
M[note 현대무용단 '차리다'(안무/신승민)
▶7일 프로그램
이선아 'Touch!'(안무/이선아, 사운드 디자이너/지미 세르)
장정희 '평행-선 線'(안무/장정희)
그라운드 제로 프로젝트 '동행'(안무/전혁진)

2013 숲속발레 '아기다람쥐 또미'

5월 14일-16일 화-목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2만원(전화예매시 20% 할인)
문 의 | 김옥련발레단(626-9486, 010-2579-9486)



어린이 창작 가족발레의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김옥련 발레단의 2013 숲속발레 '아기다람쥐 또미'. 맹목적인 개발에 밀려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숲속 친구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 연출/유상흘 · 안무/김옥련

춤남 10주년 기념 전통춤판

5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춤추는남자들(010-6711-3922)



부산 지역 남성 무용수들의 춤 잔치 '춤추는 남자들' 1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춤판 무대.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승조교 이진호를 비롯해 류재철(진주삼천포농악 소고이수자), 황해순(부산예술대학교 교수), 최병재(국립국악원 무용단 수석), 강동옥(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이강용(통영오광대 전수교육조교), 남기성(연출가, 춤꾼), 이상열(수영야류 말뚝이, 할미 역 이수자) 등이 출연, 멋과 신명이 넘치는 우리 전통춤을 선사한다.



프랑스 현대무용을 대표하는 마기마랭 무용단의 예술감독 마기마랭은 줄거리 없는 동작과 대사, 한편의 부조리극 같은 실험적인 춤으로 호평받아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암울한 유럽의 현실을 소재로 한 2010년 초연작 '총성'을 선보인다.

Movie

제30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5월 2일(목)-6일(일) 영화의전당 중극장 · 소극장 · 시네마테크, 중구 롯데문화홀
입장료 | 개막식 7천원 · 폐막식 무료
일반 상영작, 초청작 5천원
문 의 | 부산국제단편영화제
(742-9600, www.bisff.org)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단편영화제로,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의 단편영화를 발굴, 소개해온 부산국제단편영화제.

Event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제121회 시울림 시낭송회

5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 초대시인/박정애, 정경수, 우아지, 송진, 최승아, 이지인
· 오카리나 연주/고금란(소설가)

감동이 있는 시낭송회
제7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5월 18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010-6367-0149)

2013 영화의전당 두레라움 Spring & Summer
마기마랭 탄츠 테아터 내한공연 '총성'

6월 1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 S석 6만원 · A석 4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780-6000)

무지크바움 제2차 음악교양강좌
'자유와 생존 : 음악가의 이상과 현실'

5월 2일(목)-30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1회 수강료 7천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부산시민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음악평론가인 김창욱의 해설로 진행되는 무지크바움 제1차 음악교양강좌.

· 2일 파리 상류사회의 피아니스트:쇼팽
· 9일 분방한 사회인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리스트
· 16일 이탈리아가 낳은 오페라 스타:베르디
· 23일 오페라 혁명가, 그러나 타고난 바람둥이:바그너
· 30일 슬라브의 국제주의자:차이코프스키

2013 조선통신사 축제

5월 3일(금)-5일(일)
용두산공원, 광복로 일대, 부산시청 국제회의실
문 의 | 부산문화재단
(631-0858, www.tongsinsa.com)



조선시대 한 · 일 양국의 평화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2013 조선통신사 축제.
일본으로 떠나는 조선통신사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례의식을 재현한 해신제를 비롯해 대규모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학술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2013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5월 4일(토)-1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야외무대
입장료 | 균일 2만 5천원(야외공연은 무료)
문 의 | 극단 맥(625-2117)

거리공연예술이 드문 부산에 열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축제 2013 부산공연예술축제 'MAC OFF FESTIVAL'.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7일(화) 허경미무용단 'Red-Step'

2011년 부산무용제 대상, 전국무용제 은상을 수상한 춤꾼 허경미가 이끄는 무용단 Red-Step의 무대.

프로그램

진화(안무/허경미), 명-鳴, 明(안무 및 출연/이연정)

Mr. nobody(안무 및 출연/신승민)

신곡 · 身哭 · 몸으로 우는 울음(안무/허경미)

►9일(목)-10일(금)

프랑스 극단 EN AVOIR OU PAS '락 아이덴티'

짐 모리슨, 커트 코베인, 버트 란드 등 세명의 남성 록스타의 삶과 음악을 퍼포먼스화한 특별한 무대.

►11일(토) 뉴프라임오페스트라 '샌드아트와 함께 하는 이야기 음악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귀에 친숙한 클래식곡과 신기한 샌드 애니메이션이 함께하는 이색무대.

· 연주/뉴프라임오페스트라

· 샌드 애니메이션/윤혜진

►12일(일) 극단 맥 '비나리'

동해안 별신굿을 토대로 우리의 전통 리듬과 소리, 몸짓으로 풀어낸 신체극.

–동래문화회관 야외무대–

►4일(토)-5일(일) 오후 5:00 '거리춤'

►6일(월) 오후 7:00 민속무용 '전통'

►7일(화) 오후 7:00 '거리춤'

►8일(수) 오후 7:00 민속무용 '전통'

►9일(목)-10일(금) 오후 7:00 거리극 '시골동화'

2013 부산연극제 참가작인 '시골동화'를 거리극으로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우리의 토착신앙과 관혼상제, 상여놀이, 거리악사 등을 모티브로 1960~70년대 시골풍경을 만날 수 있다.

►11일(토)-12일(일) 오후 5:00 '거리춤'

Zonk movement '미미, 철수, 그리고 얄개들', 댄스컴퍼니 줄라이 '지지리 부탁해요' 공연.

詩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32회 시낭송회

5월 28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詩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867-2569)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 청소년, 어버이'라는 주제로 50여명의 시인이 자작시를 들려준다.

Gallery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기획전
함께 자라는 아이들- 똑똑! 여우야 뭐하니?

3월 23일(토)-7월 28일(일)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어린이미술관(740-4244)

2013년 TOYOTA PHOTO SPACE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靑사진
정경자展 'stoyr within a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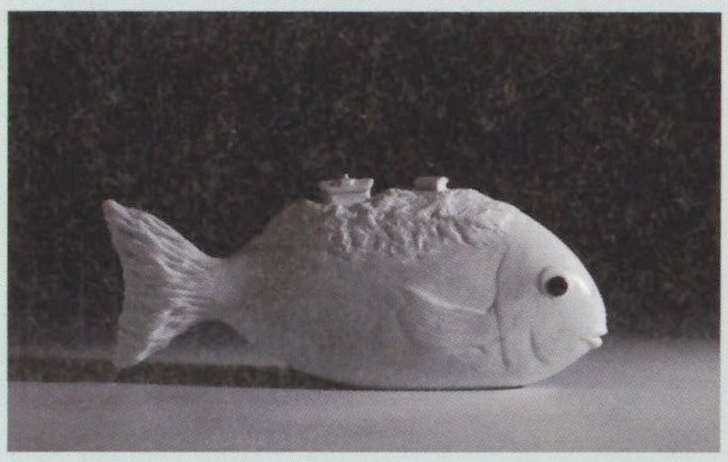
3월 29일(금)-5월 20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김재호 조각초대전

4월 30일(화)-5월 26일(일) 갤러리 예가

갤러리 예가(624 0933)



대전에서 조각 공부를 한 부산출신 작가 김재호가 어릴 때 백사장에서의 생각과 상상을 조각화한 작품을 선보인다.

박영상展 'Repose-휴식'

5월 1일(수)-5월 31일(금) 갤러리 아인

갤러리 아인(747-2612)

서양화 유명작가 10인전

5월 1일(수)-5월 19일(일) 타워갤러리

타워갤러리(464-3939)

김덕기 초대전 '행복한 마을로 가는 길'

5월 2일(목)-6월 17일(월) 소울아트스페이스

소울아트스페이스(731-5878)

강미령 개인전

5월 6일(월)-6월 1일(토) 갤러리 움

갤러리 움(557-3369)

우리에게 익숙한 사물들의 이미지를 통해 각박해진 삶 속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강미령 개인전.

광주민주항쟁 33주년 기념 고은사진미술관 기획전
그날의 훌라송

5월 18일(토)-7월 31일(수)

고은사진미술관, 고은 컨템포러리 사진미술관

고은사진미술관(746-0055)



강홍구 作 '도망자4'

198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 ·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사진은 어떻게 목격했고 기억해왔으며, 재현해왔는가를 조명한 기획전.

· 참여작가/강홍구, 권순관, 김은주, 김혜선, 나경택, 노순택, 오석근, 오형근, 이상일, 이창성, 조습

2013년 TOYOTA PHOTO SPACE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靑사진
차경희展 '생의 터, 사이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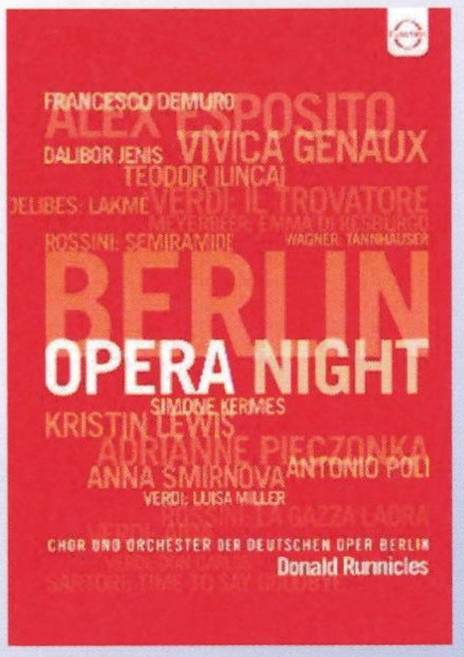
5월 24일(금)-7월 15일(월)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

토요타 포토 스페이스(731-6200)

자연이라는 공간과 인간의 보편적 기억 사이에서 포착되는 예민한 감수성을 담은 작가 차경희 작품전.

New Music

문희정_지엠뮤직



베를린 오페라의 밤 갈라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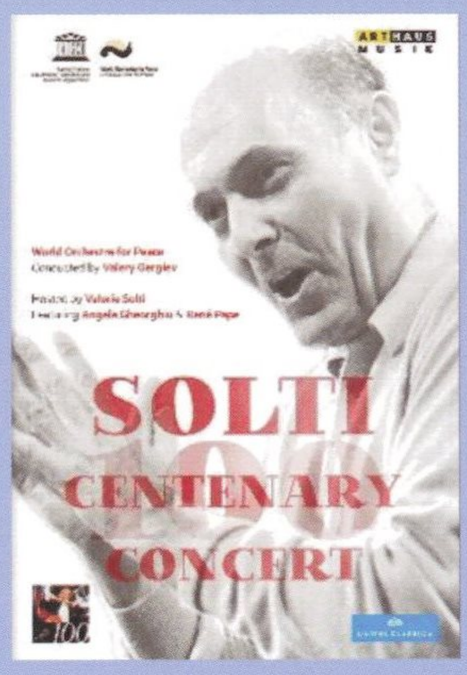
지모네 케르메스, 크리스틴 루이스, 아드리안 피에촌카, 비비카 주노, 프란체스코 데무로 달리보르 예니스, 안토니오 폴리 외/도날드 러니클스(지휘)/베를린 도이체오퍼 관현악단과 합창단

▶ AIDS 기금 마련을 위한 차세대 오페라 스타들의 화려한 갈라 콘서트

독일에서는 해마다 독일 AIDS 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쟁쟁한 오페라 스타들이 참여하는 자선 콘서트가 펼쳐진다. 이 영상은 2011년 11월 5일 베를린 도이체오퍼에서 펼쳐졌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으로, 도이체오퍼의 수장 도날드 러니클스의 지휘 아래 유럽의 일급 오페라 무대들에서 활약 중인 10명의 차세대 오페라 스타들이 참여하여 저마다의 빼어난 가창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하였다. 화려한 기교로 유명한 지모네 케르메스와 비비카 주노가 '라 크메' 중의 '꽃의 이중창' 에서 호흡을 맞췄고, 루마니아의 신성 테오도르 일린카이가 '토스카' 의 '별은 빛나건만' 을, 미국의 기대주 크리스틴 루이스는 '아이다' 중 '오, 나의 조국이여' 를, 러시아의 메조소프라노 안나 스미르노바는 '돈 카를로' 의 '내 미모를 저주한다' 등을 노래하였다. 도이체오퍼 합창단이 장엄하게 노래하는 '탄호이저' 의 '축전 행진곡' 과 사라 브라이트만과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유명한 'Time to Say Goodbye' 를 모든 출연진이 함께 노래하는 마지막 무대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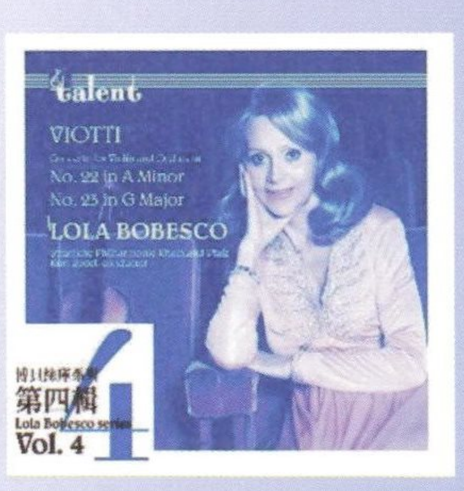
게오르그 솔티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DVD)

안젤라 게오르규(sop), 르네 파페(bass) 외/발레리 게르기에프(지휘)/월드 오케스트라 포 피스



▶ 게오르그 솔티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

2012년 10월 21일은 20세기를 대표했던 마에스트로의 한 사람이었던 게오르그 솔티의 100번째 생일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하여 시카고의 심포니 센터에서는 미망인 발레리 솔티 여사가 주관하는 뜻 깊은 콘서트가 펼쳐졌다. 생전에 솔티가 '음악을 통한 세계평화' 를 목적으로 각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서 창단했었던 특별한 비상설 악단인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 가 솔티의 뒤를 이어서 이 악단을 이끌고 있는 발레리 게르기에프의 지휘 아래서 호흡을 맞추었고, 솔티를 통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발돋움했었던 안젤라 게오르규와 르네 파페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 아카데미아가 배출한 젊은 기대주들이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각국의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월드 오케스트라 오브 피스의 걸출한 연주력을 실감하게 하는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으로 콘서트가 마무리된 이후, 앙코르로 연주된 수자의 '성조기여 영원히' 에서는 과거 솔티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던 시카고 심포니의 전직 수석들이 함께 참여하여 감동적인 무대를 연출하였다.



비오티 바이올린 협주곡 제22번 & 23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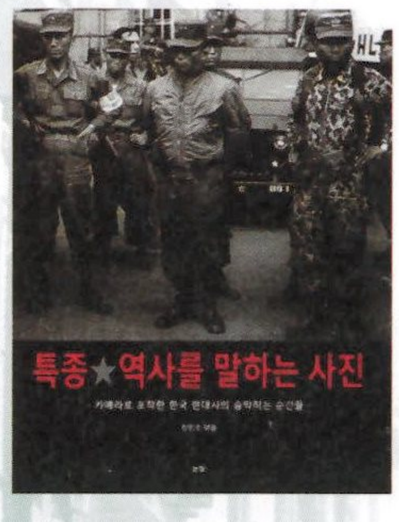
롤라 보베스코(바이올린)/쿠르트레델(지휘)/세인트 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

비오티(Giovanni Battista Viotti)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걸쳐 이름을 드높였던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궁정음악가, 작곡가였다. 그가 남긴 29개의 바이올린 협주곡 중 22번은 바이올린 지망생이라면 거쳐야 하는 대중적인 작품이기도 하다. 브람스는 비오티의 22번 협주곡에 감명받아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우아한 선율이 아름답다. 23번 협주곡 또한 비오티 특유의 유려하고 우아한 선율미로 가득하다. 섬세한 여성적 감성으로 노래하듯 들려주는 루마니아의 명바이올리니스트 롤라 보베스코의 연주는 모범적이어서 누구에게나 적극 권할 수 있다.

Music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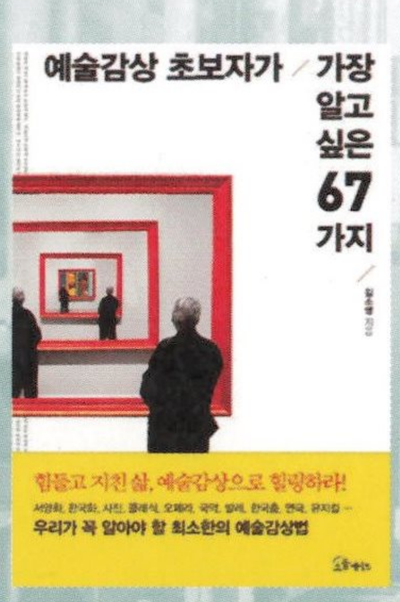
New Book
박현주_북칼럼니스트



특종 역사를 말하는 사진

전민조 지음 / 눈빛 / 136p / 2만 5천 원

"아무리 열심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도, 신문을 읽는 독자들은 '사진 잘 나왔네' 라는 말만 하더라." 신문기자들은 가끔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다. 취재하느라 뛰어다니고 글 쓰느라 머리를 싸맸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억울한 심정도 들지만, 그런 말을 하는 기자 자신도 신문을 펼칠 때면 사진에 자연스레 눈이 먼저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이 책은 카메라로 포착한 한국 현대사의 숨 막히는 순간들을 담았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들은 많지만, 그 책을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독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사진은 다르다. 구구한 설명 한 줄 없어도, 그 때 그 순간을 간단 명료하게 전달해 준다. 어떤 사진은 한 권의 책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있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순간을 사진으로 담은 책이다. 비운의 무용가 최승희, 불이 난 건물에서 떨어지다가 거꾸로 매달리게 된 기적의 소녀, 6 · 25 직후 직업을 구하는 절박한 모습의 청년 등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흑백사진들과 그에 대한 설명, 사진작가의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촬영기능이 있는 손전화로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고, 또 삭제하는 요즘 세상에서 사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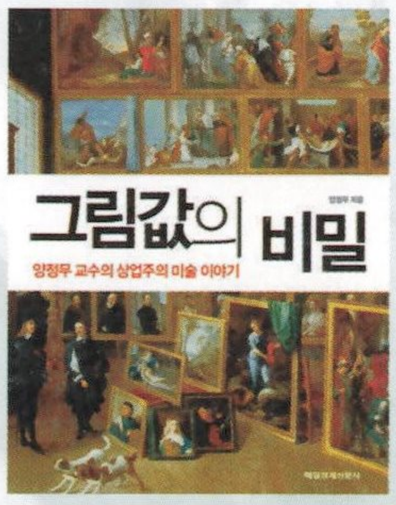
예술 감상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67가지

김소영 지음 / 소울메이트 / 380p / 1만 8천 원

예술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이야기에 맞추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가 인간 말고 또 있을까. 예술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고, 내면을 성숙시키며, 행복을 느끼게 한다. 시 한 구절에서 위안을 얻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며 실컷 웃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술은 인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각박한 현실을 견디는 힘을 준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예술은 인간의 영혼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은 때로 낯선 모습으로 인간을 괴롭힌다. 이게 뭐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야? 무슨 의미이지? 예술 앞에서 한 번 쯤 이런 생각을 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MBC에서 9년 가까이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저자는 이 책에서 서양화, 한국화, 클래식, 사진, 오페라, 국악, 발레, 뮤지컬, 연극 등 예술장르를 망라해 감상하고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예술 감상을 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상식으로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만한 내용을 각 장르별로 엄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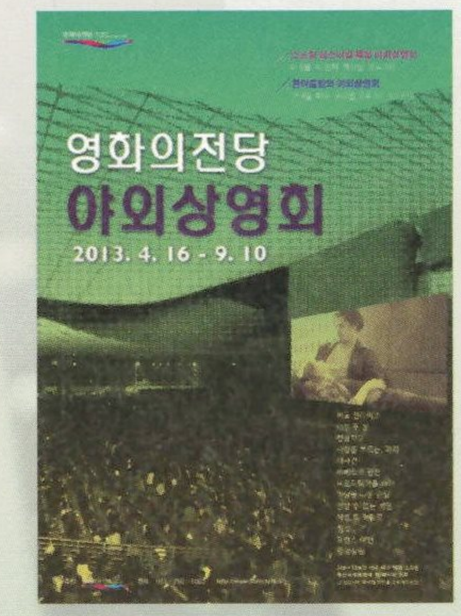
그림값의 비밀

양정무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311p / 2만 원



최고의 경매가 운운하며 유명화가의 그림이 팔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가격이 형성되는 건지 궁금하다. 화가가 유명해서 그런지,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또 다른 까닭이 있는지. 뿐만이 아니다. 그림값은 언제 오를까? 어떤 그림이 명작이 되는 것일까? 얼마 정도면 그림 한 점을 살 수 있을까? 등등 생각할수록 그림에 대해 궁금한 점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주변에서 실제로 그림을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미술 경매에 참가했던 이들은 극히 소수이다. 그림은 가장 고고하고 심미안적 예술인 동시에, '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마주하는 작품들은 작가의 손에 완성된 수많은 작품 중 컬렉터들에 의해 선별되어 값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화가의 뒤에서 오히려 작가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미술 시장을 흔드는 '컬렉터'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미술이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 그리고 화가와 컬렉터를 연결해 주는 그림 상인, 즉 아트딜러의 원초적 본능을 짚어보면서 그림값이 결정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책이다. 미술 시장의 역사적 전개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인간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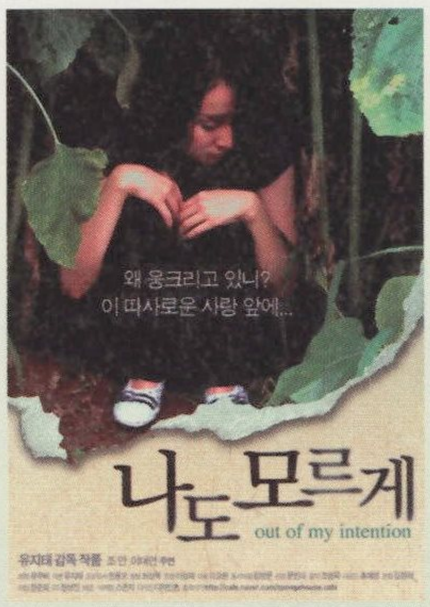
Special Movie



2013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

4월~9월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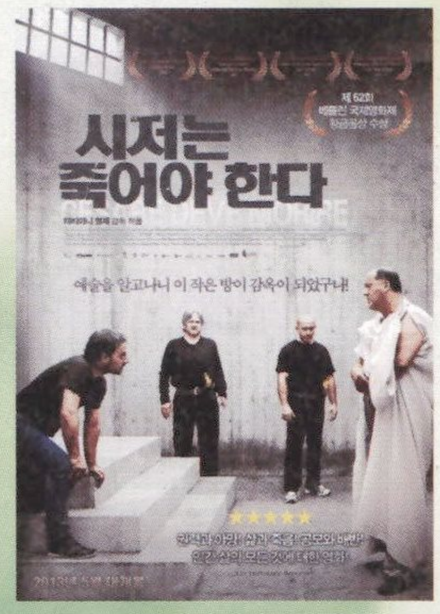
지난 여름, 시원한 밤바람과 함께 명작의 감동을 선사했던 영화의전당 야외상영회가 2013년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펼쳐지는 '2013 스프링 페스티벌 특별 야외상영회'에서는 4월 16일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영화 '비포선라이즈'를 시작으로 5월 21일 아기의 눈을 통해 바라본 가족간의 사랑을 그린 이치카와 곤 감독의 '나는 두 살', 6월 18일 유덕화, 오천련 주연, 진목승 감독의 애절한 사랑이야기 '천장지구'가 상영된다. 7월부터는 영화의전당 여름 대표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았던 '한여름밤의 야외상영회'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야외극장에서 펼쳐진다. 세드릭 클라피쉬 감독의 로맨틱 영화 '사랑을 부르는, 파리', 두기봉 감독의 액션 스릴러 '대사건', 가브리엘 액셀 감독의 명작 '바베트의 만찬', 우디 앨런 감독의 코미디영화 '브로드웨이를 쏴라', 오성윤 감독의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 주걸륜 감독의 음악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이누도 잇신 감독의 감동드라마 '메종 드 히미코', 청펀펀 감독의 멜로영화 '청설', 레지스 와그니어 감독의 고전 '프랑스 여인',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중경삼림'까지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영화들을 대형스크린과 최신식 영상음향장비를 통해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인디스데이 : 독립영화정기상영회 인디스데이 스페셜 2–스타, 감독이 되다

5월 13일(월), 20일(월) 오후 8:00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영화의전당이 매주 월요일 저녁 마련하는 '인디스데이: 독립영화정기상영회'에서는 최신 독립영화 및 화제의 독립영화, 그리고 과거 걸작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영화까지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전위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독립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4월 현재 주목받고 있는 감독들의 단편영화를 소개했던 스페셜 상영 첫 번째 '감독, 그들의 단편영화'에 이어 5월에는 최근 연기자에서 감독으로 거듭난 배우들의 단편작품들을 소개하는 스페셜 상영 두 번째 '스타, 감독이 되다'가 마련된다. 최근 해외영화제에서 연이어 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는 유지태 감독의 첫 사랑에 관한 영화 '나도 모르게'와 연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똥파리'의 감독 양익준의 데뷔작 '바라만 본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한국단편 경쟁부문에 출품된 윤은혜 감독의 첫 연출작 '뜨개질', 2009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관객상 수상, 2010 도쿄국제영화제 '쇼트쇼츠 페스티벌&아시아' 화제상을 수상한 구혜선 감독의 데뷔작 '유쾌한 도우미', 방은진 감독의 두 번째 단편영화 '날아간 뻥튀기', 영화 '똥파리' '너와 나의 21세기' 등에 출연한 이환 감독의 데뷔작 '지랄' 등이 상영된다. 5월 13일에는 '바라만 본다' '뜨개질' '유쾌한 도우미'를, 20일에는 '나도 모르게' '날아간 뻥튀기' '지랄'을 만날 수 있다. 선착순 무료.





2012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시저는 죽어야 한다'

5월 2일 개봉 CGV서면

1977년 영화 '파드레 파드로네'로 칸영화제 최초로 황금종려상과 비평가상을 동시에 석권한 이탈리아의 형제 감독 파올로 타비아니와 비토리오 타비아니의 신작 '시저는 죽어야 한다'는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셰익스피어의 연극 '줄리어스 시저'의 오디션에 도전, 배역을 따낸 죄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탈리아 레비비아 교도소에 복무중인 실제 수감자들을 캐스팅해 화제가 된 작품으로, 죄수들은 연극 연습에 몰입할수록 자신의 배역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음모를 꾸미고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을 연기하면서 살인에 대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교도소나 범죄자들의 교화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셰익스피어 희곡의 주인공들은 항상 비극적인 운명의 늪에 빠져 고뇌하고 갈등하는데, 범죄자들일수록 이런 작품 속 주인공들에 쉽게 동화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셰익스피어 효과'라고도 하는 이 같은 재미있는 이론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영화 속 재소자들 역시 연극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삶의 이유와 예술의 고결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 타비아니 형제는 이번 영화로 2012년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Event

Special Event

부산 박종호 클래스

클래식 음악의 전도사 '풍월당' 대표 박종호의 해설로 진행되는 부산 박종호 클래스 2013년 봄학기 강좌가 3월 8일 개강, 오는 7월 12일까지 펼쳐진다. 오페라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향된 지식을 바로잡고자 3년 전부터 부산에서 오페라 강의를 가져온 박종호는 올해부터는 예술 전반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자 클래식 강의도 병행하면서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2003년 우려와 찬사를 동시에 받으며 클래식음반 매장 풍월당을, 2007년 만류와 반대를 무릅쓰고 풍월당 아카데미를 설립한 박종호 대표는 풍월당 아카데미가 고양된 정신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적 장소가 되기를 꿈꾸며 서울 풍월당 아카데미와 부산 박종호 클래스를 매주 오가며 강의하고 있다. 올해 봄학기 강좌에서는 바그너 탄생 200주년의 해를 맞아 바그너 특집 '니벨룽의 반지' 외에도 엘 시스테마, 탱고, 베르디, 페르골레지, 베토벤, 슈베르트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강의는 매주 금요일 경성대학교 28호관 옆 디지털 이미지홀 2층에서 열리고, 오전 10시에는 오페라반이, 오후 1시 30분에는 클래식반이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풍월당 아카데미(02-512-2356)로 문의하면 된다.

2013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2기 모집



'카메라를 든 당신', 선택의 순간과 직면하다.

넓은 강의실과 최신장비는 물론, 다양한 영상자료와 문헌자료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재)영화의전당이 '2013 다큐멘터리 제작 워크숍' 2기생을 모집한다. 지난해 여름, 6편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하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소통했던 1기에 이어 올해는 김지곤 다큐멘터리 감독의 지도로, 다큐멘터리의 이론적 정의에서부터 기획서 및 구성안 작성, 촬영, 편집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제작을 직접 배울 수 있다. 영화를 사랑하는 일반인 및 영화 관련 전공자 모두 수강이 가능하며 특히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심이 많거나 자신만의 영상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 혹은 카메라와 편집프로그램 조작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도 좋은 기회이다. 워크숍 참가비는 일반 24만원, 학생 22만원이며, 강의는 5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 7시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 강의실 A에서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며 수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전화 780-6053이나 홈페이지 www.dureraum.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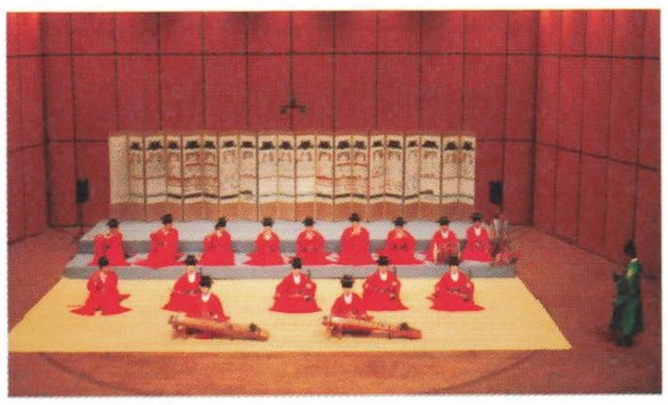
BS금융그룹 청년작가 미술공모전



지난 2011년 4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의지와 지역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중구 신창동에 BS부산은행 갤러리를 개관했던 BS금융그룹이 지역의 젊은 미술인들의 창작의지를 높이고자 지역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 지원부문은 한국화와 서양화 두 부문으로, 1974년에서 1993년 사이 출생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작가면 응모할 수 있다. 6월 2일까지 작품사진 접수를 먼저 받으며, 실물작품은 6월 11일까지 중구 신창동 BS부산은행 갤러리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심사결과는 작품사진 심사와 실물심사 등을 거쳐 7월 2일 시상식을 통해 발표한다. 대상 1명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35명에게 5,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은 BS부산은행 갤러리에서 6월 17일부터 2주간 일반시민들에게 공개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BS부산은행 갤러리 246-8975 혹은 홈페이지 www.bsballer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SAN CULTURAL CENTER
NEWS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광부 50주년 기념 외교통상부 전국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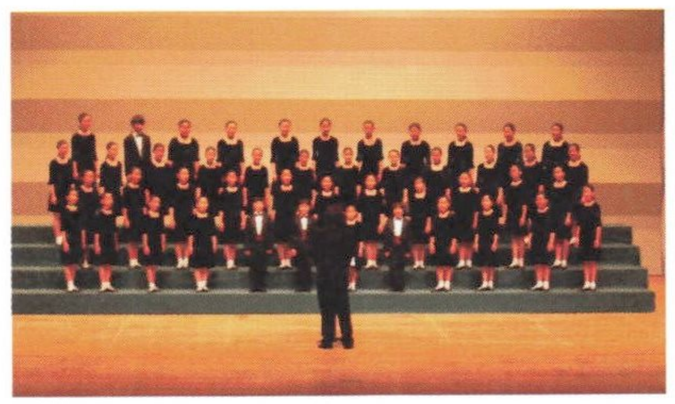


부산시립국악현악단이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광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자체 공연단 해외 파견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 6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역사적인 독일 공연길에 오른다.

2차에 걸친 경합으로 대외적인 활동성과 연주력,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구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은 6월 11일 독일 뒤셀도르프 로버트 슈만홀과 15일 독일 함부르크 콩그레스 센터에서 한-독 수교 130주년 및 파독 광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를 갖는다.

이번에 독일에서 선보일 프로그램은 채수만 악장의 집박으로 여는 수제천을 비롯해 김철호 수석 지휘자가 지휘하는 백대웅 곡 '남도 아리랑', 박범훈 곡 '사물놀이를 위한 협주곡 신모듬',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아리랑, 아리랑, 들장미, 노래는 즐겁다, 즐거운 여행자 등 양국 민요 모음, 부산시립무용단 훈령지도자 서정숙 외 8명의 단원들이 선보이는 소고춤, 부채춤 등으로 화려한 우리 음악과 춤사위를 선보인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독일, 체코 순회 공연개최



2013년 창단 40주년을 맞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5월 3일부터 13일까지 독일과 체코 초청 연주를 갖는다.

지난해 제33회 할레청소년합창페스티벌 우승을 계기로 올해 열리는 제34회 페스티벌 축하공연을 위해 독일 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할레청소년합창페스티벌 외에도 부산시와 자매도시인 함부르크한인회, 드레스덴한인회, 체코한인회의 요청을 받아 창단 40주년을 기념을 하는 역사적인 순회연주회를 갖는다.

5월 3일 수석지휘자 전상철과 9박 11일의 일정으로 독일 순회연주길에 오르는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5월 4일 제34회 할레청소년합창페스티벌 거리퍼레이드 공연과 연합합창, 5월 5일 Konzerthalle Ulrichskirche에서 열리는 폐막 공연을 가진 후 함부르크로 이동, 7일 Petruskirche(함부르크), 9일 Barockgarten Groß sedlitz Oranagerie(피르나), 10일 Dreiköningskirche(드레스덴), 11일 Kostel sv. Simona a Judy(체코 프라하)에서 공연을 펼친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이번 독일, 체코 순회연주회에서 헨델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하소서'를 비롯해 페르골레지 '슬픔의 성모' 중 '성모는 서 계시다, 내 육신이 쇠할지라도', 이영조편곡으로 선보이는 한국가곡과 독일가곡 '아리랑고개위의 들장미' 창작전래동요 '둥개둥개 둥개야', 전통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5월 찾아가는 예술단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 5월 일정이 확정되었다. 지역 구문화회관을 순회하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천원의 행복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5월에는 5월 2일 부산뇌병변복지관 꿈나무소망심기 공연을 시작으로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내사랑 부산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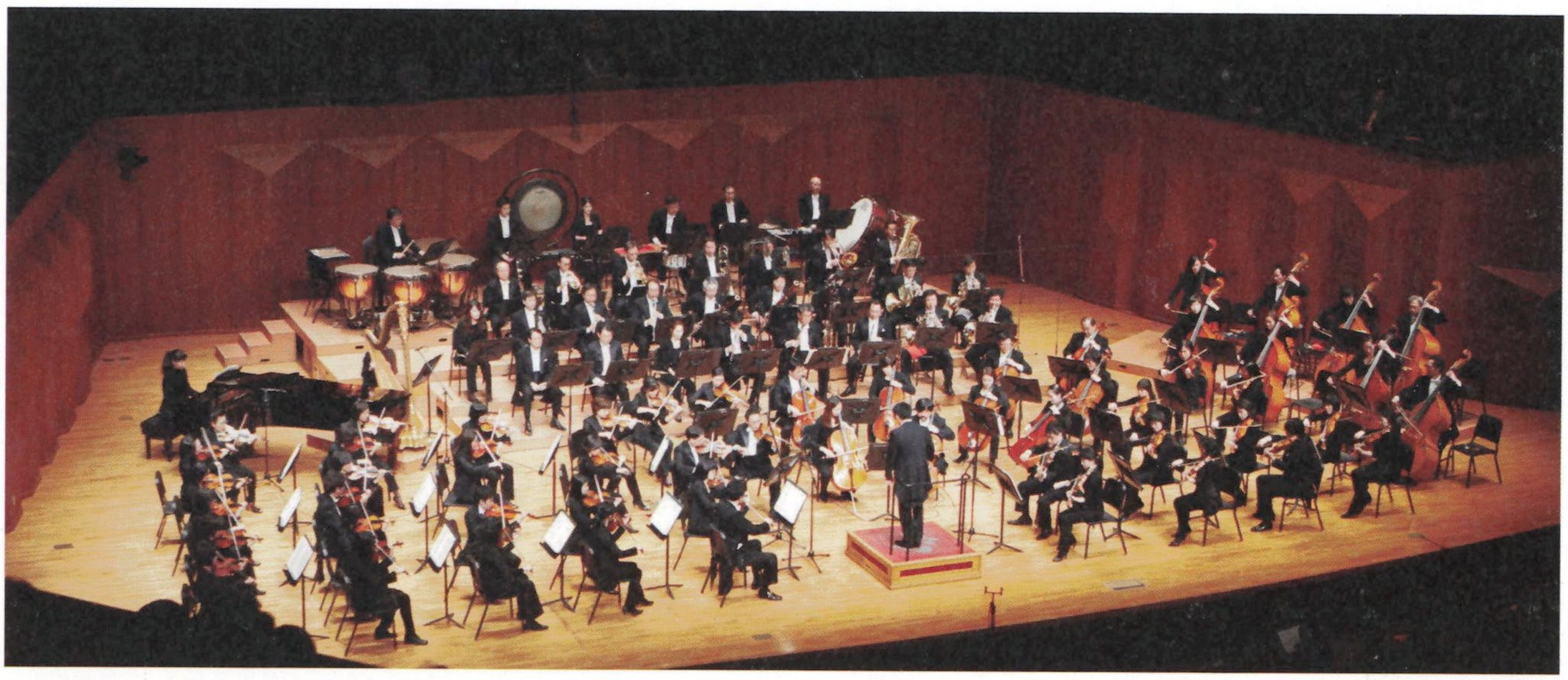
5월 2일(목)	17:00 부산뇌병변복지관	꿈나무소망심기 공연	'뇌병변 장애어린이 꿈나무음악회'(출연/교향악단)
5월 3일(금)	11:00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경로 음악회'(출연/국악관현악단)
5월 8일(수)	12:30 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5월 22일(수)	12:30 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교향악단)
5월 23일(목)	11: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공연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축하공연'(출연/합창단)



문의_ 부산문화회관(607-6046)

BUSAN CULTURAL CENTER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부산연주인시리즈' 출연자 모집



○ 모집부문

2014년 부산시립교향악단 공연에 출연할 객원 지휘자, 협연자 및 연주될 창작곡

▷ 지휘, 성악, 피아노, 관현악, 타악, 작곡

※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 후 연주 일정 불가시 익년으로 연기할 수 있음.

○ 자 격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서 음악활동 및 창작활동을 하고있는 음악인 또는 부산 출신의 음악인(나이제한 없음)

○ 심사방법

▷ 지휘자 및 협연자

· 1차-서류 및 자료심사

· 2차-실기전형 ▶ 1차 합격자에 한해 전형일 통지

▷ 작곡가 : 창작곡 심사

· 창작곡은 공고일 현재 필히 미발표작일 것

· 10분 내외의 관현악곡(3관 편성 이내)

· 최종합격자는 연주 3개월 전까지 악보(지휘총보 및 파트보) 제출

· 선정된 작품 연주 시, 소정의 작품 사용료 지급

○ 발 표 심사 후 개별통지 (합격자에 한함)

○ 문 의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607-3111~3

○ 제출서류

▷ 공통

1. 이력서 또는 프로필 1부 (사진부착, 연락처 반드시 기재)
2. 부산연주인시리즈 자격 증명 서류 ▶ 아래 3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초본) ▶ 부산 거주 또는 출신 증명
   · 최종학력증명서 ▶ 부산 소재 학교 증명
   · 재학(재직)증명서 ▶ 부산 소재 학교 또는 기관 증명
3. 콩쿠르 입상 증명 서류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지휘자 및 협연자

· 연주실황 DVD (없을 경우 CD) 1매 ▶ 프로그램 첨부 要

▷ 작곡가

· 창작곡(지휘자용 총보) 1부 ▶ 데모 CD(음원) 첨부 要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간

▷ 지휘자 및 협연자 – 2013. 5. 20(월)~5. 30(목) 17:00까지 도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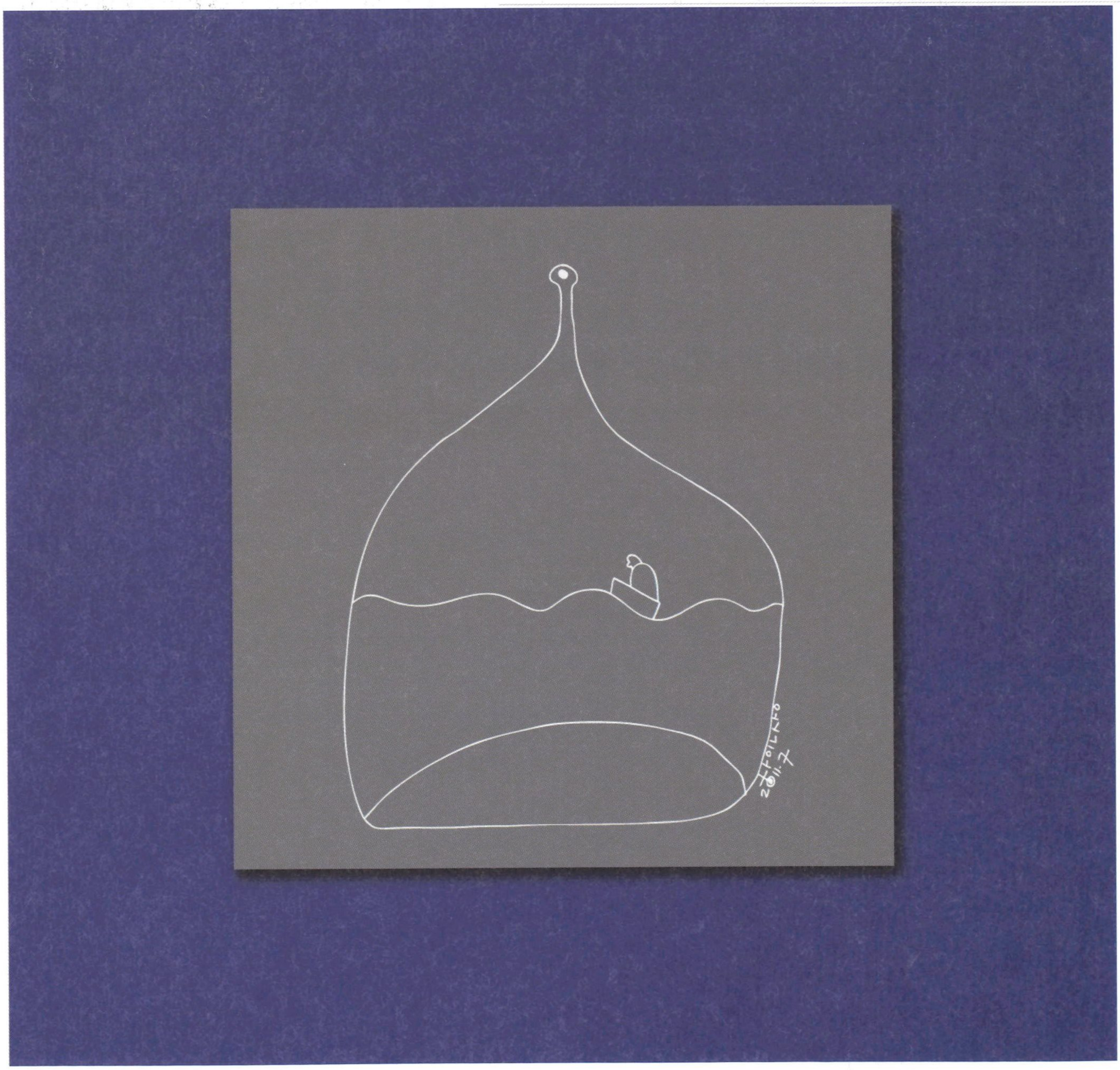
▷ 작곡가(창작곡) – 2013. 9. 9(월)~9. 13(금) 17:00까지 도착분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장소 부산문화회관 관리동 1층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실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1)

하인상의 생각그림
Metaphortoon

흐르다 I　봄이 오락가락 흐른다. 볕이 있으면 덥다가도 해가 빠지면 쌀쌀한 냉기가 돈다.
그래서 인지 퇴근길 소주 한잔이 더욱 그리워진다　메타포투니스트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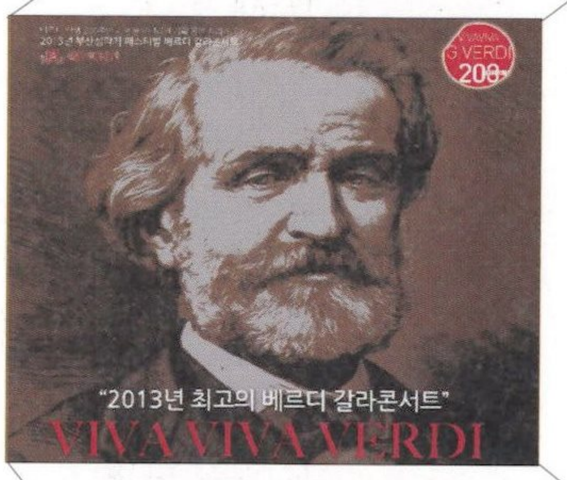
흐르다 I 90×90 paper on silk screen printing



프랑스 최고의 샹송 뮤지션 무롱 콘서트

좀처럼 쉽게 접할 수 없는 샹송 콘서트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일찌감치 친구와 약속을 하고 그날을 기다렸다. 에디트 피아프를 잇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샹송가수라는 무롱. 가사 하나하나의 작은 뉘앙스까지 전달하는 듯한 풍부한 표정과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적인 몸짓에 공연 시간 내내 무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저 샹송이라면 '장미빛 인생' 밖에 모르던 나에게 샹송의 진수를 알려준 무대였다.

이정혜(서구 동대신동)



솔오페라단 베르디 갈라콘서트 'VIVA VIVA VERDI'

올해는 베르디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13년이 시작되고도 베르디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가 없어 아쉬웠던 차에 솔오페라단의 베르디 갈라콘서트가 열려서 무척 반가웠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나부코' '리골레토' '운명의 힘' 등등…. 이탈리아 정통 오페라라 할 수 있는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아리아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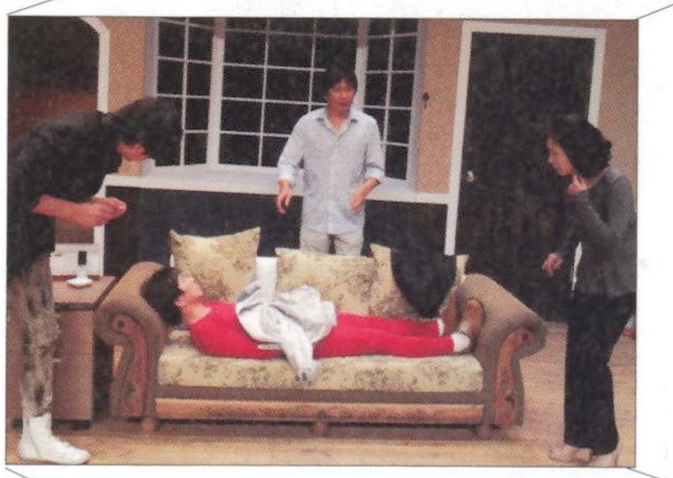
정미란(금정구 장전동)



탈핵SF마당극 'My name is KORI 넘버원'

'탈핵SF마당극'이라는게 과연 뭘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극장. '탈핵'을 내세운 작품답게 'My name is KORI 넘버원'은 그 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를 의인화시켜 핵발전소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주제와는 달리 무대는 만화적 캐릭터와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우리의 대동굿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객석에서는 연신 웃음이 터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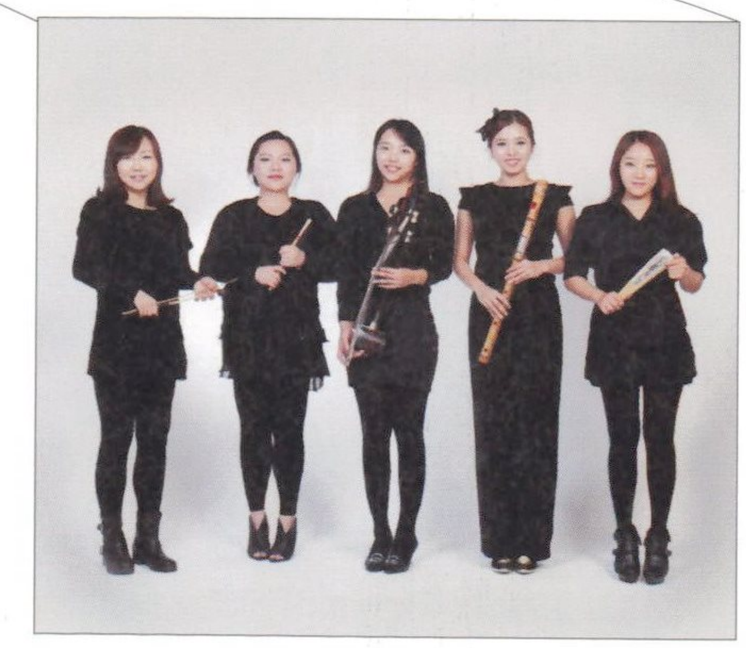
임선희(남구 남천동)



연극 '달콤한 수작'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는 그저 아무 생각없이 웃을 수 있는 연극 무대가 최고다. 예전 재미있게 봤던 연극 '라이어'를 떠올리며 선택한 작품은 '달콤한 수작'. 아뿔사, 근데 '라이어' 작가 레이 쿠니의 작품이 아닌 그의 아들 마이클 쿠니의 작품이란다. 그러나 왠걸, 아버지에 뒤지지 않는 코믹한 상황과 정신없는 캐릭터에 웃음이 빵빵 터진다.

박미정(강서구 대저동)



부산연극제 축하공연 뮤직팩토리 라라 '봄의 축제'

나른한 주말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부산시민회관으로 향했다. 부산연극제 축하공연으로 뮤직팩토리 라라 '봄의 축제'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국악하면 으레 따분한(?) 전통 음악만 생각하는데 여성 국악연주자들이 현대적인 감성의 창작국악곡으로 재미있는 무대를 들려주었다. 국악과 소리꾼, 테너, 어린이 중창이 빚어내는 따스한 봄날의 축제는 일상에 지친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이었다.

손현주(연제구 거제3동)

공연후기 '100자 토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100자 토크'는 예술에의 초대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5월호 '100자 토크' 공연후기를 보내주신분들에게는 부산국제연극제 초대권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Digilog"
2013. 5. 3(금) - 12(일)

보내실곳 bsculture@naver.com
마 감 수시모집 [원고를 보내실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3)

지난호정답

동	래	성	붉	은	꽃	■	모	비	딕
춘	■	■	은	■	■	화	차	■	■
서	핑	■	악	■	손	■	르	완	다
커	■	■	마	리	오	네	트	■	윈
스	토	커	■	■	공	■	■	아	■
■	스	■	샤	갈	■	어	즈	버	■
아	카	데	미	■	파	■	■	지	음
마	■	■	센	텀	시	티	■	■	표
존	레	논	■	블	■	저	작	권	■
■	옹	■	볼	링	■	■	법	■	징

4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남선향(남구 대연4동)
서주리(연제구 연제2동)
이경희(수영구 남천1동)
이호광(사하구 다대동)
정지수(동래구 복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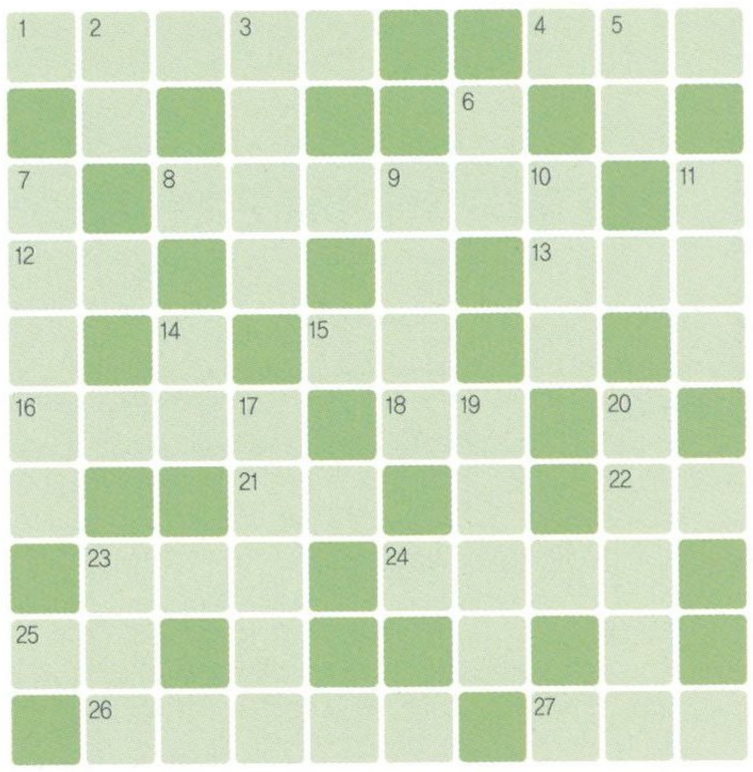
조은극장 초대권
김정화(중구 동광동1가)
백영주(해운대구 중동)
송영철(동구 수정동)
이미라(부산진구 부전동)
하영숙(남구 문현동)

큰집 식사권
김기영(연제구 거제1동)
박기성(북구 화명3동)
송민근(사하구 다대2동)
이선옥(남구 대연5동)
최은주(서구 서대신동)

부산국제연극제 초대권
김정애(영도구 동삼동)
문정숙(동래구 명장동)
이신혜(북구 구포동)
이유진(부산진구 초량동)
최영주(금정구 남산동)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부산국제연극제 | 051-714-6920

공간소극장 SPACE THEATER
BS 부산은행 조은극장
韓國傳統飮食店 큰 집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Digilog"
2013. 5. 3(금) - 12(일)



정답을 보내주세요!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2013년 5월 15일까지 보내주십시오

[가로열쇠]

❶ 부산문화회관이 매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區 문화회관을 순회하며 펼치는 가족사랑 콘서트로, 입장료 단돈 천 원으로 고품격 공연을 즐길 수 있다.

❹ 부산문화회관이 386세대를 위해 마련한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5월 무대의 주인공. 1984년 '나의 옛날 이야기'로 공식 데뷔한 후. 1980년대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등이 크게 히트하면서 인기를 모았다.

❽ 올해 칸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세계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동명원작을 바즈 루어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된 영화.

⓬ 풍물놀이에서, 벙거지의 꼭지에다 참대와 구슬로 장식하고 그 끝에 해오라기의 털이나 긴 백지 오리를 붙인 것.

⓭ 제주도의 걷기 좋은 길들을 선정하여 개발한 도보여행 코스로,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한다.

⓯ 춘추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조나라의 10만 대군에 맞서 묵가 출신의 지략가 혁리가 인구 4천의 연나라 양성을 지키는 싸움을 그린 한 · 중 · 일 합작영화.

⓰ 배경을 그린 길고 큰 막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배치하고, 그것을 잘 조명하여 실물처럼 보이게 한 장치.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 수 없는 큰 장면의 촬영을 위한 세트로 쓴다.

⓲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예언자로, 시(詩)를 통하여 중세의 정신을 종합하였으며, 르네상스의 선구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신곡' '신생' '향연' 등이 있다.

㉑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숲의 요정. 나르키소스를 사랑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슬픔으로 몸은 없어지고 메아리가 되었다고 한다.

㉒ 서남아시아에 있는 페르시아 민족국가. 1935년 '아리아인(人)의 나라'라는 뜻의 현재 국명으로 개칭했으며, 수도는 테헤란.

㉓ 맏형 배리 깁과 쌍둥이 형제 로빈 깁, 모리스 깁 등 깁 형제로 구성된 3인조 영국밴드. 'Massachusettes'를 시작으로 'Holiday' 'World' 'Words' 'I started a joke' 등 히트곡을 연달아 냈으며 1977년 영화 '토요일밤의 열기' 사운드트랙 앨범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㉔ 러시아의 우랄산맥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북아시아 지역. 석유, 천연가스, 철, 금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㉕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제 우호관계의 촉진,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인도적 문제에 관한 국제협력을 달성하기 위하여 창설한 국제평화기구.

㉖ 가족과 함께 보내야할 크리스마스에 홀로 집에 남겨진 꼬마 '케빈'이 악당 도둑들과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그린 영화로, 1991년 1편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5편의 영화가 제작되었다.

㉗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이며, 네덜란드의 하멜 일행이 표류하여 도착한 곳으로 유명하다.

[세로열쇠]

❷ 신라의 승려(617~686). 신라 십성(十聖)의 한 사람으로 꼽히며, 해동종(海東宗)을 제창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다.

❸ 조선 선조 26년(1593)에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왜적을 크게 물리친 싸움.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 임진왜란 삼대첩의 하나이다.

❺ 남이 잘되기를 비는 말로, 주로 새해에 많이 나눈다.

❻ 고양이를 통해 인간의 속성을 우화적으로 그린, 브로드웨이 4대 뮤지컬 중의 하나.

❼ 비올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스테판 피 재키브), 피아니스트 지용, 첼리스트 마이클 니콜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실내악 앙상블. 6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❾ 남북이 합의하여 북측지역인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개발한 공업단지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3일 북한이 이 곳 진입을 차단하면서 현재 전면 가동이 중단되었다.

❿ 서양 현악기의 하나. 바이올린보다 조금 크고 네 줄로 되어 있으며, 바이올린의 바로 아래 음역을 맡는데, 소리는 어둡고 둔하다.

⓫ 조선 중기 문신인 허균의 소설 속 주인공.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진 의적의 우두머리로, 훗날 율도국으로 건너가 이상향(理想鄕)을 건설한다.

⓮ 기원전 57년 박혁거세가 지금의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세운 나라. 진흥왕 때에 가야를 병합했으며, 태종 무열왕 때 백제를, 문무왕 때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했다.

⓱ 예술가, 전문가에 대한 경칭 또는 칭호. 특히 지휘자, 음악감독, 작곡가, 스승의 경칭으로 사용된다.

⓳ 손바느질로 만든 곰인형. 미국의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어 루스벨트의 애칭을 따서 부쳐진 이름으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곰인형의 보통명사가 되었다.

⓴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대폭포. 한때 세계 제1의 폭포라고 했으나 그후 이구아수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현재는 북아메리카 제1의 폭포로 불린다.

㉓ 오스트리아의 수도. 유럽의 고도(古都)로, 지금도 중부 유럽에서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를 이룬다. 빈의 영어식 표기.

May 2013 Program Guide

5 2013 May

Grand theater Medium theater Small theater Outdoor Amphitheater
B.P.O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 B.M.T.O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Orchestra / B.M.D.C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M.C Busan Metropolitan Chorus / B.M.T Busan Metropolitan Theater / B.P.Y.O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B.M.J.C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2	3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3 Opening Performance Spain YLLANA Production 'Pagagnini' 19:00 10,000/BIPAF(714-6920)	4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3 Opening Performance Spain YLLANA Production 'Pagagnini' 18:00 10,000/BIPAF(714-692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Korea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14:00, 17:00 10,000/BIPAF(714-6920)
5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Korea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14:00, 17:00 10,000/BIPAF(714-6920)	6	7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2013' 20:00 10,000/BIPAF(714-692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in Productions Trapa 'NAIF' 20:00 10,000/BIPAF(714-6920)	8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nner of Busan Theater Festival 2013' 20:00 10,000/BIPAF(714-692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pain Productions Trapa 'NAIF' 20:00 10,000/BIPAF(714-6920)	9	10	11 Musical Rebecca, 2013 15:00, 19:00 120,000/100,000/80,000/60,000/SPA(1599-7448)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ustria Klaus Obermaier 'Apparition' 18:00 10,000/BIPAF(714-6920)
12 Musical Rebecca, 2013 14:00, 18:00 120,000/100,000/80,000/60,000/SPA(1599-7448)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ustria Klaus Obermaier 'Apparition' 18:00 10,000/BIPAF(714-6920)	13 Im Hyojin & Choi Mingyeong Piano Duo Concert 19:30 20,000/Choi Mingyeong(010-9496-2687) Choral Performances for Seniors Home in the Evening primrose 15:00 Free/Daeyon Elementary School(010-6627-9612)	14 The 19th Regular Concert of Melomania 19:30 Invitation/Melomania(010-8543-9378) 2013 'Concert of Love' with Busan Concert Choir 19:30 Busan Concert Choir(607-3161) Dongboakhoe(The Society for Geomungo Research) Concerts 19:30 10,000/Kim MyeongSu(010-3130-1355)	15 Busan Metropolitan Chorus Pop Music Concert 19:30 20,000/10,000/B.M.C(607-3141~2) 2013 Gim Bokseon Ballet Performances 19:30 20,000/10,000/Shin Jiyeon(010-8554-1452)	16 Men that Read Opera Series II 'Turandot' 19:30 50,000/30,000/20,000/Busan Metropolitan Pops Orchestra (070-7727-0188, 010-9630-5449) The 44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Youth Orchestra 'Russia Ballet Music' 19:30 2,000/B.P.O(607-3111~3)	17 Verdi's 200th Anniversary Concert 'Viva Verdi' 19:30 20,000/Bellissimi(514-3747, 010-8277-4746)	18 Saturday Regular Stage- Dance Association of Busan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9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YMCA Neo Philharmonic Orchestra 18:00 10,000/5,000 Busan YMCA Neo Philharmonic Orchestra(440-3372) TongkiTown The 1st Concert 17:00 Free/Lee Hakmin(010-2622-1528)	20 The 15th Regular Concert of Busan Chamber Orchestra 19:30 20,000/10,000/Busan Chamber Orchestra(663-4918) Jangmalu Dance Company Performance 19:30 Invitation/Shin Seoryeon(010-6862-8015)	21 Ask the Way to the Music IV19:30 Invitation/Jo Hyeseon(010-8501-5117)	22 The 68th Regular Perfo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rilliant Legacy' 19:30 10,000/7,000/5,000/B.M.D.C (607-3131~2)	23 The 68th Regular Perfo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Brilliant Legacy' 19:30 10,000/7,000/5,000/B.M.D.C (607-3131~2) The 1145th MBC Thursday Concert 'Splendid meeting of Music & Ballet with Busan Sinfonietta' 19:30 10,000/5,000/Kim Younghee(010-8519-0448), Cultural City Network Corp.(760-1494)	24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0 50,000/30,000/20,000/10,000/B.P.O(607-3111~3)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YMCA Neo Philharmonic Orchestra 19:30 10,000/5,000 Busan YMCA Neo Philharmonic Orchestra(440-3372) The Concert, Under the Sky Part2-Yesterday 'Jo Deokbae Concert' 19:30 30,000/B.C.C(607-6057)	25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17:00 1,000/B.M.J.C(607-3161~2) Soprano Lee Jieun Recital 18:00 Invitation/Lee Jieun(010-9331-2157) Saturday Regular Stage-Love Letter 16:00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26 Eduardo Fernandez Guitar Recital 19:00 50,000/30,000/20,000/Koreamusica(02-2272-6516)	27	28 2013 Busan Youth Music Festival 19:00 Free/The Music Association of Korea/Busan(634-1295)	29 Concert Commemorating Priest Lee Taesuk A Night for Songs and Aria 19:30 Invitation/Lee Taesuk memorial corp.(637-0125)	30 The 490th Regural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Beethoven Symphony Cycle II ' 19:30 10,000/7,000/5,000/B.P.O(607-3111~3)	31	6/1 Agimus Opera Company Verdi Opera Gala Concert '19:30 80,000/50,000/30,000/20,000/Agimus(070-7522-4649)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annual members, • The abov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Please visit our website at http://culture.busan.go.kr for more information, • For invitation, please call the organizer.

2013년 5월 공연일정

5 2013 May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야외공연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전시실 제19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회-대, 중전시실 5월 1일(수)-5월 4일(토) 최연성(868-5236, 011-864-3698) 2013 남구문화예술회 합동전시회-대전시실 5월 5일(일)-5월 8일(수) 부산남구문화원(624-1333, 010-2574-2793)	제23회 대한민국 서예문화대전-대전시실 5월 9일(목)-5월 11일(토) 대한민국서예문화협회(312-3301, 011-599-6644) 한국 추사서화예술대전-대전시실 5월 17일(금)-5월 21일(화) 하기석(632-7077, 011-823-1366)	제33회 전국서도민전-대, 중전시실 5월 25일(토)-5월 29일(수) (사)한국서도예술협회(441-7081, 010-5160-5291) 제8회 부산디카사랑 사진전시회-중전시실 5월 30일(목)-6월 2일(일) 임구택(201-1445, 010-4415-0035)	1	2	3 대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19: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4 대 부산국제연극제 개막작 스페인 YLLANA Production '파가니니' 18: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소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하땅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14:00, 17: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5 소 부산국제연극제 극단 하땅세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14:00, 17:00 균일 1만원 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6	7 중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대상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녁 '운악' 20: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소 부산국제연극제 스페인 Productions Trapa 'NAIF' 20: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8 중 부산국제연극제 부산연극제 대상작 부산연극제작소 동녁 '운악' 20: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소 부산국제연극제 스페인 Productions Trapa 'NAIF' 20: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9	10	11 대 뮤지컬 '레베카' 15:00, 19:0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중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오스트리아 Klaus Obermaier '유령' 18: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12 대 뮤지컬 '레베카' 14:00, 18:00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 SPA엔터테인먼트(1599-7448) 중 부산국제연극제 폐막작 오스트리아 Klaus Obermaier '유령' 18:00 균일 1만원/부산국제연극제사무국(714-6920)	13 중 임효진·최민경 피아노 듀오 콘서트 19:30 균일 2만원/최민경(010-9496-2687) 소 가정의 달맞이 조부모의 날 합창 공연 15:00 무료/대연초등학교(010-6627-9612, 610-7666)	14 대 멜로매니아 제19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멜로매니아(010-8543-9378) 중 부산콘서트콰이어 사랑의 음악회 '그리움' 19:30 초대/최형태(607-3161) 소 거문고연구회 부산동보악회 제4회 정기연주회 '전통과 만나다-맥' 19:30 균일 1만원/김명수(010-3130-1353)	15 대 부산시립합창단 특별기획연주 '가요합창음악회 아홉번째 이야기-Concert Red, Green, Blue' 19:30 2만원·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2013 김복선 발레공연 19:30 2만원·1만원/김복선발레단(010-8554-1452)	16 대 오페라를 읽어주는 남자 시리즈Ⅲ '투란도트' 19:30 5만원·3만원·2만원/부산메트로폴리탄팝스오케스트라 (070-7727-0188, 010-9630-5449) 중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44회 정기연주회 2013 발레음악 시리즈Ⅱ '러시아 발레 음악'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7 중 베르디 탄생 200주년 기념 음악회 벨리씨미성악연구회 'Viva Verdi' 19:30 균일 2만원/이은미(010-8277-4746)	18 소 토요상설무대-(사)부산무용협회 '남선주의 춤 춘흥'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9 중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18:00 1만원·5천원 부산YMCA네오필하모니 오케스트라(440-3372) 소 통기타운 제1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이학민(010-2622-1528)	20 중 제15회 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2만원·1만원/부산체임버오케스트라(663-4918) 소 불교무용단 장마루 무용단-풍경소리에 연향을 담다 19:30 초대/신서련(010-6862-8015)	21 중 창작합창 21 음악에 길을 묻다 Ⅳ 19:30 초대/조해선(010-8501-5117)	22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23 대 부산시립무용단 제68회 정기공연 '찬란한 유산'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중 제1145회 MBC목요음악회 '부산신포니에타와 함께하는 음악&발레의 화려한 만남' 19:30 1만원·5천원/문화도시네트워크(760-1494), 김영희(010-8519-0448)	24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피아니스트 백건우 초청연주회 19:30 5만원·3만원·2만원·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부산YMCA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청소년 협주곡의 밤 19:30 1만원·5천원/부산YMCA네오필(440-3372) 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그콘2-Yesterday 조덕배 소극장 콘서트' 19:30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7)	25 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17:00 균일 1천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중 소프라노 이지은 귀국 독창회 18:00 초대/이지은(010-9331-2157) 소 토요상설무대-러브레터 '봄 그리고 재즈의 향연' 16:00 선착순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6 중 에듀와르도 페르난데스 기타 독주회 19:00 5만원·3만원·2만원/코리아 무지카(02-2272-6516)	27	28 대 2013 청소년 예술제 '부산청소년음악제' 19:00 무료/부산음악협회(634-1295)	29 대 제12회 부산사람 이태석 기념음악회 19:30 초대/(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637-0125)	30 대 부산시립교향악단과 리신차오의 베토벤 심포니 사이클 Ⅱ 19:30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31	6/1 대 아지무스 오페라단 베르디 탄생 200주년기념 '베르디 오페라 갈라축제' 19:00 8만원·5만원·3만원·2만원 아지무스오페라단(070-7522-4649)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을 click하세요.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since 1973
Busan Metropolitan Junior Chorus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4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프로그램

장구춤과 소고춤 · 장구춤 · 소고춤 · 두껍아 문지기 주제에 의한 합창
특별출연 소프라노 신정순 · 새타령 · Gipsy fiddles playing(심벌즈 소리가 들려요)
합창명곡 · O mio babbino caro(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아리랑고개위의 들장미
· Lascia Ch'io Pianga울게하소서 · Quando Corpus Morieturl내 육신이 쇠할지라도-Amen아멘
한국가곡과 독일가곡 · 도라지꽃 · 보리밭 · Die Forelle송어 · Frühlingsglaube봄의 찬가
특별출연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지휘 : 엄현섭) · 꿈 이야기 · 사운드 오브 뮤직(THE SOUND OF MUSIC)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 합창으로 배우는 음악사



소프라노 / 신정순



지휘 / 엄현섭



사하구소년소녀합창단



반주 / 이영옥



반주 / 이승윤

안무지도 : 노금선 합창지도 : 김양자

2013. 05.05. 19:00 Konzerthalle Ulrichskirche in Halle
2013. 05.07. 19:00 Petruskirche in Hamburg
2013. 05.09. 17:00 Barockgarten Großsedlitz in Pirna
2013. 05.10. 19:00 Dreikönigskirche in Dresden
2013. 05.11. 19:00 Kostel sv. Šimona a Judy in Prage

2013. 5. 25 (토) 17: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1,000원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후원 Jugendwerkstatt frohe Zukunft Halle, Barockgarten Großsedlitz, Dreikönigskirche, Ksk-Management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 607-31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동해바다의 생명을 품고 있는 포항

2013년 6월 14일(금)

동해바다의 생명, 열정을 품고 있는 항구도시 포항으로 떠나는 초여름 여행. 포스코와 포스코역사관, 동해안 최대의 상설시장인 죽도어시장, 혜공선사의 재미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고찰 오어사를 둘러보며 포항의 초여름을 즐겨본다.

09:36 부전역 출발
12:13 포항 도착, 포스코로 이동
12:30 중식
13:00 포스코역사관, 포스코 공장견학
15:00 오어사로 이동, 오어사 탐방
16:30 죽도시장 방문 후 신경주역으로 이동
19:00 부산으로 출발
19:30 부산역 도착



역사의 섬 가덕도

2013년 7월 12일(금)

신항만과 거가대교로 한층 더 가까워진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 기행. 가덕도 왜성과 부산광역시기념물 제35호 지정된 가덕도 척화비, 1909년 12월 첫 불을 밝힌 우리나라 초창기 등대인 가덕도 등대 등 다양한 역사 유적이 산재한 가덕도에서 또 다른 부산의 모습을 찾아본다.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09:30 가덕도 도착, 록봉교육민속박물관 관람
11:0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12:00 중식
13:00 천성 선착장에서 대항으로 이동, 가덕도등대 탐방
17:00 부산으로 출발



2013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체험비는 회원 부담)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busan.go.kr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3 May Vol·257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5.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7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 름

주 소

연락처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5. 1~
남부산우체국
승인 제257호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초대〉 담당자 앞

6 0 8 - 0 2 4

예술에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센텀점
TODAI Restaurant
20% Discount



10% Discount
MOZART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10% Discount
Since 1981
philharmony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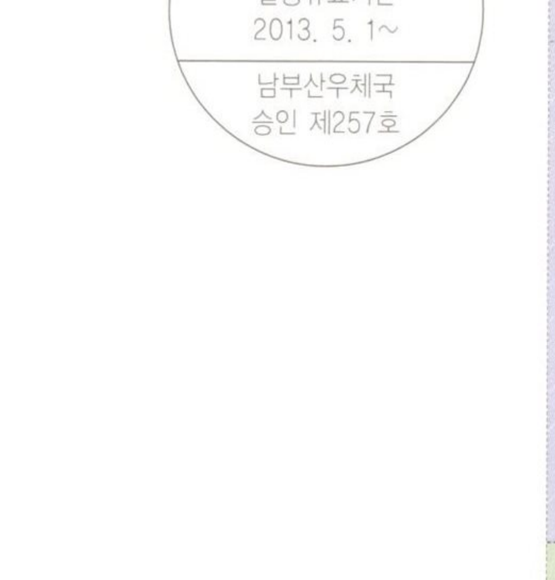
Newtop Dental Clinic
해운대뉴탑치과

20% Discount
리얼코믹극
달콤한 수작



20% Discount
뮤지컬
사랑할까요?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하늘아래 그 콘서트
Part II -Yesterday
조덕배 소극장 콘서트



2013. 5. 24. Fri. PM 7:3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30,000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부산문화회관
예매 : 부산문화회관 culture.busan.go.kr
문의 : 홍보마케팅부 051.607.3100 / 공연과 051.607.6057

토다이 센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051)626-145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돈까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밸리 210호
051)747-8244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6-2592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운대 뉴탑치과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부산 해운대구 우동 602-5
051)744-2806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얼 코믹극 '달콤한 수작'

2013.3.29(금)-6.2(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 공휴일 오후 3시, 6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 조은극장(1588-2757)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뮤지컬 '사랑할까요?'

2013.5.17(금)-6.9(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균일 3만원 장소 : 공간소극장
문의 및 예매 : 611-8518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13년 6월 응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 회원명
- 연락처 [자택] [휴대폰]
- e-mail
- 동행자 인적 사항
  - 이름
  - 주소
  - 연락처

※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참여하고 싶은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십시오.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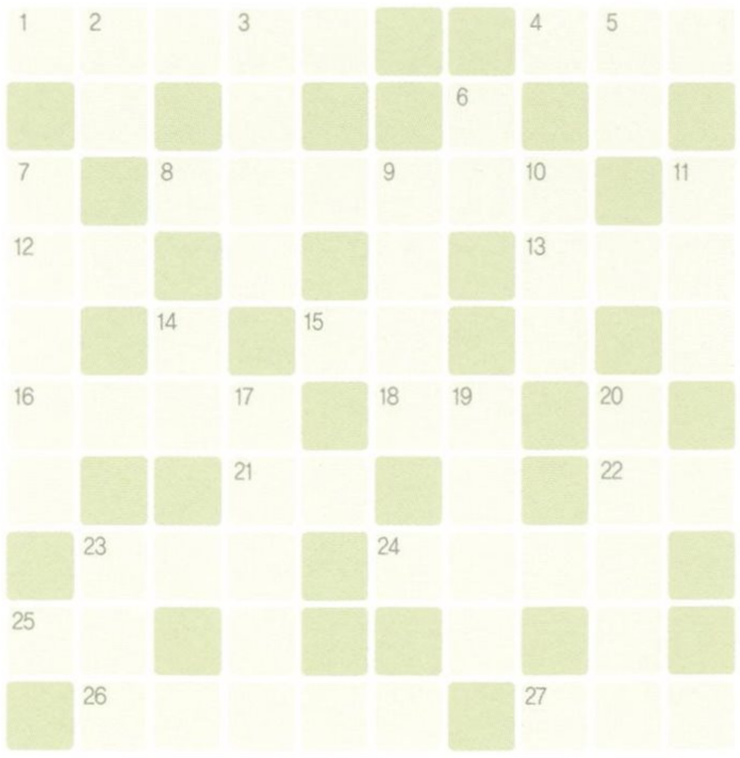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퍼즐정답



말 한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
?!

NO

광고하나로 천냥 빚 갚는다!!

YES

효과있는 광고로 당신의 근심, 걱정을 날려 보내 드립니다

제 작 / 각종 프로모션, 홍보부스, 영상물, 사인물 등
광 고 / 지하철, 신문, TV, 라디오 등
디자인 / 편집디자인, CI, BI등

원칙에 충실한 광고회사 ANK
TEL : 051.755.3002 웹하드 : ankokok / ankokok
홈페이지 : www.ank.or.kr

www.bipaf.org

개막작
YLLANA Production (스페인)
〈파가니니〉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Digilog"

2013. 5. 3(금) ~ 12(일)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경성대 콘서트홀·예노소극장·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공간소극장, 액터스소극장, 광안리 BIPAF ZONE

폐막작
Klaus Obermaier and Ars Electronica Futurelab (오스트리아)
〈유령〉



티켓 예매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사무국 Tel 051) 714 6920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주최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CODE NAME :

B·A·C·H

ENSEMBLE DITTO SEASON 7

바흐의
비밀을
풀어라

리처드 용재 오닐, 스테판 피 재키브, 지용, 다니엘 정, 마이클 니콜라스, 션 리(guest)

2013. 6.25 (TUE) PM 7:30

부산문화회관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주관 부산문화회관 문의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 공연과 051) 607-6057

티켓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culture.busan.go.kr / ticketlink 티켓링크 1588-7890 / BS 팝 부산은행 전지점